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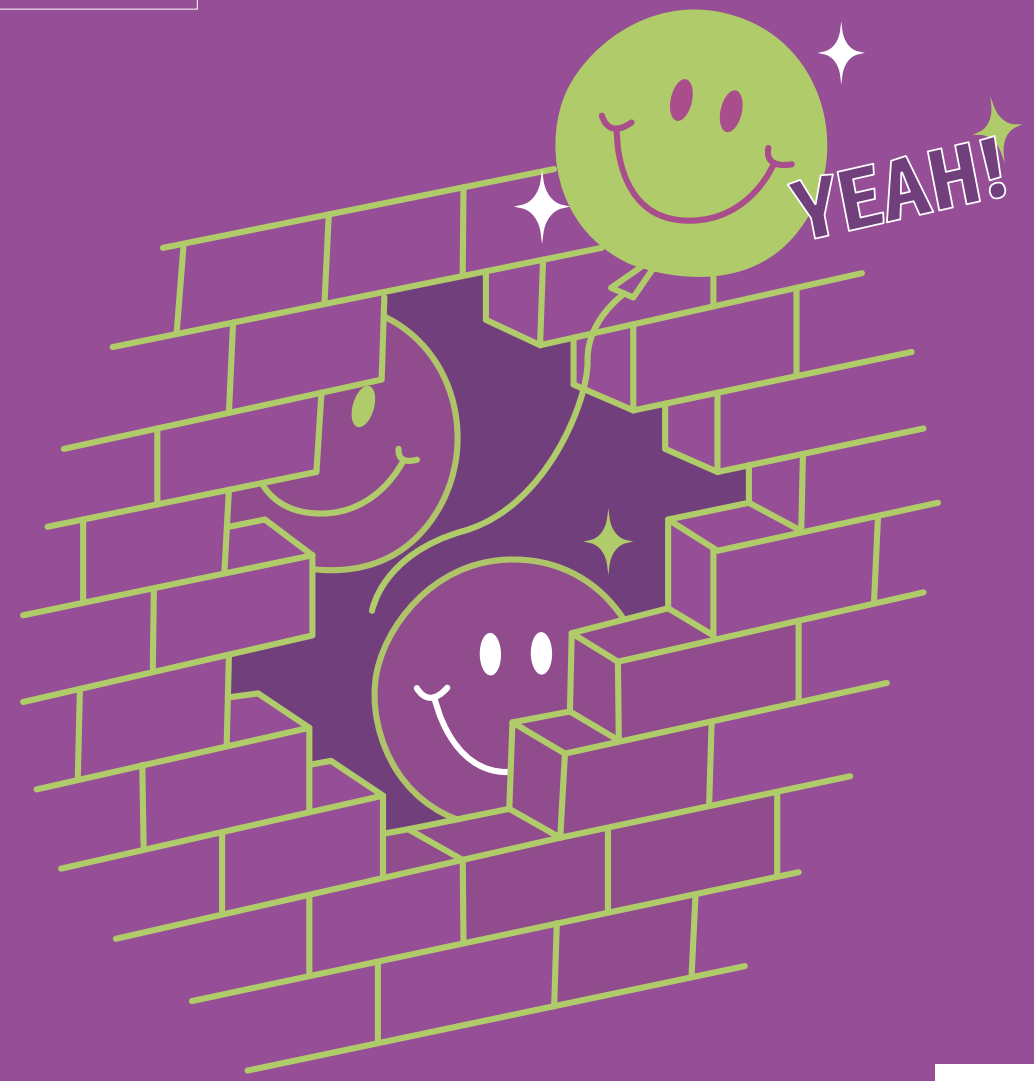
IBK MAGAZINE

03

with IBK | with WM | with 은퇴

덜 지루하게
더 재미있게

2023.
March
vol.451



덜 지루하게 더 재미있게

업무도 일상도 즐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하지만 업무도 공부도 취미 생활도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는 법,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재미있게 일하고 즐겁게 사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봐요.
3월에는 재미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으로

변화될 내일을 꿈꾸는 당신

즐거움으로

함께 그려나가는 일



Contents

2023.
March
vol.451

덜 지루하게
더 재미있게

10

에세이

덜 지루하게 더 재미있게

12

슬기로운 생각

행복은 재미를 먹고 자란다

김선진 교수

18

IBK가 만나다

소울 없어 보여도 인생은 재밌어!

에버랜드 소울리스좌 김한나

24

IBK NOW

재미있게 일상을 보내는 방법,

IBK인의 노하우 공개!

32

IBK업글인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성수희망지점 오현승 팀장

40

IBK맛집노트 ③

부산·울산편

46

발길 닿는 길(국내편)

피란민 애환 서린 달동네, 핫 플레이스로 뜨다

부산 흰여울길

52

발길 닿는 길(해외편)

세계유산마을 잇는 해안 절벽 길

이탈리아 친퀘테레

58

IBK산 ③

청춘의 약속, 주왕산

눈 내리는 산에서 푸릇한 봄을 상상하다

66

IBK버킷리스트

쉽없이 돌아가는 물레 속

도자기에 마음을 담다

74

IBK핸드메이드

향기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여의도중앙지점

82

HOT ISSUE

너의 입행을 축하해!

IBK기업은행 입행 웰컴키트 제작

86

카툰으로 보는 역사

현종의 '재미' 인장 수집

88

요즘, 시선

2023년

재테크 트렌드

90

IBK히어로

단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익산지점

100

히든챔피언

기술력 하나만으로 첨단 산업의 신흥강자로 올라서다

제이엘켄(주) 정훈도 대표

106

창공, 날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IBK창공 기업

위미트, 마지막삼심분, 퍼플고릴라, 휴닉

188

사소한 꿀팁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190

우리말 한 걸음

새 학기 맞이 Z세대가 SNS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192

IBK뉴스

이달의 뉴스

194

이달의 이벤트

이달의 N행시 / 이달의 인증샷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2023년 3월 2일 발행인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조민정, 이승은 편집위원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홍보부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with WM

112

ISSUE BRIEFING 1

인공지능의 혁명
챗(Chat)GPT

118

ISSUE BRIEFING 2

새로운 주택 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때

124

GLOBAL TOPIC

우주산업의
현주소와 비전 전망

128

TAX GUIDE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132

CHANGING SYSTEM

상반기는 부동산 시장
바닥을 다지는 시기

136

CLASSIC CLOUD

고흐의
'이름의 꽃 피는 복숭아나무'

Contents

with 은퇴

142

느림의 미학

부캐, 이른바 또 다른 인생의 시작
'나'라는 퍼스널브랜드는 재창조될 수 있다.

148

마켓 이슈

제2의 전성기, 인기 크리에이터로
인생 2막을 열다

154

건강코칭 닥터

몸과 마음까지 보살피는 무릎의사
TK정형외과 김태균 원장

160

글로벌 트렌드

해외여행 증가가 지금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6

미래 금융 리포트

50대와 60대를 위한 투자 방법
원화 자산에만 매달리면 희망이 없어

172

은퇴 다이어리

은퇴 설계, 주택 구매보다
연금 3층 탑 활용

178

재무설계 플랜

고금리 시대 생존법
파킹통장 200% 활용하기

182

컬처 스토리

속편, 자연 이상의 가치를 만든 영화들

인생의 재미는
낯선 것로부터
시작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재미를 느낀다고 한다. 그래서 삶을 재미있게 사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도전을 하고, 낯선 도시로 여행을 떠나고, 낯선 사람들을 만난다. 업무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익숙한 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도 더 빠르게 해본다거나 다르게 해봄으로써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사소하지만 낯선 시도를 통해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Happiness Grows on Fun

행복은 재미를 먹고 자란다

한국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나이를 먹을수록 재미있는 것도 줄어들고 웃을 일도 적어진다. '재미학 전문가' 김선진 교수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글 김선진



김선진 교수

경성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로 '재미학 개론'을 가르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4차산업혁명 선도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수행했다. 저서로 <재미의 본질>이 있으며, 2018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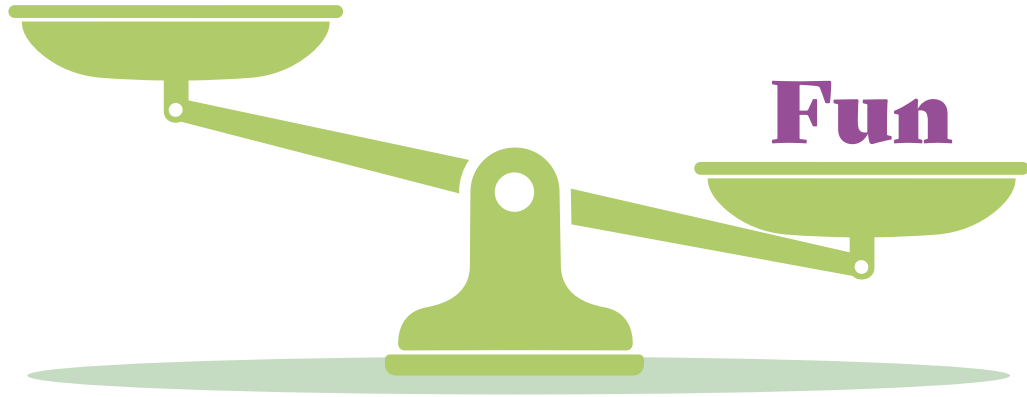


한국인은 왜 인생이 노잼일까

도처에 오락과 재밌거리가 넘쳐나는데 한국인들은 인생이 노잼이라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재미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우울과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듯합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은 그저 문자로 박제된 권리일 뿐입니다. 헬조선이니, 이생망이니, 존버니, 노답이니, N포세대니, 자조적이고 비관적인 언어가 넘쳐납니다. 성별과 연령, 세대에 구별이 없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지만 아픈 중년, 아픈 노년도 못지않습니다. 초경쟁사회에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게 다행인 판국에 사는 게 재미있냐고 묻는 건 비아냥이거나 배부른 소리로 들리기 십상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세계를 휩쓰는 문화강국인데 우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얘깁니다. 세계 최고 자살률, 최저 출산율, 최고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 등 우리의 불행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해방과 종전 후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야 절대빈곤과 배고픔이 문제였겠지만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지금은 배아픔이 문젠니다. 결핍을 모르는 풍요 속의 빈곤, 상대적 박탈감이 문제가 된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 얘긴 배를 굶을 정도로 가난해서 생긴 얘기가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긴 잘난 사람들에게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문젠니다. 나보다 좋은 아파트,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끝없는

Happiness



비교로 작아지는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문젠입니다. 성공과 출세만이 행복해지는 길이라 믿는 우리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문젠입니다. 개인적 차원 외에 사회적인 이유도 다양합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집단주의 문화, 각자도생이 일상이 된 저신뢰 사회, 위계를 중시하는 서열 의식, 타인을 의식하고 눈치 보는 비교 심리 같은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들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생존만 신경 쓰다 실존을 잃어버렸고, 타인을 신경쓰다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히 설명이 된 걸까요? 저는 이 지점에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더 궁금했습니다. 그러다 행복과 재미를 비교 분석하면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와 행복에 대한 관심의 차이

저는 한국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찾다가 우연한 기회에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를 하나

찾았습니다. 구글이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구글 트렌드'라는 빅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했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하는 키워드는 사람들의 관심사항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겁니다. 빅데이터의 위력은 이미 구글이 독감 예측, 미 대통령 선거결과 예측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전문가들도 인정할 정도로 신뢰성이 높습니다. 행복도가 높은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하다 문득 재미가 중요한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밀져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검색한 구글 트렌드의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미와 행복은 상호 역전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행복과 재미는 같은 긍정 정서이면서도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행복 관심이 높으면 재미 관심도는 낮고, 재미 관심이 높으면 행복 관심이 낮다는 뜻입니다. 행복도에 있어서 우리와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서구인들의 관심이 어떨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최근 5년간 서구인과 한국인이 재미와

행복에 대해 보여준 관심도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를 통해 서구인들이 행복과 재미에 대해 보여준 관심도는 우리와 극단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미'에 대해서는 기간 내내 상대 비중 100에 가까운 관심도를 보인 반면, '행복'에 대해서는 겨우 20 언저리에 머무르고 있어 신기할 정도로 재미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거의 다섯 배의 차이로 행복보다 재미에 대한 관심도가 월등히 높습니다. 그에 반해 재미와 행복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는 서구인과는 상극이다 싶을 정도로 관심도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기하게도 재미와 행복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도는 서구인의 그것과 정확히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종의 차이가 있을 뿐 같은 인간이면서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습니다. 이는 역사, 문화적 차이, 정치, 사회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같은 기간에 '행복'에 대한 관심도는 70에서 100 사이를 움직이고 있는 데 반해 '재미'에 대한 관심도는 20 언저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구인과 정확히 역전된 형태로 거의 다섯 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그래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해보고 그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데이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행복도 조사결과입니다. 매년 UN산하 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행복보고서>에서 서구인들은 대체적으로 행복도가 다른 언어권 사람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에 따르면 행복과 재미에 대한 관심은 상호 역전적이었습니다.





Happiness

위의 행복과 재미에 관한 관심도 데이터와 행복도 조사결과를 함께 겹쳐보면 의미있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선 행복도가 높은 서구인들은 평소 행복보다 재미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행복도가 낮은 한국인들은 평소 재미보다 행복에 더 관심이 높습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째, 서구인들이 대체로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평소 행복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이다. 평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행복을 찾을 이유가 없어서다.

둘째, 한국인이 행복도가 낮은 데 비해 행복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건 평소 행복하지 않다는 걸 추정케 한다. 그토록 행복을 갈망하는 이유는 현실이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다.

셋째, 행복은 행복을 추구함으로써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역설적으로 행복에 무관심할

때 더 획득하기 쉽다.

넷째, 서구인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는 평소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이고 한국인의 행복도가 낮은 이유는 평소 재미와 거리가 먼 삶을 살기 때문이다.”

행복은 목적이 아닌 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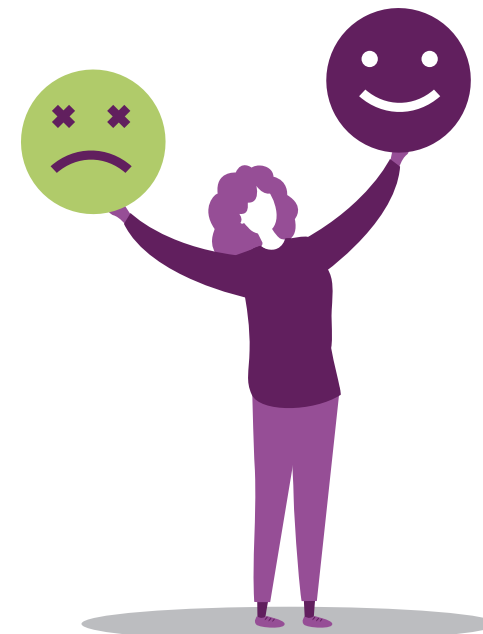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쫓는 대신 일상의 재미를 찾고 실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목표를 성취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충분히 누리지 않고 산 게 원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결과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할뿐더러 원하는 목표도 이루지 못합니다. 삶에 대한 서구인과 우리의 태도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보통 사람들을

처음 만나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뭘 좋아합니까?”(what do you like?),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what's your hobby?), “당신이 선호하는 건 뭡니까?”(what is your favorite?) 서구인들은 대개 상대방의 선호와 즐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에 반해 한국인들은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당신은 어디 출신입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선호나 취향과는 하등 관계없는 개인적인 지위나 신분과 같은 것들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보더라도 서구인들은 평소 무엇을 하면 즐거울지에 관심이 많은 반면, 한국인들은 사회적

행복과 괴로움은 한 곳 차이입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재미입니다.

is a journey, not a destination



지위나 신분, 소유와 같은 것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행복이 즐거움과 같은 정서적 가치보다 외적이고 물질적인 가치에 쏠려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또한 행복을 인생의 과정 속에서 얻어야 할 정서적 경험이라고 보기보다 달성하고 성취해야 할 목표와 같은 것으로 인식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Happiness ia a journey, not a destination). 그 여정을 채워가는 방법이 바로 재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경험으로 채울 수만 있다면 죽는 날까지 일생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幸)과 괴로움(辛)은 한 곳(一) 차이입니다. 그 한 곳이 바로 ‘재미’입니다. 괴로움을 행복으로 바꾸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삶에 재미를 더하면 됩니다.

소울 없어 보여도
인생은
재밌어!

에버랜드 소울리스좌
김한나

지난해 유튜브에서 화제를 모았던 에버랜드 아마존의 '소울리스좌' 김한나 씨를 만났다.
영혼을 잃은 눈빛으로 열정적으로 랩을 하고 춤을 추던 그녀에게
재미있게 일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글 엄세권 사진 김성재 영상 김두기 영상편집 윤승현 사진제공 에버랜드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Soulless좌

Q. 지난해 유튜브 티타남 채널에서 아마존에서 일하시는 영상이 큰 관심을 받으면서 현재 2,600만 조회수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댓글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영혼 없는 눈빛’과 그와 상반되는 ‘빠른 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버랜드 아마존의 직원들은 대부분 텐션이 높는데, 뜬금없이 영혼 없는 직원이 나오니까 신기하게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신 것 같아요.

Q. 영혼 없는 눈빛으로 중독성 있는 랩을 하신다고 해서 ‘소울리스좌’라고 불리시는데요.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별명이 다했다고 생각해요.(웃음) 찰떡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맞는 별명을 지어주셔서 정

말 마음에 들어요. 사실 처음엔 입에 잘 안붙어서 어색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저를 ‘소리좌’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젠 이름처럼 익숙한 별명이 된 것 같습니다.

Q. 티타남 채널의 소울리스좌 인터뷰 영상도 조회수가 465만회를 넘겼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은 에버랜드를 나왔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 친구들과 놀러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좀 더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제가 일상을 보내는 모습들을 담은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재미있게 해보고 있습니다.



Q. 아마존에서 하루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랩을 하고 춤을 추면서 일했는데, 힘들진 않으셨나요?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일상에 큰 에너지가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재밌게 노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가끔 힘들게 일하다가도 텐션 높은 친구들이 기분을 끌어올려주니까 정말 재밌게 일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씩 춤을 추고 나면 집에 와서 몸이 쭈시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동료들과 열심히 랩을 하고 춤을 추면 함께 즐기면서 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았습니다. 오히려 춤과 랩을 적게 하는 날에는 더 지루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Q. 자신이 하는 일을 더 재미있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

할 때 긴장을 하거나 걱정이 앞서면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도 잘 안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 불안함이 전염되는 것 같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일을 하면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 다른 동료들이나 고객들과도 부드럽게 소통하고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다양한 광고와 영상에서 활약하시고 삼성라이온즈 경기에서 시타도 하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일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방금 말씀하신 시구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일반인인 제가 선수들과 관중들로 가득 찬 그라운드에 올라서 야구 배트를 휘둘러볼 일은 다시 없을 경험이잖아요. 수많은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라운드에 올라섰던 그 순간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평생 잊지 못할 기억 중 하나인 것 같아요.



Q. 나에게 '재미'란 OOO이다?

저에게 재미란 '아마존'이다! 저는 아마존에서 일하기 전에도 많은 아르바이트를 경험했었는데요. 에버랜드 아마존에서 일하면서부터 일을 하는 것이 단지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가 일의 재미를 찾고, 즐기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곳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아마존에서 배운 마음가짐을 잊지 않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열심히 살아갈 계획입니다.

Q. 과거 인터뷰에서 카페를 하는 것이 꿈이라고 들었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앞으로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원래 목표였던 카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보려고 해요. 나중에 카페를 열게 된다면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

까 여러분 유튜브 '소울리스한_나' 구독하시고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세요!
 "에버랜드 아마존에서 일하면서부터 일을 하는 것이 단지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스로가 일의 재미를 찾고, 즐기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곳인 것 같아요."

김한나가 IBK 매거진 독자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IBK 독자 여러분! 재미있고 편안하게 일해보니, 더 재밌고 다양한 일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일에서 재미를 찾으시고 다양한 기회를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



To. IBK 매거진 독자 여러분

Kim^{Na}Na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한번 사는 인생
재미있게 살자꾸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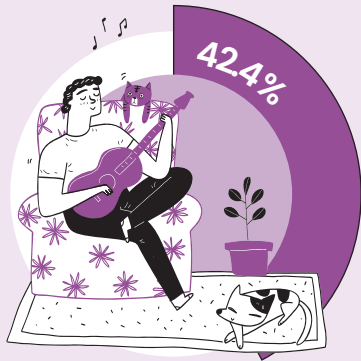
재미있게 일상을 보내는 방법, IBK인의 노하우 공개!

같은 일도 더 재미있게 하고, 매일 똑같은 일상을 더 즐겁게 보내는 방법에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IBK인들은 업무와 일상을 어떤 방법으로 재미있게 즐기고 있을까?

정리 편집실

IBK인의 재미 설문조사

1위



취미로 리프레쉬

역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한 것은 '취미'다. 그림을 그리고, 등산을 하고, 무언가를 모으면서 힐링을 시간을 가지고, 다시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IBK인들이 많았다. 역시 일을 잘하는 사람은 휴식도 잘 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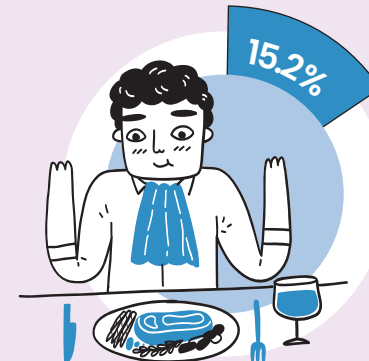
2위



자기계발/업무몰입

2위는 '자기계발'과 '업무몰입'이었다. 그날 처리해야 할 업무들을 마치 게임처럼 하나씩 클리어하기도 하고, 빙고판을 만들어 업무를 재미있게 해내기도 하고, 또 퇴근 후에 금융자격증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IBK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을 엿볼 수 있었다.

3위



맛있는 휴식

먹는 것이 남는 것! 맛있는 음식이나 편안한 휴식으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IBK인도 많았다. 모닝커피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지점 근처 맛집을 하나씩 방문해보기도 하고, 또 잠깐의 산책으로 바쁜 일상 속 편안한 휴식을 가지는 것도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었다.

4위



유대감 강화

IBK인들은 동료나 고객들과 유대감을 가지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었다. 출근길에 간식을 준비해 동료들과 나눠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직접 내린 커피를 고객들에게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상 속의 행복을 찾아가는 IBK인들! 앞으로 더 즐거운 일만 가득하기를!

IBK인의 재미있는 일상!

바쁜 영업점 업무 속 활력을 찾는 법은 지점 근처 맛집 도장깨기! 가까운 식당에서 직원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며 함께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공릉역지점 봉에스터



저는 아침에 간단히 간식 같은 것을 직원들과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기도 합니다. 또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소화행을 즐기기도 하구요. 업무가 재미있게 느껴질 때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인데도 상대방이 크게 감사를 표현해주실 때 무척 기쁘고 일이 즐겁게 느껴진답니다. 나의 소소한 말 한마디, 그래서 제스처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게는 나비효과 처럼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하고 있어요.

여신기획부 여신지원팀 김서연



나만의 레시피로 요리해서 먹기! 만들고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죽전지점 정영미

어려운 업무를 접했을 땐 마치 게임 퀘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어요. 규정, 업무 매뉴얼을 보면서 하나씩 처리하고, 시간이 된다면 수기계산도 한번 해봐요. 하나씩 해내다 보면 어느새 업무 끝판왕이 된답니다. 가끔은 다른 은행을 방문 하기도 합니다. 기업은행과 다른 점, 직원의 태도 등을 보며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정관지점 표정화

Mission Complete!!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퇴근 후 3시간가량 그림을 그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어요. 작품을 그려서 선물하면 보람도 생기고요.

인천지점 김미라



시간이 날때 각종 커피를 만듭니다. 고객에게 직접 내린 커피를 만들어드리면 유대관계도 깊어져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타행 이탈도 줄어듭니다.

마산내서지점 이상욱



일을 하다 보면 이미 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도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이면지에 빙고판을 만들어 처리해야 할 업무를 적어놓고 완료 시 지우는 방식으로 업무를 놓치지 않고 있어요. 빙고판을 완성한 날에는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통해 스스로 선물을 주고 있습니다!

IT기획부 이승환



일일 신문 스크랩을 작성해요. 뉴스 기사에서 흥미로운 내용을 일일 단위로 정리해서 한글 파일에 기재해요. 이렇게 하면 목표 의식도 생기고, 업무의 연장에서 이해를 돕거나 연계되면서 재미를 붙일 수 있어요.

송도테크노파크지점 김동빈



저는 지루한 일상에 활력소를 주기 위해 시간이 될 때마다 영남알프스를 등반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9봉을 등반하여 기념은화도 받았습니 다. 몸은 힘들지만 정신은 맑아지고 삶의 능률도 올라갑니다.

울산WM센터 심수연



업무가 재미있게 느껴질 때! 경쟁 여러 항목을 한 번에 채울 수 있을 때! 테트리스 4~5줄을 한방에 클리어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럴 때 재미를 느낍니다!

초읍동지점 강동희



어려운 업무를 해결하고 나면 성취감도 가질 수 있고, 업무에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꺼리고 어려워할 만한 일을 해결할 때 부쩍 자신감이 생기고 일상도 즐거워집니다.

김천지점 여정국



저는 종종 은행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그림일기로 기록합니다. 초등학교 그림일기 양식을 인터넷에서 구해 '굿노트' 앱으로 쓰는데요.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나중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그림일기를 쓰면 기억이 조금 미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매일매일 일스펙더를 할 것 같아요.

가끔 동기에 그림일기를 보여주면, 마치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마디 남겨주듯 제 일기에 대한 후기를 써주곤 합니다. 2021년도에 신속창구에 있던 시절 종종 썼었고, 기업여신을 볼 때에는 거의 못 썼는데 최근에 가계대출과 신속창구 업무를 다시 맡게 되며 가끔 일기를 쓰곤 합니다.
평탄중양지점 김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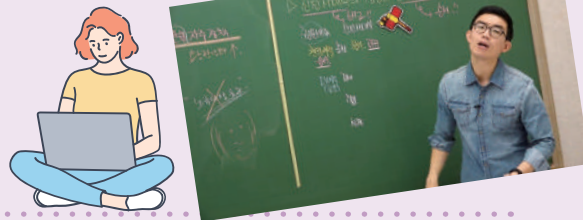


아침에 모닝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면 업무 에너지가 팍팍 생겨나요~! ^^
동탄중앙지점 이여진



5층 이하 건물은 건강을 위해 계단을 이용합니다.
서교동지점 장상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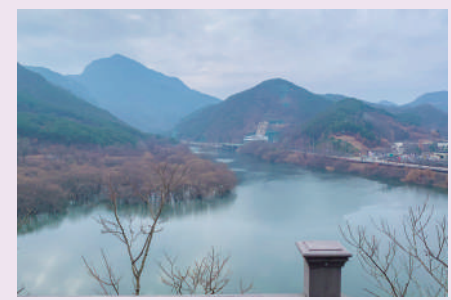
지루한 출근길 전철에서 한국사 자격증을 목표로 강의를 듣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보면서 왔는데, 이렇게 출근길 1시간을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내니, 지식이 채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레벨업이 된 느낌이랄까? 그래서인지 회사 업무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거 같아요.
프로세스혁신부 이지선



저는 일상이 무료해질 즈음 아침에 평소에 감사했던 분께 커피를 한 잔씩 사가지고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곤 해요. 서프라이즈로 커피를 선물하면 받는 분도 기분 좋아지고 드리는 저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해집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주변 분들과 마음을 나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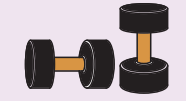
1. 뮤지컬 공연 관람
 2. 신작 추천영화 관람
 3. 국내 소도시 여행(1박 2일 or 당일)
 4. 집 주변 나만의 힐링카페 정하기
- 송현동지점 권정자



주기적인 러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 운동을 통해 활력을 재충전하고자 노력합니다!
혁신금융부 허지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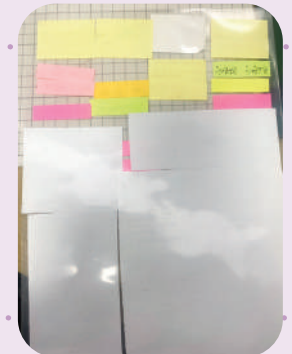
저는 점심시간마다 지점 옆 헬스장에서 파워리프팅을 하고 있습니다. 체력도 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운동 다녀와서 시작하는 오후 근무는 더 활기차지는 것 같아요.
안암동지점 주미애



식사 후 나홀로 하는 산책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립니다. 반복된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이리저리 거닐고 나면 몸은 가벼워지고 마음도 정리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역곡지점 서은영



농치기 쉬운 업무 일수나 자주 문의하는 본부직통번호 등을 작은 메모지에 붙여 놓습니다. A4용지에 점점 채워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뿌듯해짐을 느낍니다.
달성공단지점 이정은



바쁘고 지루한 일상 중 힐링하는 시간은 퇴근 후 딸아이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요즘은 자전거에 아기 안장을 달아서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씩씩 달리면 행복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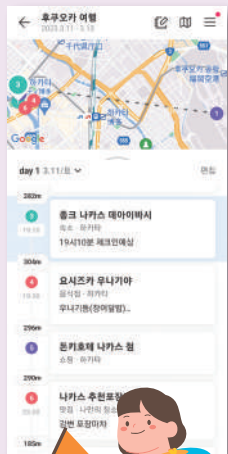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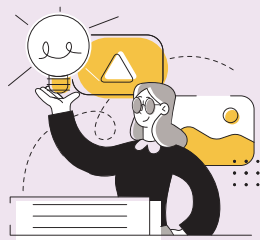
남대문지점 고인실

어반스케치를 목표로 주중에 성인미술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약 2년 정도의 과정을 목표로 천천히 배우고 있고, 주말에는 배운 내용 복습합니다.

혁신금융부 류창국



잘 몰랐던 업무를 마주했을 때 그 업무에 대해서 검색해보고 공부하면서 파고들어요. 그러면 시간도 금방 가서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주안공단희망지점 이영주



저는 해외여행 계획을 세워요. 당장 갈 곳이 아니라도 도시를 정하고 구글맵으로 맛집을 검색하고 저장하고 숙소를 검색해서 관광지 동선을 정해서 스케줄표를 만들면 지루한 일상을 기대와 희망으로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은 여행지의 계획을 세워보세요. 신나는 일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태원지점 홍지혜

지루한 일상을 달래주는 방법

1. 포켓몬 등 띠부띠부씰 모으기
빵 구입을 위해 줄서기, 유치원생들과 중복된 띠부띠부씰 교환하기. 아이들이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얻고 있어요.
2. 아이돌 덕질하기
요즘 오디션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투표도 하고 할 일도 많아 즐겁습니다~!

문래중앙지점 이미혜



IBK MAGAZINE

저는 시간이 날때마다 같은 지점 직원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칼통에 끼는 종이를 직접 만들어서 코팅해서 드리니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괜히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성수희망지점 김동현



업무를 볼때 타자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숫자키를 한번에 쉬지않고 타다닥 쳐서 하나도 안 틀리면 혼자 뿌듯해해요~!

중앙동지점 최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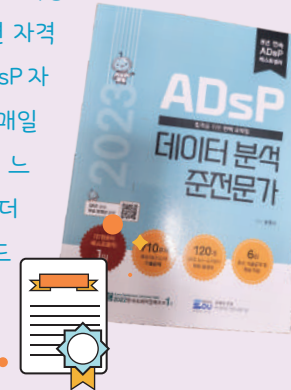


스마트워치로 매일 수면패턴 체크, 만보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냥 걷는 것보다 숫자로 보이니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IBK경제연구소 이인경



저는 퇴근 후 시간에 금융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어요! 이번에 파생상품까지 창구 자격증 취득을 끝냈고 데이터 관련 자격증도 도전해보고 싶어서 ADsP 자격증을 준비 중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니 성취감도 느껴지고 하루가 지루하지 않더라고요. 자격증 취득 추천드립니다!
독산동지점 김도이



모출납 마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마감 후 엔터를 누르는 시간을 제일 기다립니다. 피곤하고 지친 하루를 보냈어도, 엔터를 누르는 순간 시재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 하루를 잘 보낸 기분을 느낍니다.
삼성동지점 강성희



힘든 업무를 마치고 집에 가면 지루함을 날려주는 두 친구가 있어요. 포켓몬에 빠진 7살 아이와 닌텐도로 포켓몬 잡기 놀이를 해주고 나면 자동차를 좋아하는 4살과 신나게 자동차 정리 놀이를 합니다. 포켓몬 도감으로 원만한 친구들은 다 마스터했어요. 들쭉는 수입차 일부를 제외하곤 차 공부만 봐도 이쁨을 외칩니다. 장차 미래의 추억이 될 아이들과 소소한 지루함을 날리는 즐거운 나날들. 참 즐거워보이죠?
상무지점 박준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성수희망지점 오현승 팀장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때가 있다. 어느 날이랑 다를 바 없는 날인데 어쩐지 울음이 터질 것 같을 때,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 “울어도 돼”라고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껏 울고 다시 웃으면서 일어날 수 있게.

글 염세권 사진 김성재

내 이름이 적힌 책 한 권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스튜디오. 커다란 창문을 통해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자신이 쓴 책을 한 손에 들고 모델이 되어 촬영을 하고 있는 한 남자. 바로 이달의 주인공인 오현승 팀장이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는 건 처음이라 역사나 어색하네요.”

오현승 팀장은 머쓱한 듯 웃으면서 포즈를 취했지만, 오래 글을 써왔기 때문일까? 어쩐지 작가의 풍모가 느껴진다. 오현승 팀장은 지난 2015년 에세이 <샬러리맨의 기분전환 1g>이라는 책을 냈다. 그가 그런 책을 낼 수 있었던 건, 그가 글 쓰는 것을 즐기기 때문이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글을 썼어요. 그때는 학습지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글을 쓰곤 했던 것이 글 쓰는 습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글을 써오고 있죠.”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글을 써왔던 그가 책을 내기로 결심한 것은 우연이었다. 어느날 서점에 방문해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 책장을 보고, 문득 자신의 이름이 박혀 있는 책 한 권이 저기 꽂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 후로 행동에 돌입했다.

“출판사에 투고를 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기획안과 초고 정도만 보내도 계약이 가능했다는데, 지금은 원고 전체를 보여주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0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완성해서 여러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처럼 다행히 7곳에서 연락이 와서 출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계약을 했다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풀리진 않았다. 출판사와 의견 충돌도 있었고, 표지 디자인에서도 애를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출간하기로 했던 책이 1년 8개월만에 나올 수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글을 썼어요. 그때는 학습지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글을 쓰곤 했던 것이 글 쓰는 습관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의견 충돌을 겪으면서 결국 지금과 같은 화려한 표지가 탄생하게 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양장본 같은 딱딱한 표지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욕심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당시 신인이었던 제 책을 만드는 데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힘들면 그냥 울자

오현승 팀장이 출간한 <샐러리맨의 기분전환 1g>의 주제는 ‘힘들면 참지 말고 그냥 울자’다. 그는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는 말이 참 고약하다고 표현한다.

“사람은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찢찢 울지 말고 아주 평평 울어야 합니다. 만병의 근원은 대부분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 상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해요. 역으로 말하면, 덜 아프려면 면역을 강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눈물

이죠. 그래서 제 책에도 울어도 될만한 실화들이 담겨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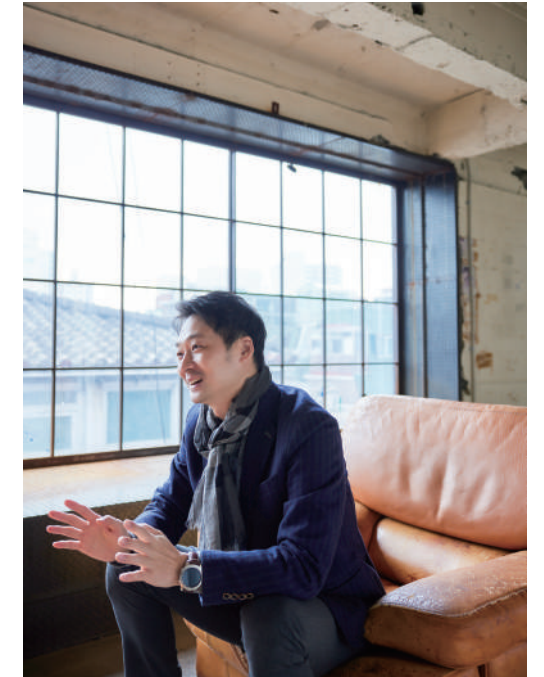
보통 작가들은 글을 쓰는 일에 대해서 ‘창작의 고통’이라 표현하곤 한다. 책의 제목에서처럼 ‘샐러리맨’인 그는 어떻게 꾸준히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글 쓰는 것이 힘들진 않냐는 질문에 오현승 팀장은 그저 ‘재미있다’고 답한다.

‘물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 스스로 만족을 위해 쓰는 글이 아니라, 누군가와 계약을 하고 팔아야 하는 글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문장을 수정하는 일을 거의 토할 때까지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글을 쓸 때 작가마다 고유의 톤이 있는데, 출판사 사장님이란 온도차가 크면 그때부터는 글을 쓰는 것이 즐거움이 아닌 고역이 됩니다. 간혹 완전히 드러내고 다시 써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힘이 드는 일임에도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글 쓰는 것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말한다. 특히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 문장이 나오면 스스로를



힘이 드는 일임에도 계속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글 쓰는 것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멋진 일이라고 말한다.





인스타그램에 '명품생각'과 '마음한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성장 중이라 팔로워는 별로 없지만 꾸준히 쓰고 있죠.

칭찬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 자신의 글을 보고 공감을 했을 때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스튜디오에 앉아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는 그의 눈빛에서는 뜨거운 열정 같은 것이 느껴졌다.

없지만 꾸준히 쓰고 있죠.”
이제 그는 2번째 저서를 준비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하루 한 줄이라도 꾸준히 쓰고 있다고. 그의 2번째 책은 또 어떤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울림을 줄지 궁금해진다.

글쓰기는 숙변 같은 것

글 쓰는 것이 무엇보다 재미있다는 오현승 팀장은 글쓰기에 대한 표현도 재미있게 했다.

“글쓰기란 저에게 화장실 같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의도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말하기가 급똥이라면 글쓰기는 오래 묵힌 숙변 같은 거죠. 쓰고 나면 시원하고 개운합니다.”

재치 있는 표현이지만 글쓰기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그래서일까? 그는 책을 낸 이후에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고 인스타그램과 브런치 같은 SNS 채널을 통해서도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올리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명품생각'과 '마음한끼'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직 성장 중이라 팔로워는 별로



IBK 업글인이 알려주는 꿀팁

①

1일 1작

하루에 더도 말고 덜고 말고 1줄씩만 글을 써보자. 그걸 한 달만 꾸준히 하게 되면 한 편의 글이 완성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책을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길 것이다. 너무 많은 양을 쓰려고 하면 지치기 마련!

②

다양한 채널 활용

요즘에는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는 앱이나 사이트가 무척 많다. 블로그, 인스타그램부터 브런치, 카페 등. 소설을 쓰고 싶다면 웹소설 사이트에도 도전이 가능하다. 신춘문예에 작품을 내야만 책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③

소리 내서 읽기

좋은 문장은 잘 읽히는 문장이다. 자신의 글을 읽고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쓴 글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자. 읽다가 어색한 부분이 느껴지면 문장을 수정하자. 그렇게 수정하다 보면 기존보다 매끄러운 문장을 구사할 수 있다.

우리가 만드는 맛있는 지도

부산·울산편



2월 IBK맛집노트 서울편에 이어 3월에는 IBK 임직원들에게
울산과 부산의 맛집들을 추천받았다. 우리가 직접 만든
부산·울산 맛집 족보! 어떤 맛집들이 있을까?

글 편집실



깔끔한 분위기의 서면 맛집 83해치

두툼하고 깊은 육즙을 자랑하는
국내산 숙성 돼지고기를 합리적
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 생삼겹살 12,000원
-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 11-1
- 051-817-8377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기쁨1969)

히츠마부시 광안리 맛집 고옥

참숯에 구운 담백하고 맛있는 장어와
소스 가득한 장어덮밥을 맛볼 수 있다.

- 히츠마부시 38,000원
- 부산 수영구 광남로 6
- 0507-1360-1638



해운대 경관 맛집 금오횃집

해운대 바닷가 언덕에 자리 잡아
수려한 경관과 함께 신선한 활어
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다.

- 세꼬시 변동
-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58번길 62
- 0507-1439-0072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Verde)

처음 만나는 아귀 수육 김해식당

각종 아귀요리를 맛볼 수 있
으며 김해식당만의 대표메뉴
아귀 수육을 맛볼 수 있다.

- 생아귀수육 60,000원
- 부산 중구 자갈치로 51-2
- 051-255-8242



닭발과 조개탕 맛집 닭발의지존

매콤한 닭발과 속을 풀어주
는 깊은 조개탕을 함께 맛볼
수 있는 닭발 맛집이다.

- 닭발 15,000원
- 부산 수영구 연수로 374
- 051-865-84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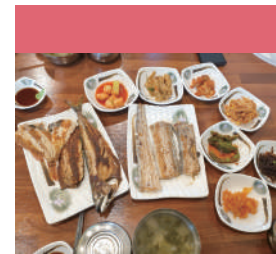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전싸모)

푸짐한 생선구이 맛집 덕분생선구이 동대신점

푸짐하고 다양한 반찬들과 생선구
이를 맛볼 수 있어 가성비 맛집으
로 소문이 자자하다.

- 모듬 생선구이 20,000원
- 부산 서구 보수대로264번길 34
- 051-246-920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헤르메스117)

일본식 장어덮밥 맛집 동경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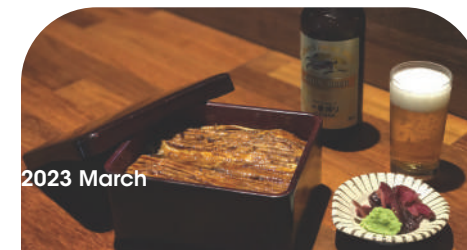
당일 손질된 신선한 민물장어를 일본 전통 방
식과 소스를 통해 새롭게 맛볼 수 있다.

- 우나쥬 43,000원
- 부산 수영구 남천 바다로 34-6
- 0507-1320-1428

차원이 다른 맛의 깊이 돼지생갈비상회 본점

생갈비의 맛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하우로 한
층 더 깊고 풍부한 생갈비의 맛을 보여준다.

- 돼지생갈비 17,000원
- 울산 남구 달삼로 62
- 0507-1400-1251



2023 March



041

홍콩 정통 만두 맛집
딤타오 본점

홍콩 미술생 셰프가 운영해 홍콩의 다양한 만두들과 가지 튀김을 맛볼 수 있다.

- △ 하가우 7,000원
- 📍 부산 해운대구 우동1로 25
- ☎ 0507-1332-3638



한 그릇으로 바로 해장 완료
바로해장

배가 터질 정도로 푸짐해 소 한 마리를 다 먹은 것 같은 해장국으로 숙취를 해결해보자.

- △ 소한마리 해장국 11,000원
- 📍 부산 수영구 광남로94번길 2
- ☎ 051-756-5515



잡내 없이 맛있는 양꼬치
양귀빈식당

잡내를 깔끔하게 잡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양꼬치와 다양한 고기를 맛볼 수 있다.

- △ 양꼬치(10대) 12,000원
- 📍 부산 수영구 민락로6번길 1
- ☎ 051-761-084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복진)

푸짐한 세꼬시 맛집
영변

잘게 썰어 내는 세꼬시가 유명한 맛집으로 다양한 활어를 철에 따라 즐길 수 있다.

- △ 세꼬시 25,000원
- 📍 부산 해운대구 송정해변로 30
- ☎ 051-703-759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김유리)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블루리브3264)

저렴하고 시원한 밀면
부산밀면

가격도 사장님 인심도 후해 저렴하게 시원하고 특색 넘치는 부산밀면을 맛볼 수 있다.

- △ 물밀면 7,000원
- 📍 부산 연제구 연수로87번길 21
- ☎ 051-852-1508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조다나)

상당한 아귀요리 맛집
사계절생아구요리전문점

아귀찜과 수육, 아귀두루치기 등 다양한 아귀요리를 신선하게 맛볼 수 있다.

- △ 아귀찜 40,000원
- 📍 울산 남구 화합로 225
- ☎ 052-269-5115

부산 남버원 샤브샤브
샤브남버원

부드럽고 담백한 고기와 다양한 채소, 면 사리까지 푸짐하게 즐기는 샤브샤브 맛집이다.

- △ 샤브샤브 19,000원
- 📍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29
- ☎ 0507-1331-459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비키5892)

특색 튀는 셰프의 아이디어
삼산가든

이탈리아 음식을 파는 식당으로 셰프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만든 어진 다양한 메뉴들이 있다.

- △ 빠네크림파스타 16,000원
- 📍 울산 남구 삼산로266번길 4
- ☎ 052-258-7658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바오56)

깔끔하고 부드러운 국밥
쌍둥이돼지국밥 본점

저렴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수육과 잘 어울리는 국밥이 든든한 한 상을 채워준다.

- △ 돼지국밥 9,000원
- 📍 부산 남구 유엔평화로 35-1
- ☎ 051-628-7021



부산돼지국밥의 최고
수변최고돼지국밥 민락본점

신선한 식재료와 조리 노하우로 따뜻하고 맛있는 다양한 국밥들을 맛볼 수 있다.

- △ 고기국밥 9,000원
- 📍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370번길 9-32
- ☎ 051-754-9222



속 풀리는 시원한 대구탕
아저씨대구탕

맑은 대구탕과 칼칼한 청양고추, 푸짐한 대구 살로 온기 가득한 한 끼를 맛볼 수 있다.

- △ 대구탕 13,000원
- 📍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가길 31
- ☎ 051-746-2847



사하구 대표 돼지국밥 맛집
영진돼지국밥 본점

푸짐한 돼지국밥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수육 백반까지 만나볼 수 있다.

- △ 돼지국밥 9,000원
- 📍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157번길 39
- ☎ 0507-1374-382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한복순101)



오랜 전통의 언양불고기 맛집
울산언양불고기

오랜 기간 쌓아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숯에 구운 두툽한 언양불고기를 맛볼 수 있다.

- △ 언양불고기 19,000원
- 📍 울산 남구 월평로 205
- ☎ 052-267-2645

줄 서서 먹는 정통 피자
이재모피자

국내산 임실치즈와 다양한 토핑으로 정통 피자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맛집이다.

- △ 이재모불고기피자 24,000원
- 📍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 31
- ☎ 051-245-1478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숯불애구웠다)

정갈한 오마카세 맛집
울산대옥

당일 선정된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을 오마카세로 만나볼 수 있다.

- △ 디너오마카세 85,000원
- 📍 울산 남구 동질로 3 문수로
- ☎ 052-904-4756

숯불 맛이 강한 장어덮밥
윤우나기

굵고 찢고 굵고를 반복한 동경식 장어 덮밥으로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 △ 우나쥬 38,000원
- 📍 울산 남구 대공원로 231-3
- ☎ 0507-1354-3573



쫄깃한 초필살 껌데기
초필살돼지구이 광안직영점

줄서서 먹을 정도로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껌데기로 부산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

- △ 필살껌데기 8,500원
- 📍 부산 수영구 광남로108번길 9
- ☎ 051-757-5515



방문자 리뷰(@갈릭칼라칸지)

풍부한 육즙을 자랑하는
톤소우

가장 맛있는 온도도와 조리 시간으로 일반 돈가스와는 다른 식감과 풍부한 맛을 보여준다.

- △ 히레카츠 11,500원
- 📍 부산 금정구 금강로 247-10
- ☎ 010-5685-5482





모임하기 좋은 고기 맛집
한우연

다양한 부위의 고기와 특수 부위까지 맛볼 수 있는 고기 전문 식당이다.

- 갈비살 14,000원
- 울산 남구 화합로 186-1
- 052-267-6000

부드러운 고기가 일품
합천일류돼지국밥

부드러운 고기가 많이 들어간 국밥 맛집으로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 고기국밥 8,000원
- 부산 사상구 광장로 34
- 051-317-2478



고소한 재첩 정식 한 차림
할매재첩국부산본점

고소한 맛이 일품인 재첩국과 함께 비빔밥과 각종 반찬으로 각양각색의 맛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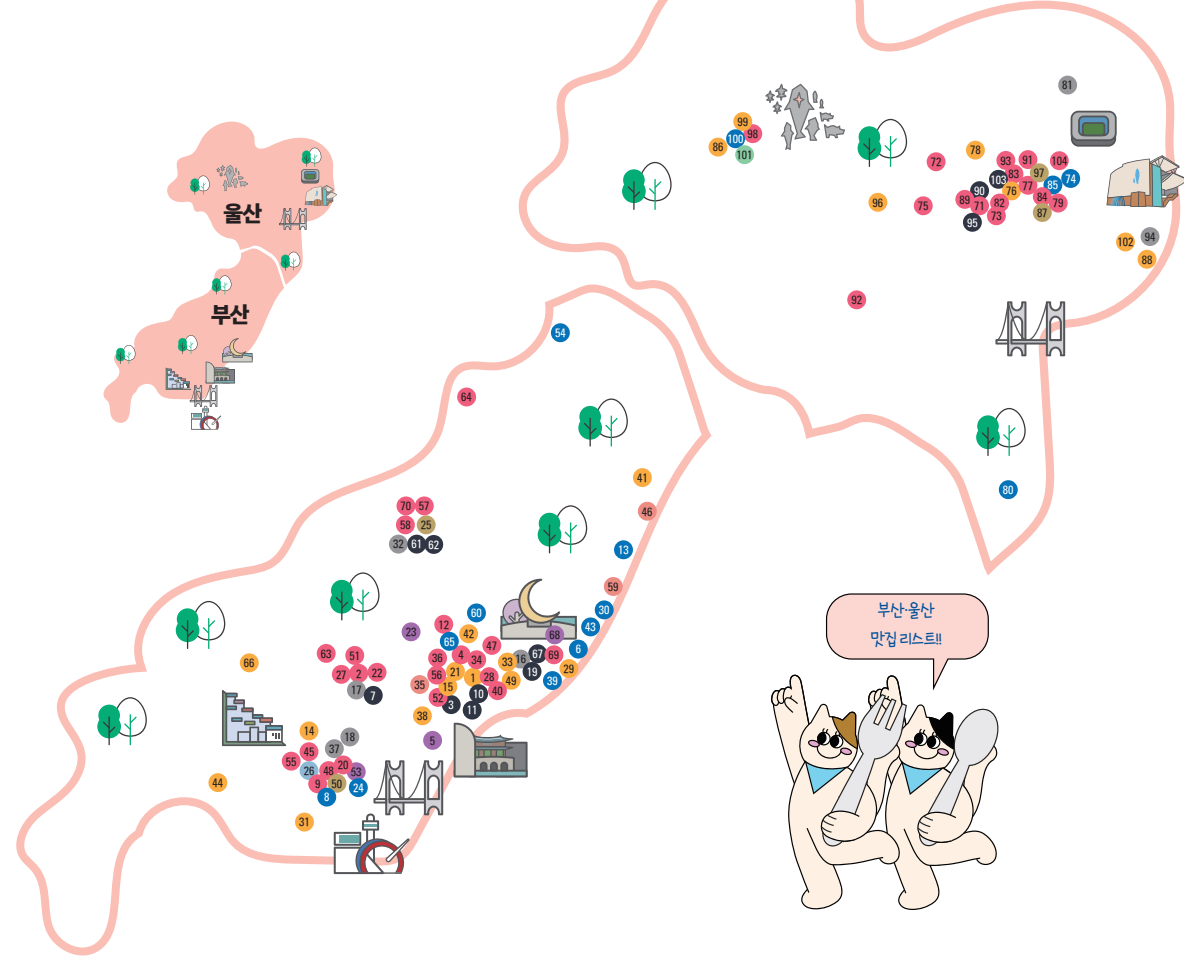
- 재첩정식 10,000원
- 부산 수영구 광남로120번길 8
- 0507-1400-7658



장어덮밥 전문점
해목 해운대점

나고야 명물인 히츠마부시(장어덮밥)와 함께 다양한 해산물 덮밥, 튀김을 즐길 수 있다.

- 히츠마부시 38,000원
-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24번길 8
- 0507-1385-3730



IBK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부산-울산의 맛집 리스트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부산				
1	1989신우원	누니가세	남천바다33번길 104	0507-1364-7384
2	83해치	생삼겹살	사천로 11-1	051-817-8377
3	고육	히츠마부시	광남로 6	0507-1360-1638
4	골목포차 2호점	오식두루지기	광안로7번길 52	051-756-3988
5	공원갈국수	공원갈국수	유엔평화로 110	051-611-3913
6	금오횃집	세고시	청사포로58번길 62	0507-1439-0072
7	김씨내뽕부산	오리자널 아부라소바	황령대로74번길 95	0507-1357-9629
8	김해식당	생이구수육	자갈치로 51-2	051-255-8242
9	낙원동 숯불닭갈비	숯불닭갈비	중구로23번길 46	010-6789-8555
10	난파센	텐동	남천동로108번길 43	0507-1483-0536
11	다이드코로	가라아게세트	남천동로108번길 27	0507-1411-8402
12	달밭의지존	달밭	연수로 374	051-865-8449
13	대성장횃집	전복회	기장을 연화1길 163	051-721-2419
14	덕분생선구이 등대산점	모듬생선구이	보수대로264번길 34	051-246-9200
15	동경반상	우나쥬	남천대로 34-6	0507-1320-1428
16	담타오 본점	하기우	우동로 25	0507-1332-3638
17	라라란 부산본점	허얼빈식 황도캐바로우	등천로 47-1	051-512-8878
18	마가만두	물만두	대영로243번길 56	051-468-4059
19	무니	참치회	해운대해변로265번길 9-10	0507-1380-6584
20	몰래먹이 즉석구이	안근우	중앙대로41번길 11-1	051-245-1195
21	바로해장	소힌이리 해장국	광남로94번길 2	051-756-5515
22	백서	백서육	천포대로210번길 34	0507-1344-0446
23	부산일면	물일면	연수로87번길 21	051-852-1508
24	부산원조곱창이맛집 성일집	곱창이 양생면	대교로 103	0507-1345-5890
25	비비드림	헨디스파스타	장전로12번길 18-6	0507-1409-5043
26	빨간고래 대신본점	즉석떡볶이	구덕로315번길 8	051-255-0399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27	사상부속구이 서면점	목고기	사천로10번길 31-6	010-7721-2171
28	샤브남바반	샤브샤브	민락수변로 29	0507-1331-4599
29	속시원현대구탕	대구탕	달맞이길 229	051-747-1666
30	송원물회집	황어물회	송정중앙로15번길 86	051-703-4420
31	송원식당	육개장	성산길 23	051-245-8190
32	수림식당 본점	탄탄면	금성로 7	0507-1355-1931
33	수변최고돼지국밥 민락본점	고기국밥	광안해변로370번길 9-32	051-754-9222
34	속성도 광안점	속성삼겹살	광안해변로 199	051-754-3392
35	스크리피	해바라기 에그타르트	광남로 43	0507-1389-5438
36	시골통돼지볶음 남천점	통돼지볶음	수영로476번길 15	010-2506-1079
37	신발원	고기만두	대영로243번길 62	0507-1440-0195
38	쌍둥이돼지국밥 본점	돼지국밥	유엔평화로 35-1	051-628-7021
39	아저씨대구탕	대구탕	달맞이길62번길 31	051-746-2847
40	양귀빈식당	양꼬치	민락로6번길 1	051-761-0840
41	어느덧날	버타전복구이	일광을 기장해변로 1286	0507-1358-1711
42	엄왕백 돼지국밥	부산식 돼지국밥	수영로680번길 39	051-757-8092
43	영변회집	세고시	송정해변로 30	051-703-7590
44	영진돼지국밥 본점	돼지국밥	하신번영로157번길 39	0507-1374-3820
45	옛날오막집	곱창	구덕로274번길 14	051-243-6973
46	오프오	아메리카노	기장을 기장해변로 860	051-723-8886
47	왕표고기	속성한우등심	민락로6번길 17	0507-1395-3330
48	원조부산족발	족발	광복로 13-1	0507-1412-5359
49	이레욱	곱창	마린시티3로 51	051-742-6421
50	이재도피자	이재도불고기피자	광복중앙로 31	051-245-1478
51	제주족발 서면번가점	족발지 삼겹살	기아대로784번길 56	0507-1350-5341
52	주옥갈은인생	연한 오뎀볶음	남천바다로 29	051-759-5515
53	중앙모밀	모밀국수	중앙대로49번길 9-1	051-246-8686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54	진송추어탕 부산정관점	진송추어탕	정관을 병산로 20	051-728-8010
55	철이네손찜닭	손찜닭	대영로30번길 6	051-255-9004
56	초필살돼지구이 광안지영점	필살돼지기	광남로108번길 9	051-757-5515
57	찬환향양고기	양고기	부산대학교50번길 39	0507-1372-8958
58	칠성돌곱창	모듬곱창구이	부산대학교49번길 49	051-515-1061
59	캐비네 드 뷔아송	잡탕라야	기장을 기장해변로 268-31	051-604-7282
60	태평양횃집	침동유리끼	재반로103번길 10	0507-1368-6634
61	텐동롯데	에버텐동	부산대학교49번길 38	0507-1312-4842
62	톤수우	히레키츠	금강로 247-10	010-5685-5482
63	팔복통닭 당감점	양념통닭	당감로50번길 20	051-895-5384
64	포구나무집	갈매기 소금구이	조리2길 13-7	051-508-1446
65	할매재첩국부산본점	재첩정식	광남로120번길 8	0507-1400-7658
66	합천일류돼지국밥	고기국밥	광장로 34	051-317-2478
67	해목 해운대점	히츠마부시	구남로24번길 8	0507-1385-3730
68	해운대31cm해물갈국수 본점	31cm해물갈국수	좌동로97번길 10	051-704-7890
69	해운대합소갈비집	삼갈비	중동2로107번길 32-10	051-746-3333
70	호호닭집	후라이드	금강로335번길 68	051-513-1888
울산				
71	거부돌곱창	곱창구이	봉월로8번길 9-1	052-274-8388
72	고여사숯불닭갈비달밭	양념닭갈비	이문로 29	0507-1334-0435
73	꼬띠	꽃등심	중앙로 93	010-9113-7437
74	남해꽃게탕	꽃게탕	상산로317번길 28-1	0507-1349-0576
75	노랑촌	오리로스	청양읍 청향천로 131	052-223-5289
76	달리산장	오늘의메뉴	상산로125번길 5	052-904-0953
77	대기야생탕갈비 달동점	삼계탕	반영로150번길 21	0507-1414-2756
78	대밭골돼지구밥	돼지구밥	태화강국가정원길 229-2	052-223-0003
79	돼지생갈비상회 본점	돼지생갈비	달성로 62	0507-1400-1251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80	떡볶이집	모듬회	서생면 신암해안길 13	052-238-3136
81	라오	탕수육	송정15길 10	052-707-8885
82	모티	오겹살	중앙로 95 1층	010-6765-1677
83	미림술물갈비	돼지갈비	둔질로 161 1층	052-243-9300
84	보쌈집 울산본점	마늘보쌈	왕생로 29	052-222-5382
85	사계절생야구요리전문점	아구찜	화합로 225	052-269-5115
86	산들 한우육회&불고기비빔밥	한우불고기비빔밥세트	연양을 방천7길 6	0507-1394-5803
87	삼산기든	빠네크림파스타	상산로266번길 4	052-258-7658
88	식당153	이판사판	해수육정10길 18	0507-1466-2325
89	오구오구왕소금구이	두툽삼겹살	동산로 62	052-256-5992
90	스시대옥	디너오마카세	물질로 3 문수로	052-904-4756
91	울산연양불고기	연양불고기	월평로 205	052-267-2645
92	홍촌식육식당	삼겹살	홍촌면 곡천동문길 33	052-225-0149
93	원정식육식당	갈비살	월평로 109	052-260-1995
94	위험한뽕뽕	위험한뽕뽕	반덕로 8	052-236-4484
95	윤우나기	우나쥬	대공원로 231-3	0507-1354-3573
96	올리업	올리업정식	청량읍 올리업해길 170-6	010-5176-0052
97	이중생점	치슈키츠 정식	상산로 266번길 5-1	0507-1314-8267
98	진미불고기	연양불고기	연양을 둔문길 47	052-262-5550
99	차미	전복찜조림밥	연양읍 읍성로 133	052-254-4409
100	초화산낙지	산낙지회	상남읍 남양평길 10-8	052-254-4320
101	흠출 울산점	직화소고기팔국수	연양읍 읍성로 41	0507-1396-0601
102	중남식당	김치찌개	대송7길 28	052-234-3775
103	탕돈	등심키츠	왕생로66번길 28	0507-1465-5583
104	한우연	갈비살	화합로 186-1	052-267-6000

피란민 애환 서린 달동네,
핫 플레이스로 뜨다

부산 흰여울길

세월이 알궂다. 피란민 애환이 서린 달동네
흰여울문화마을이 부산 최고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봉래산(394m) 허리에 자리한 마을에는
예쁜 카페와 골목, 영화 촬영지, 그리고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다. 특히 노을이 아름답기에 느끼막이 찾아
노을과 야경을 동시에 감상하면 금상첨화다.

글. 사진 진우석

Heinryoul Si



송도가 부럽지 않은 '이송도'

흰여울길을 걷다 만나는 골목, 카페, 전망대 등 곳곳이 포토존이다. 골목 모퉁이를 돌 때마다 나타나는 포토존에서 젊은 연인들은 사진 찍느라 분주하다. 책방인 손목서가와 마을에 하나뿐인 점방도 인기 장소다. 손목서가 앞마당은 바다 조망이 일품이고, 점방에서 파는 냄비 라면을 바다 배경으로 찍으면 기막힌 뷰 맛집이 완성된다.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진우의 집은 커다란 카페로 바뀌어 사람들로 북적 북적하다. 메인 로드에서 벗어나 가파르고 좁은 골목으로 올라 보는 것도 좋다. 비좁은 계단에 앉으면 골목 끝으로 바다가 보이는 이국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마을이 끝나는 지점에 이송도전망대가 있다. 건너편의 송도가 잘 보이고, 말이 좋으면 거제도도 대마도

마당 같은 바다를 품은 달동네 마을

부산 이야기를 할 때 영도를 빼놓을 수 없다. 부산 남쪽에 자리한 작은 섬으로 중앙에 봉래산이 봉긋 솟았다. 6·25 전쟁을 겪으며 육지에 자리 잡지 못한 서민들이 부리를 내렸는데, 봉래산 남서쪽에 자리한 흰여울마을도 실향민이 정착한 마을이다.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은 집들은 좁지만, 바다를 마당처럼 거느린다. 흰여울마을 주차장에 차를 세우거나 버스정류장에서 내리면 곧바로 마을로 들어선다. 우선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를 둘러보는 게 순서다. 영화 기록관, 영화 포토존, 마을 주민들 사진 전시 등을 볼 수 있다. 이 마을이 뜬 이유 중 하나가 영화 촬영지였다

는 점이다. 대표적인 영화가 <범죄와의 전쟁>과 <변호인>이다. 특히 <변호인>에서는 주인공 진우(임시완 분)의 집이 있었다. 흰여울길은 흰여울문화마을을 둘러보는 길이다. 딱히 코스가 정해진 건 없으므로 안내센터부터 마을 허리쯤에 이어진 메인 도로를 중심으로 둘러보면 된다. 아울러 마을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송도전망대, 흰여울터널, 절영해안산책로를 차례로 걸어보는 걸 추천한다. 안내센터를 나와 바다 조망이 시원한 길을 따라 걷는다. 바다에는 커다란 화물선들이 점점이 떠 있다. 이 너른 바다가 선박들의 묘박지(錨泊地)다. 묘박지는 화물선이 부산항에 정박할 차례를 기다리는 장소다. 화물선들이 여기서 하루 이틀 머물면서 화물을 싣고 떠날 날을 기다린다.

- 01 흰여울문화마을 아래로 파란 페인트가 칠해진 절영해안산책로가 이어진다.
- 02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의 간판
- 03 흰여울문화마을 안내센터 1층 영화기록관은 마을에서 촬영한 영화를 소개한다.
- 04 계단을 푸른 바닷속으로 꾸민 포토존



까지 잘 보인다. '이송도'란 말이 여기 남아 있어 반갑다. '흰여울'이란 이름은 예전에 봉래산 기슭에서 여러 갈래의 물줄기가 바다로 굽이쳐 내리는 빠른 물살의 모습에서 따 왔다. 본래 이름은 이송도 마을이다.

왜 영도에 '이송도'란 이름이 붙었을까. 마을에서 건너편으로 보이는 송도해수욕장이 1913년 국내 최초로 개장했다. 당시 인기는 폭발적이었고, 이를 바라보는 영도 사람들은 우리 영도 해변도 송도 못지않다는 뜻으로 두 번째 송도 즉, '이송도' 라고 이름 지었다. 세월이 알갭다. 당시는 송도가 부러워 붙인 이름이지만, 지금은 이송도가 부산 최고의 명소가 떠올랐으니 말이다.

이송도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흰여울터널을 만난다. 여기가 SNS에서 소개되고 소위 대박이 난 포토존이다. 터널 안에는 불빛으로 알록달록하게 꾸몄지만,

정작 포인트는 터널 입구다. 입구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찍으면 제법 근사한 사진이 나온다. 해가 질 때면 더욱 아름답다.

절영해안산책로의 해녀촌

터널 앞으로 이어진 해안길이 절영해안산책로다. '절영(絶影)'은 예전에 영도를 '절영도'라고 부르던 이름에서 나왔다. 흰여울문화마을의 또 하나의 걸작이 바로 절영해안산책로다. 부산의 갈매길, 해파랑길 2코스가 모두 이 길을 따른다.

길바닥에 푸른 페인트가 칠해진 절영해안산책로는 철썩 물아치는 파도 소리를 친구 삼아 걸을 수 있다. 산책하는 부산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져 걷는 모



05



06

05
흰여울문화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흰여울터널 포토존. 해가 질 때 찍으면 더욱 멋지다.

06
송도로 지는 노을. 묘박지의 화물선들도 잠든다.

습이 보기 좋다. 산책로의 이색적인 명소는 목요일 오후에만 반짝 문 여는 해녀촌이다. 해안에 돛 자리를 몇 개 펴놓고 영업하는데, 해녀들이 직접 따온 싱싱한 돌멍게, 해삼, 성게 등을 내놓는다. 바다를 배경 삼아 해산물 안주로 가볍게 술 한잔하는 맛이 특별하다. 이곳 해녀들은 제주도에서 건너왔다. 부산에서 50년 넘게 살았지만, 아직도 제주 사투리를 쓴다.

시나브로 해가 진다. 묘박지의 화물선들이 바다와 함께 붉게 물들고, 도시는 하나둘 불을 밝힌다. 이제 야경의 시간이다. 남항대교와 그 주변의 고층 아파트, 산비탈에 자리한 달동네 서민들이 밝힌 등불이 하나로 어우러져 근사한 부산만의 독특한 야경을 완성한다.

흰여울길 가이드



흰여울길은 흰여울문화마을을 둘러보는 길이다. 코스는 주차장(버스정류장)~안내센터~<변호인> 카페~이송도전망대~흰여울터널~절영해안산책로~안내센터 순으로 둘러보면 좋다. 걷는 시간은 1시간쯤 걸리지만, 넉넉하게 2~3시간쯤 잡는 게 좋다.



세계유산 마을 잇는 해안 절벽 길

이탈리아 친퀘테레

친퀘테레는 이탈리아 북서부 라스페치아 지방의 수려한 어촌마을들을 아우르는 말이다. 5개의 파스텔톤 마을은 해안 절벽을 따라 아득하게 연결돼 있다. 리비에라 해안의 질푸른 바다, 벼랑에 들어선 알록달록한 가옥, 계단식 포도밭 사이를 걷는 길은 유쾌하고 낭만적이다. 유네스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마을 친퀘테레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 놓고 있다.

글, 사진 서영진

*Italia
Cinque Ter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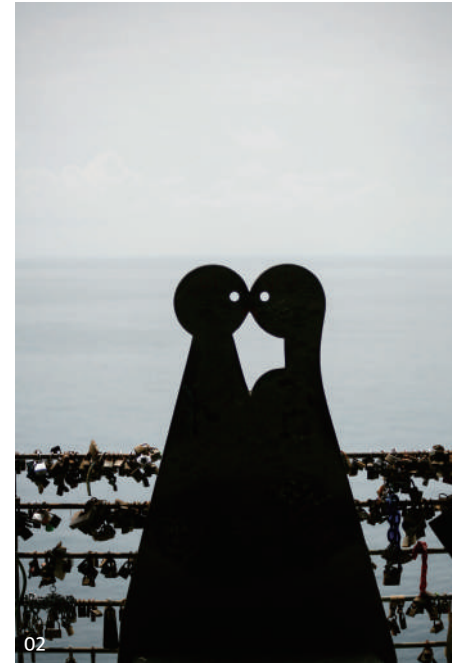


01 해안 절벽 위 마을인 마나롤라는 친퀘테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선사한다.

친퀘테레는 이탈리아어로 ‘5개의 마을’이라는 뜻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생경했던 외딴 마을은 바닷가 절벽 위를 걷는 낯선 체험, 격리된 해변에서의 호젓한 휴식 등이 알려지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탈리아 북부 사람들의 숨은 휴양지였던 친퀘테레는 천년 세월을 간직한 땅이다. 들쭉날쭉한 해안 절벽을 개척해 포도밭, 올리브밭을 일군 전통적 삶의 방식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의 주된 사유였다. 친퀘테레는 밀라노, 피렌체에서 열차를 갈아 타고 서쪽 리구리아주로 두 시간쯤 달리면 도착한다. 리오마조레, 마나롤라, 코닐리아, 베르나차, 몬테로소 등이 친퀘테레가 품은 마을들이다. 벼랑을 등진 동네는 자동차로는 달기 힘들다. 보트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 포구에 내리거나, 두세 칸짜리 간이열차를 이용해 터널과 절벽을 지나야 만날 수 있다. 오뎀한 민박집에 숙소를 정하고 길과 골목, 해변과 와인을 음미하는 게 친퀘테레를 즐기는 방법이다.

절경 트레킹 코스 간직한 ‘5개 마을’

이탈리아 사람들은 트레일을 그들만의 언어로 ‘센티에로’라 부른다. 친퀘테레에는 해안선과 능선을 따라 총 120km, 48개의 코스가 촘촘하게 연결돼 있다. 예전 노새가 다니던 길부터 새롭게 뚫린 절벽길까지 다채롭다. ‘센티에로 아추로’로 불리는 마을을 잇는 코스는 약 10km로 6~7시간에 걷는 게 가능하다. 친퀘테레 트레킹은 유서 깊은 마을을 서성이며 더디게 호흡할 때 진면목이 전해진다. 2~3일 머물며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해변과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느긋한 걷기 여행이 최근 추세다. 다섯 개의 마을 중 연인들에게 사랑 받는 곳은 친퀘테레 최남단의 리오마조레다. 열차에서 내리면 마을 터널길은 벽화로 단장돼 있고 입구에 종합안내소가 있다. 갈라진 벼랑 사이 좁은 비탈길과 리구리아



02 연인의 길 ‘비아델라모르’의 연인 조형물
03 파스텔톤으로 치장된 친퀘테레의 가옥들
04 바다와 기차길이 나란히 들어선 마나롤라역

풍의 가옥은 리오마조레의 대표 풍경이다. 꼬마들이 뛰놀고, 테라스에 흰 빨래가 펄럭이며 어촌마을 리오마조레는 낭만속으로 빠져든다. 이곳에서 하룻밤 보내는 연인들에게는 황홀한 일몰을 안겨준다. 리오마조레에서 시작해 마나롤라를 잇는 트레킹 코스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해안 길인 ‘비아델라모르’는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연인의 길로 유명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입을 맞추는 연인 조형물은 친퀘테레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곳곳에 등장한다. 낙석 사고로 비아델라모르는 현재 보수 중이며 2024년 여름에 다시 문을 연다. ‘베카라 가도’를 이용하면 리오마조레~마나롤라를 산길을 이용해 걸을 수 있다. 언덕을 연결하는 베카라 코스는 1시간 가량 소요되며 파노라마 같은 지중해 풍경을 선사한다.

포도밭 아래, 파스텔톤 풍광의 마나롤라

절벽 위에 파스텔톤 집들이 다닥다닥 붙은 이국적인 장면은 마나롤라에서 가장 선명하다. 엽서에 등장하는 친퀘테레의 가장 포토제닉한 사진도 마나롤라에서 찍은 것들이다. 포도밭으로 둘러싸인 70m 높이 해안 절벽에 마나롤라의 가옥들은 겹겹이 들어서 있다. 주위 산비탈은 계단식 포도밭, 올리브밭으로 채워진 단아한 풍경이다. 마나롤라역에서 포구를 잇는 골목은 양증맞은 레스토랑들이 늘어서 있다. 절벽 마을을 바라보는 뷰포인트에도 분위기 좋은 식당들이 자리했다. 포도밭 아래 테이블에서 친퀘테레 와인을 즐기는 것은 마나



롤라에서 경험하는 최고의 호사다. 미식가들은 친퀘테레의 달콤한 '시아케트라' 와인에 반해 '달의 와인'이라는 찬사를 남기기도 했다. 품격 높은 고립과 조용한 휴식으로 치장된 마나롤라에서의 일과는 이탈리아 명소 도시와는 또 다른 감동으로 찾아든다. 해질 무렵 창 틈으로 불빛이 하나 둘 새어나올 때면 마나롤라의 풍경은 더욱 아득해진다. 여행자들은 절벽길 길목에 서서 마을을 바라보며 한동안 눈을 떼지 못한다. 매년 12월 초에서 1월 말 사이 마나롤라에서는 포도밭 언덕을 1만여 개 전구로 채운 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리는 행사를 갖는다. 마나롤라에서 산비탈의 코닐리아까지는 포도밭, 올리브밭을 지나는 길이다. 5.4km 코스로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볼라스트라의 마돈나 델라 살루트 교회를 지나면 본격적으로 포도밭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광이 펼쳐진다.

비탈 위 코닐리아, 중세풍 포구 베르나차

코닐리아는 친퀘테레의 다른 해변마을과는 모양새가 다르다. 해변이 아닌, 언덕 위 산비탈에 마을이 들어서 있다. 코닐리아는 역에서 '라르다리나'로 불리는 380여 개 계단을 숨가쁘게 걸어 올라야 모습을 드러낸다. 역과 마을 사이에 셔틀 버스도 오간다. 코닐리아는 인적이 뜸해 걷기여행자들의 자취만이 유독 도드라진다. 사랑스러운 골목길에는 아기자기한 상점과 산자락에 기대 사는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 고요하게 담긴다. 14세기 지어진 산 피에트로 성당, 포도밭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산타 마리아 전망대 등이 둘러볼 만하다. 코닐리아에서 베르나차까지 에메랄드빛 해안을 내려서며 걷는 길은 친퀘테레 트레킹의 백미로 꼽힌다. 3.5km 코스에 1시간 30분이 소요된다.

다섯 개의 마을 중 가장 깊은 휴식으로 다가서는 곳은 베르나차다. 교회당과 성곽이 있고, 포구에 모래해변이 있는,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걷기 여행자들 역시 대부분 베르나차에서 오랜 시간 숨을 고른다. 마을 마르코니 광장 옆 좁은 골목길을 걸어 오르면 중세 도리아성과 벨포르테 탑으로 연결된다. 망루에서 바라본 몬테로소까지는 3.6km 해안선 코스가 펼쳐진다. 다양한 식생을 만나는 해안선길(일부 구간 보수)이나 능선 코스로 우회할 수 있다. 친퀘테레 트레일의 종착지인 몬테로소는 가장 크고 번잡한 마을이다. 한동안 낫설었던 자동차와 자전거가 오가는 풍경이 이곳에서는 익숙하다. 역 앞 '페지나' 비치는 라구리아 지역의 인기 높은 해변이다. 포데스타 궁전, 수도원이 들어선 언덕 위 구시가지에서는 매년 5월이면 레몬 축제가 열린다.

05 아담한 포구와 중세풍 성곽이 어우러진 베르나차



05



06 사랑스러운 골목길을 간직한 코닐리아 마을



07 절벽을 따라 마을과 마을을 잇는 친퀘테레 트레일

친퀘테레 트레일 가이드



친퀘테레는 리오마조레에서 몬테로소까지 순방향, 역방향으로 걷는 게 가능하다. 편안한 산책길에서 힘겨운 산비탈 등산로까지 구간별로 난이도가 다양하다. 코닐리아~베르나차~몬테로소 구간은 '친퀘테레 카드'가 있거나, 입장료(7.5유로)를 지불해야 걸을 수 있다.



청춘의 약속, 주왕산

눈 내리는 산에서 푸릇한 봄을 상상하다

입행 10년 차를 맞은 서른의 청춘 넷이 모였다. 서울과 천안, 아산 그리고 대구에서 먼 길 달려 청송에 모인 동기들은 주왕산을 함께 오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풋풋했던 10년 전 '그 시절의 이야기, 서른을 맞은 지금의 이야기, 앞으로 만들어 갈 우리의 이야기. 겨울의 뒤를 잇는 봄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로 반짝이며 이어질 길을 찾아,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글 서승범 사진 영상 이대원 영상편집 윤승현

※ IBK산은 등산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1

“어서와 주왕산은 처음이지? 응 나도 처음이야”

산악기상을 살피니 오전에는 눈이 오다가 오후에는 맑아질 것이라고 했다. 산행하기 나쁜 날씨는 아니다. 온도는 영하 2도에서 영상 5도 사이, 이 정도면 운이 좋은 편이다. 더 중요한 건 바람인데, 오전에는 바람이 거의 없다가 오후에는 초속 5m 정도의 바람, 산행을 일찍 마무리하는 겨울 산행의 특성상 이 정도면 산행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다.

“주왕산은 처음이지?”

“등산이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주왕산은 당연히 처음이지.”

“응, 나도 주왕산은 처음이야. ㅎㅎㅎㅎ”

이번 산행을 도모한 건 대구 범어동 지점의 김하영 대리다. IBK 입행 10년을 기념해 뭔가를 하고 싶었고, 함께 입행한 동기들을 떠올렸다. 교육을 받을 때부터 친했던 동기들을 모았다. ‘야, 우리 10년이다. 기념으로 산에 가자!’

입행 10주년을 기념해
4명의 동기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야, 우리 10년이다.
산에 가자!



02

동여의도 지점의 권현환 대리와 천안 생기원 출장소의 임한별 대리 그리고 아산탕정 호서대출장소 이신우 대리가 함께 했다. 홍일점인 김하영 대리가 장소를 정했다. 대구 근교의 산으로 잡으면 동기들이 모이기로 했다. 기념할 만한 산행인데 멋진 산행을 하고 싶었다. 눈길인 건 국립공원 주왕산. 국립공원이니 풍경과 안전은 기본이고 청송은 자주 찾기 어려운 지역이니 여행 기분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하여 오늘의 산행은 경북 청송 주왕산! 다만 당일의 날씨를 감안해 코스를 바꿨다. 원래는 장군봉으로 오를 계획이었으나 주봉으로 경로를 바꿨다. 주왕산은 신라 말부터 주왕(周王)이 은거하던 산인데, 봉우리 중 하나인 ‘주봉’은 ‘어느 지방이나 산맥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뜻의 ‘주봉(主峯)’과 발음과 한자 표기까지 동일하다.



04

- 01 겨울산행의 시작은 제대로 된 방향 장비를 갖추는 것이다.
- 02 오랜 운동으로 합을 맞춘 만큼 산행 전 스트레칭 또한 늘 하던 것처럼 자연스럽다.
- 03 백련사 오르는 길, 이들은 문득문득 장난을 쳤고,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 04 목적지인 주봉을 가리키는 이정표



03

스틱은 처음이지만 라면은 먹고 싶어~

이른 아침 대전사 입구에서 만나 된장찌개에 밥을 한 그릇씩 비웠다. 따끈한 차도 한 잔씩 하고 보온병에 뜨거운 물도 채웠다. 산꼭대기 컵라면은 빠질 수 없는 산행의 즐거움 아니겠는가. 날이 추우니 간단히 몸을 풀고 대전사 지나 몸이 데워지면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기로 한다. 모두들 스틱은 처음이다. 당연히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든든한 지원군이 될 터이니 각자의 몸에 맞게 세팅하고 간단히 사용법도 익힌 후 곧바로 출발.

대전사에 들어서자마자 전각 뒤로 보이는 주왕산 기암이 우뚝하다. 파이팅을 외치는 주먹처럼 생긴 바위는 기암단애(奇岩斷崖)다. 6,000만 년 전의 화산 활동으로 분출된 화산재(응회암)들이 쌓여 주왕산을 만들었고, 이후 오랜 세월 침식작용으로 깎이고 무너져 남은 게 기암단애다.

고민 많은 20대를 지나 30대 초입에 막 들어선 네 명의 동기는 기암 앞에서 힘차게 “출발~!”을 외치고 산으로 들어선다. 우리는 주봉마루길로 들어 주봉에



오른 뒤 북쪽 능선을 따라 후리메기 삼거리에서 주왕산의 시그니처라 할 협곡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평탄한 길이 끝나고 오르막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그마한 쉼터가 나온다. 몸은 이미 충분히 데워졌다. 두터운 겂옷을 벗고 본격적인 산행을 준비하기에 좋은 위치다.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쉼터에 널찍하게 자리를 잡고 본격적인 스트레칭을 했다. 목과 어깨, 허리와 골반 그리고 대퇴근과 햄스트링, 무릎과 발목까지. 아이제 주봉을 향해 출발.



05



07

주봉에서다

대전사에서 주봉까지는 2.3km 남짓. 깔딱고개라 할 부분은 없어서 초보자들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코스지만, 군데군데 가파르고 고르지 않은 오르막이 있어서 눈이 쌓였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1시간 정도면 오를 수 있는 길, 중간중간 휴식도 취하고, 쉬는 김에 셀피랑 동영상도 찍고, 찍는 김에 장난도 치고 수도도 떨면서 올랐다. 건다 보니 도착한 주봉(726m). 안개가 가득해서 조망을 즐기진 못했지만, 산행의 성취감은 흘린 땀에 비례하는 법. “등산, 생각보다 힘드네. 근데 겨울산이라 그런가? 풍경이 좋으니 고생한 보람이 있네.” “우리가 만난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10년이라고? 시간 진짜 빠르다.” “봄에도 산에 가면 좋겠다. 다음에도 가자~!” “야, 라면 라면!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자.”

- 05 재미있는 연출을 섞어 진행한 동영상 촬영
- 06 백련사 오르는 길, 이들은 문득문득 장난을 쳤고,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 07 주봉에 도착해 감쪽한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었다
- 08 산에 올라 먹는 라면의 맛은 비할 데가 없다



08



09 하산 후 여유로운 표정으로 단체사진 찰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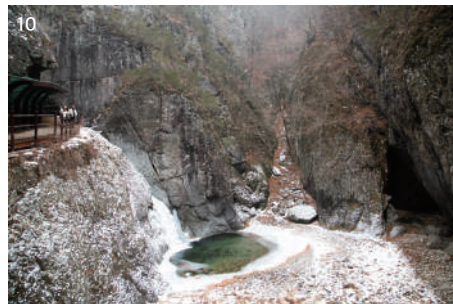
이제 갓 서른 문턱에 이른 네 동기는 어떻게 벌써 입학 10년 차를 맞이했을까. IBK는 2011년 고졸 행원을 뽑은 이후 이들의 긍정적인 성과에 기대어 이듬해에는 대폭 늘어난 특성화고 졸업생들을 채용했다. 오늘의 주인공 넷은 그렇게 IBK인이 되었다. “우리는 1년 먼저 들어온 선배들 덕을 많이 봤죠. 우리가 잘못하면 안 되는 거죠.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심의 눈길이 많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잘 해야 한다’ 스스로 다짐하곤 해요.” 차가운 날씨에 패딩을 벗고 반팔 차림으로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기는 이신우 대리처럼 저들 또한 앞만 보고 달려왔을 것이다.

주왕동천을 걸으며

하산 코스는 주왕산의 백미, 기암괴석 사이로 난 협곡을 따라 난 길이다. 사람들이 주왕산에 중국 주나

라 왕이 도망을 왔다는 이야기를 붙인 건 그만큼 우리나라서 보기 힘든 지형이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기도 한 이 코스에는 협곡을 따라 곳곳이 암벽이고 곳곳이 폭포다. 그 물줄기 이름이 주왕동천인데, 동천(洞天)이란 아름다운 경치가 신선이 사는 곳과 같다는 뜻이다.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바위, 새로운 폭포가 등장하는데 조금 과장하

10 겨울산행의 시작은 제대로 된 방향 장비를 갖추는 것



면 사람 하나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용추협곡(폭 3~4m)은 놓치기 아까운 풍경이고 경험이다. 용추협곡의 통로는 자연의 침식작용으로 생긴 게 아니다. 1970년대 협곡의 바위를 깎아 잔도를 깔았다. 하늘을 나는 재주가 있었다면 모를까, 주왕동천이 말라붙을 정도의 가뭄이 아니었다면 사람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 들어갈 수 없었던 곳에 들어가기 위해 망치와 정을 들고 위험한 협곡을 향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IBK의 고졸 채용은 올해도 변함없다. 그 뜻을 아는 것일까, 그렇게 들어온 이들도, 그들을 맞는 이들도 잘 적응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어쩌면 아직 이르지 못한 곳에 달기 위해 애쓰는 도전을 이어가는 것인지 모른다. 네 젊은 동기들의 거침없는 발걸음처럼.

11 경치 좋은 곳에선 잠시 멈춰서 사진을 찍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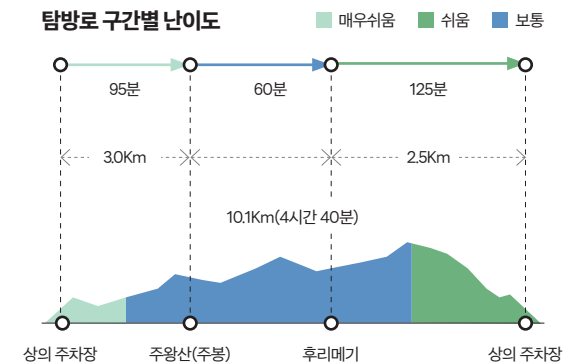


12 다음 산행을 기약하며

주왕산 INFO

- 주소** 경상북도 청송군 주왕산면 상의리 441-1
- 코스** 상의 주차장~주왕산(주봉)~후리메기~상의 주차장(10.1km)
- 입산 시간** 하절기(4월~10월) 오전 4시부터 15시
동절기(11월~3월) 오전 5시부터 14시
- 문의**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054-870-5300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심 없이 돌아가는 물레 속 도자기에 마음을 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도자기는 인간적이다. 모든 면이 반듯하고 각진
기성 제품들과 달리 굴곡이 살아 있고, 간혹 움푹
들어가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도자기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을 투영한다.

표영세권 사진 김경수 영상 윤승현

빙글빙글 돌아가는 물레 도자기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낸 도자기는 결코 빛이 바라는 일이 없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아픔에 단련된 사람의 인격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교육학자 쿠노 피셔가 한 말이다. 그의 말처럼 도자기는 빛이 바래지 않고 영원하다. 하물며 오랜 시간 진흙 속에 파묻혀 있던 도자기도 그 본질적 아름다움을 잃지 않고 박물관에 전시되곤 한다. 사람의 마음도 도자기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까? 가마와 같이 뜨거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그 성품을 잃지 않는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서둘러 퇴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저녁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에 서울의 한 도예공방이 환하게 빛을 비추고 있다. 공방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와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하다. 바로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보기 위해 모인 IBK인들이다.



사람의 마음도 도자기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걸까? 가마와 같이 뜨거운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진흙탕 같은 곳에서도 그 성품을 잃지 않는다.



“참가 신청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결국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도자기를 깨뜨리지 않으면 평생 간직할 수 있어서 무척 기대돼요!”

참가하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경영관리부 서현아 대리는 신이 난 듯 답했다. 이어서 수업을 시작할 시간. 가볍게 인사를 마친 IBK인들은 준비된 앞치마를 착용하고 자리에 앉았다. 처음 보는 물레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둘러보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다. 함께 참가 신청을 한 동기들은 인증샷을 찍기 바쁘다.

“오늘 해볼 수업은 바로 물레 도자기예요. 물레가 없이 손으로 만드는 도자기는 울퉁불퉁하지만 투박한 멋이 있는 반면, 물레로 만드는 도자기는 균형을 잘 맞추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도예품에 뒤지지 않는 예쁜 작품이 나올 거예요.”

오늘 어떤 도자기를 가져가게 될까? IBK인들은 한껏 기대에 부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애 만든 거 봐봐. 너무 예쁘다! 입구를 어떻게 좁혔어?”

이민영 대리가 만들고 있는 찻잔이 작은 백자처럼 예쁜 모양이 되자, 같은 부서 동료들이 묻는다. 조심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인걸까? 이민영 대리는 아주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가며 모양을 만들어갔다. 삼성역지점 장은진 대리, 서울대입구역지점 장한울 대리, 퇴직연금부 조주현 대리는 각각 서로 다른 지점에서 찾아온 동기들이다.

“주현아 대체 뭘 만드는 거야?”

조주현 대리의 찰흙이 자꾸 뭉개지면서 우스꽝스러운 모양이 되자, 동기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놀리고 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지각했지만, 동기들보다 훨씬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게 말하던 조주현 대리는 아무래도 조금만 마음을 감출 수 없었던 것 같다.

어쩐지 도자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반영되는 것 같다. 평소 차분한 사람, 마음이 좀 다급해진 사람. 또 대담한 사람은 큰 그릇을 만들고, 섬세한 사람은 곡선이 유려한 찻잔을 만들기도 했다. 어쩌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를 가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난 예쁘지만 도자기는 글썩?

“자 우선 앞에 놓여 있는 물레의 버튼을 발로 꼭 눌러볼게요.”

IBK인들이 서툰 발동작으로 버튼을 누르자 물레가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와아!”

신기한 듯 탄성을 지르는 IBK인들. 이제 손으로 직접 준비된 찰흙의 모양을 만들어준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각자가 만들고 싶은 작품의 모양을 만들어 간다.

“지금 뭘 만드는 거야?”

“난 꽃병을 만들고 싶었는데..”

꽃병을 만들고 싶었던 손다슬 대리의 찰흙이 엉뚱한 모양으로 만들어지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물레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칫 너무 힘을 주게 되면 찰흙이 밀리면서 모양이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그래서 물레도예를 할 때는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모양을 만들어줘야 한다.



가마에 구운 도자기처럼

IBK인들의 도자기가 하나둘 완성되기 시작했다. 선생님의 도움이 살짝(?) 있었지만 그래도 스스로 만든 작품들이 마음에 드는지 다들 만족스러운 표정이다. 누군가는 찻잔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트레이, 또 누군가는 꽃병을 만들었다.

“만들어 놓고 보니 진짜 그럴싸하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하겠는데?”

IBK인들은 자신이 만든 도자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다시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참여한 이민영 대리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손재주가 좋은 것 같다”며 칭찬을 했고, 남편 황승빈 대리는 “술을 자주 마시진 않지만 아내와 함께 마실 술잔을 만들었어요”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아직은 찰흙 색깔의 투박한 모습이지만, 가마에 구운 뒤 색을 입히면 두 사람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술잔이 될 것 같았다.

오늘의 수업이 끝났다. 모두가 자신이 만든 작품들을 들고 기념 사진을 촬영했고, 직접 만든 작품들은 가마에 구워진 후 색을 입혀 택배로 수령할 예정이다.



경영관리부 지점 동료들과 각 지점에서 찾아온 세 명의 동기들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함께한 시간이 소중한 만큼, 오늘의 추억은 뜨거운 가마에 구운 도자기처럼 빛을 잃지 않고 오랜 시간 아름답게 추억될 것 같다.



제가 참여 신청을 했는데, 부서 동갑내기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예쁘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경영관리부
서현아 대리

같은 부서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무척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도 수업을 계속 들어볼까 고민되네요!



경영관리부
손다슬 대리

오늘 화병과 액세서리 트레이를 만들었어요. 무척 재미있었고, 함께 참여한 남편이 생각보다 잘 만들어서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볼까 합니다.



경영관리부
이민영 대리

아내 덕분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함께 마시려고 술잔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든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신탁부
황승빈 대리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 조주현 대리가 신청해줘서 참가했습니다. 동기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삼성역지점
장은진 대리

동기들과 이색체험을 해보고 싶었는데 도자기 체험을 하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동기들보다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처럼 잘 안돼서 아쉬웠어요!



퇴직연금부
조주현 대리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해보지 못할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동기들과 또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아 행복하네요.



서울대입구역지점
장한울 대리





취향(香) 저격! 향기로 나를 발견하는 시간

여의도중앙지점

감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향수는 옷이나 화장품처럼 자신을 표현하기에 좋은 아이템이다.

IBK여의도중앙지점 직원들이 향수 만들기 수업을 함께했다.

오직 향기에만 집중한 채, 자신만의 향기를 찾는 이들의 여정은

진지하면서도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글 한을 사진 이대원





향기로 채우는 행복한 금요일 저녁

힘차게 달려온 또 한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저녁, IBK여의도중앙지점 회의실이 시끌벅적해졌다. 오늘은 향수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는 날! 강사가 준비해온 여러 종류의 향료와 준비물들이 테이블에 놓였다. 생경한 풍경에 이정은 팀장을 비롯해 장누리·임송희·김의정·하지수 대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개했다.

“향수 만들기 수업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들과 좋은 추억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신청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향수를 무척 좋아해요. 사람마다 고유한 향이 있으면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또 향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해요. 시

중에 판매하는 제품이 아닌, 직접 조향 후 향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무척 설렘니다.”

장누리 대리의 말에 직원들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풀 냄새나 바다가 연상되는 시원한 향기를 좋아한다는 김의정 대리는 클래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소가 한가득하다.

“나만의 향수를 만든다는 것도 좋지만, 동료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돼 행복해요. 이 시간을 통해 동료들과 더 가까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리잖아요! 맘껏 힐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설 <향수> 속에는 ‘향을 다스릴 줄 안다는 것은 삶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것이다’라는 문장이 나온다. 요즘은 자신의 취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취향

에 어울리는 아이템을 찾아 삶을 향유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향도 그중 하나다.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향기다.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향료를 관능하며 테스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향료 관능’이란 향료 하나하나의 향을 맡고 분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강사가 향료 관능에 대해 설명했다.

“톱노트, 미들노트, 라스트노트로 구분된 향료를 시향지에 묻혀 향을 맡아보고 향에 대한 느낌을 상·중·하로 메모하면서 조향 차트를 작성할 거예요. 정말 꼭 쓰고 싶은 향료는 별도로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향들은 내 취향을 알아본다 생각하고 편안하게 기록하시면 돼요. 선호도를 확인한 후에는 향료를 섞어보면서 완성품을 만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어디서 맡아본 향인데



나만의 향기를 찾기 위해 집중하다

향수의 향은 크게 탑(Top)·미들(Middle)·라스트(Last)노트의 3단계로 구성된다. 노트(Note)란 향이 나오는 속도를 말한다. 노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향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서로 다른 개성을 갖게 된다. 향수의 첫인상인 톱노트의 지속 시간은 2시간 이내로 가볍고 신선한 향이 주를 이룬다. 미들노트는 그 향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진짜 성격이 담긴 결정체다. 2~6시간 지속되며 보통 꽃향, 과일향이 주를 이룬다. 라스트노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향’으로 향수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6시간 이상 향이 지속된다.

직원들은 40여 가지의 향료를 하나씩 맡아보며 차트에 세심하게 선호도를 기록해나갔다. 향료 관능을



하는 이들의 모습이 전문 조향사 못지않게 진지했다.

“툭노트에 있는 베이리프 향 어때요? 저는 이 향이 정말 좋은데요!”

베이리프에 ‘상’을 세 개나 준 김의정 대리의 말에 직원들의 관심이 모두 베이리프로 향했다.

“나도 이 향 좋아요!”, “나도! 나도!” 장누리 대리와의 이정은 팀장이 열렬히 호응했다. 이번에는 임송희 대리가 “베이스 노트에 있는 화이트 머스크 한번 시향해 봐요. 향이 정말 좋아요!”라

며 설레는 표정을 지었다. 임송희 대리는 화이트 머스크에 ‘최상’을 주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다른 직원들은 그다지 선호하는 향이 아니었다. 임송희 대리는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향이 다르다는 게 신기해요. 각자의 취향이 다르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라고 하자 직원들이 “정말 그렇다”며 호응했다.

30분 이상의 향료 관능이 이어졌다. 회의실은 짙은 향기로 가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선호하는 향을 파악하는 시간이 마무리되었다. 이정은 팀장이 선택한



향료는 레몬, 작약, 자스민, 화이트로즈 등 평소 좋아하는 달달한 꽃향이 주를 이뤘다. 비누 향을 좋아하는 하지수 대리는 만다린, 라벤더, 릴리 등 총 아홉 개의 향료를 골랐다. 임송희 대리는 버가못, 프리지아, 엠버 딱 세 개의 향료만을 선택했다. 김의정 대리의 향료 리스트는 시크하고 시원한 느낌의 향들로 채워졌다. 이끼향을 좋아한다는 장누리 대리의 향료 리스트는 무려 열한 개나 됐다. 직원들은 선택한 향료

를 묻힌 시향지를 서너 개씩 모아 맡아보면서 향이 어울리는지를 파악했다. 아무리 좋은 향이라도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내가 찾은 나만의 특별한 향기

향수 만들기의 마지막 순서는 조향이다. 조향이란 특정 향들을 섞어 완벽한 조합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조향은 선호하는 향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향료의 양을 정하면 된다. 조향 과정은 향료 한 방울의 차이로도 향이 바뀔 수 있어서 전자저울과 스포이트를 이용해 정교한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강사는 다섯 사람의 향 선호도를 토대로 배합을 조언했다. 직원들의 얼굴이 자못 진지해졌다.

하지수 대리는 “향수 만드는 작업이 재미있기도 하지만, 까다롭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누 향을 만들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녀의 말에 직원들이 공감을 표



현했다. 이정은 팀장은 “잠시지만 조향사가 된 기분을 누린 것 같아요”라며 클래스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직원들은 꼼꼼한 손길로 조향까지 마무리했다. 이제 배합한 향료에 향수 베이스를 넣고 향수병에 담으면 완성! 향과 어울리는 스티커로 향수병을 꾸며주니 모습이 더욱 그럴싸해졌다. 직원들은 각자가 만든 향수를 살짝 뿌려보면서 향을 음미했고, “향기에 집중하는 동안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다”며 엄지를 세웠다. 다섯 사람이 만든 향수는 2주 정도의 숙성 기간을 거쳐야 한다. 직원들은 각자 만든 향수가 2주 후 어떤 향을 낼지 잔뜩 기대되는 표정이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찾기 위해 오롯이 향기에만 집중했던 시간. 향수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특별한 추억을 만든 이들의 얼굴에는 봄꽃을 닮은 미소가 가득했다.



IBK핸드메이드 참여 후기

동료와 함께했던 시간이라 의미 있었어요. 클래스 내내 정말 많이 웃었어요. 한 주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향수를 뿌리면 특별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2주 후가 정말 기대됩니다!

향료를 관능하고 조향하는 과정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향수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만든 향이니 애정이 많이 갈 것 같아요. 또 동료들의 취향이 서로 매우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손으로 향수를 만드는 시간이 제게는 힐링이 된 것 같아요. 향기에 집중하니 잡념이 사라지더라고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나만의 향수를 만들었다는 것도 의미 있고요. 특별한 날에 아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이정은 팀장

즐거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직원들이라 서로 다른 향기를 만든 것 같아요. 재밌는 건 향수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자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즐겁고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장누리대리

향수를 직접 만들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돼 좋습니다. 동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느꼈다고 할까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종종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설레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승희대리



김의정대리



하지수대리

너의 입행을 축하해!



IBK기업은행 입행 웰컴키트 제작

2023년 신입행원으로 입행한 직원들을 위해 야심차게 입행 선물키트를 준비했다.
입행을 준비한 이들에게 이보다 값진 선물이 또 있을까?
키트에는 어떤 선물들이 있었고, 주고받은 이들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들어보자.

글 편집실 사진 IBK

웰컴키트 만든 이 ①

배영민 차장



1. 입행 웰컴키트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022년 신입공채 실기시험에 참가한 지원자들을 응원하기 위해 홍보부와 협업하여 'IBK 10년 일기'를 제작했습니다. 연수원에서 하루종일 면접을 본 후, 지쳐있던 지원자들에게 'IBK 10년 일기'를 건네었는데요. 당시 일기를 받은 지원자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IBK의 채용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분들에게 IBK의 마음이 담긴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2. 웰컴키트 제작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제작 초기부터 디자인팀과 함께 콘셉트 기획과 품목 구성을 함께했고요, 신입행원이 배치된 영업점에 미리 배송하고 첫 출근날에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제 주된 임무였습니다.

3. 웰컴키트를 제작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신입행원의 세대 취향에 맞는 느낌은 살리되, 실용적인 물품으로 구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IBK만의 문화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고자 노력했습니다.

4. 웰컴키트 제작하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웰컴키트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신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채용 과정에서 IBK만의 따뜻한 응원 문화를 만들고 전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웰컴키트 만든 이 ②

윤자영 대리

환영해요

1. 웰컴키트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기존에 신입행원을 위한 사무용품 세트가 있었는데,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웰컴키트’라는 말처럼 새로운 만남을 환영하는 선물을 IBK만의 메시지를 담아 특별하게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마침 인사부에서도 저희 디자인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두 부서가 의기투합해 진행하게 됐어요.

2. 웰컴키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나요?

데스크매트, 텀블러, 파우치, 노트, 연필, 눈금자, 핸드폰 스트랩, 스티커 등의 8가지 제품과 환영 메시지 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입행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품목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마음가짐을 잊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시간 가까이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데스크매트, 핸드폰 스트랩, 스티커를 선정했어요. 이렇게 품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3. 웰컴키트 제작에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웰컴키트 기획부터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저의 손길이 닿았죠. (웃음) 특히 디자인 콘셉트에 어울리는 색감과 제품 소재를 정하고, 메시지 위주의 디자인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4. 웰컴키트를 제작할 때 어떤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셨나요?

웰컴키트 제작이 처음인 만큼 그 과정이 마냥 수월하지는 않았어요, 물품 수급부터 전달까지... 첫 출근 날, 책상 위에 웰컴키트가 딱 놓여 있는 감동을 주고 싶었습니다. 인사부의 열정과 노력을 더해 신입행원이 배치된 157개 지점에 직접 전화를 드리고 제작 취지를 설명드렸어요. 지점장님이 꼭꼭 눌러쓴 손글씨 이름 상자를 받아야만 비로소 완성! 출근 첫날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고 싶었습니다.

5. 웰컴키트를 제작하신 소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몇 개월간 고민하며 준비했던 웰컴키트가 멋지게 탄생해서 다행이고 부듯합니다. 만들면서 저도 신입 시절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떠올리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다양한 디자인을 통해 IBK이미지를 어디서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행 첫날의 마음을 기억해요

첫 번째 선물은 항상 내 주변에 두고 첫날의 마음가짐을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다. 처음 가져보는 ‘내 자리’를 위한 데스크 매트와 항상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 스트랩, 그리고 다이어리 등 여기저기에 붙일 수 있는 데코 스티커다.



열정과 도전의 순간을 기록해요

두 번째 선물은 앞으로 펼쳐질 열정적인 회사생활을 기록할 수 있는 물건들이다. 빛나는 아이디어나 중요한 메모를 기록할 친환경 스티치노트, 어디서나 나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커피박 연필, 그리고 정확한 기록을 위한 대나무 눈금자까지.



성장의 기쁨을 동료와 함께해요

세 번째 선물은 동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필요한 물건들이다. 업무 미팅을 하거나 식사하러 갈 때 가볍게 들고 나갈 수 있는 기능성 종이 파우치, 그리고 동료들과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질 때 필요한 커피생두갑질 텀블러다.



2023 신입행원 한마디!



잠실엘스 김가은 신입행원

웰컴키트를 받았을 때, 데스크매트나 텀블러 같은 실용적인 물건들로 구성되어 있어 ‘역시 센스 좋은 기업은행!’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멋진 선배님들 밑에서 열심히 배워서 전문성을 갖춘 행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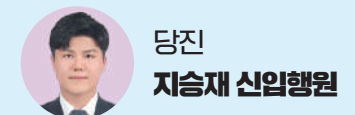
강릉 신동혁 신입행원

입행하기 위해 준비했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게 느껴질 만큼 행복합니다. 지점 발령 후에 책상 위에 생각지도 못한 선물이 놓여 있어 울컥했습니다. 하루 빨리 업무를 익혀 IBK의 조직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광양 이건희 신입행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웰컴키트를 열어보았을 때, 실용과 환경을 모두 챙긴 알찬 키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날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진 지승재 신입행원

입행 첫날 책상 위에 놓인 웰컴키트를 열어보면서, ‘내가 정말 기업은행의 일원이 되었구나!’하고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행의 미래를 이끌어갈 금융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헌종의 '재미' 인장 수집

조선왕실이라고 하면 드라마 속의 궁중암투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조선시대도 일상 속의 재미를 찾아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낸 기록이 있다. 그중 제24대 왕 헌종의 재미는 바로 인장을 모으는 것이었다.

글 엄세권 일러스트 유남영

조선의 24번째 왕인 헌종(1827~1849)은 서화와 전각을 사랑했다. 전각은 나무, 돌, 옥 등에 글자를 새겨 인장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헌종은 1834년 할아버지 순조의 뒤를 이어 8세에 즉위했는데, 조선의 왕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에 즉위한 것이다. 그러나 15년 뒤 23세에 세상을 떠났다. 헌종의 인장에 적힌 '좋은 붓과 베풀는 인생의 한 기쁨이다(筆硯精良人生一樂)'라는 글귀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한 나라의 군주였지만 소박한 즐거움으로 삶을 살았다. 헌종은 자신을 나타내는 자호와 별호를 새긴 인장, 도서나 서화에 찍은 수장인, 감정인, 좋은 글귀를 새긴 명구인 등 각종 인장을 제작하고 모았는데, 그렇게 수집한 인장이 700방이 넘었다.

궁궐 안에서 대부분의 세월을 보냈던 헌종은 서화와 전각을 통해 옛사람을 만나고 먼 곳의 명사와 교류했다. '금석으로 사귀(金石交)', '천하의 선비들과 벗함(友天下士)', '문자로 맺은 인연(文字因緣)'과 같은 문구의 서화 수장인을 보면, 비록 자신은 궁 안에 있으나 멀리 제주의 유배지에 있는 추사, 연경의 웅방강과도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옛사람의 책을 읽다(讀古人書)', '옛사람을 생각하네(我思古人)', '마음으로 사모하고 손으로 따른다(心慕手追)'는 내용의 장서인에서는 책을 읽고 필자와 시대를 넘어선 교감을 바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수집한 인장들에 대한 헌종의 애정을 잘 보여주는 물건이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보소당인존장'이다. 120cm 높이의 목제 서랍장인데, 서랍 안의 사면을 쿠션으로 둘러싸 놓은 정성에서 인장에 대한 애착을 엿볼 수 있다.



2023년 재테크 트렌드



지난해 말 한 증권사는 투자 현주소를 분석하면서 MZ세대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상승장 끝에 투자해 보유 자산들이 손실 구간에 있거나(Misery), 고금리에 소득의 대부분을 자금 비용으로 쓰거나 감당하지 못하는(Zombie) 세대라는 것. 고유가·고금리·고물가의 3高 시대, 2023년 재테크 트렌드를 알아본다.

글 편집실



재테크, 취향을 만나다 미술품 투자

미술품 투자가 성숙해지고 있다. 2021~2022년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투자열풍이 불면서 미술품 투자가 각광을 받았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하는 미술품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었고,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반의 NFT 시장에서도 미술품이 큰 이슈 물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열풍이 점차 가라앉으면서, 미술품의 진정한 가능성을 엿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투자도 지식의 영역이다. 자신이 관심이 있고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패할 일이 없다. ‘덕질테크’가 이슈가 되었던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스포츠 선수카드나 연예인 굿즈, 위스키 등을 수집하는 사람들은 가치가 오를 만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 미술품도 마찬가지다. <그림값의 비밀>을 쓴 한예종 미술원 양정무 교수는 ‘미술은 장기전’이라며, 아트딜러나 컬렉터는 취향·안목·용기를 가지고 미술품의 10~20년 후를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술품 투자 시장이 단기적인 투기가 아닌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의 장기투자 시장으로 성숙해지고 있다.



지혜로운 소비는 재테크가 된다 카드테크

고물가 시대에 공과금도 줄줄이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무작정 소비를 줄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 법, 절약의 고수들은 카드 할인 혜택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연회비가 저렴하고 자신의 생활 양상에 맞춘 포인트가 많은 카드를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전기요금 등을 자동납부했을 때 할인이나 캐시백해주는 카드가 있다. 이러한 관리비 외에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소비하게 되는 항목들도 카드 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대중교통, 보험료, 자녀들 학습지, 배달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주로 즐기는 사람이라면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넷플릭스 정기권을 할인해주는 카드를 신청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카드 할인 혜택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잘 파악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회비에 비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은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가계부 앱을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본에 충실한 지점 운영,
단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다

익산지점



지난해 2개의 영업점이 하나로 통합하면서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영업점을 개선한 곳이 있다. 바로 익산의 유일한 IBK기업은행 영업점인 익산지점이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바쁜 와중에도 영업점 증기대출 목표의 200% 이상 달성해낸 익산지점을 방문했다.

글 편집실 사진 박시홍 영상 김두기 영상편집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Basics & Unity



Achieving 'The Goal'

단합을 바탕으로 이룬 200% 목표 달성

전라북도 익산의 유일한 영업점인 익산지점은 2022년 익산중앙지점과 익산지점이 통폐합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현재의 포레나 상가 2층으로 이전하면서 환경개선을 마쳤다. 실제로 영업점 내부는 세련되고 편안한 분위기의 인테리어로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사람 좋은 얼굴로 인사를 건넨 황시천 지점장은 익산지점의 강점으로 '단합력'을 꼽았다.

“저희 지점은 단합력이 좋습니다. 경영평가 1등을 목표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가장 일고 싶은 점포로 입소문이 퍼진 워너비 점포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직원들의 배려와 화합이죠.”

이러한 단합력을 바탕으로 익산지점은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와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역 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그 결과 2022년 영업점 증기대출 목표의 200% 이상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현재 익산지점의 여신거래 주요 업종은 자동차 부품 제조가 27%, 농기계 등 기계제조가 12%, 건설업이 11%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2023년 1~2월 라인 설비로 인해 셋다운을 하면서 상반기 영업에는 다소 차질이 있지만, 앞으로 공장이 정상화되었을 때는 자동차 부품 제조 분야의 영업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익산지점은 익산시 식품클러스터와 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기업, 지역 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최고의 고객 서비스와 끊임없는 공부

황시천 지점장은 “은행원의 기본은 CS”라고 언급하면서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익산지점은 매주 월요일 CS 방송을 시청한 후 지난주 CS 특이사항을 리뷰하고 직원들이 함께 모여 CS 관련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주고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가고 있는 것. 특히 2022년 지점을 통합하고 영등동에서 부송동으로 위치를 옮겼던 것에 고객이 느꼈을 불편에 공감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불만을 최소화하고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 또 하나 노력하고 있는 것이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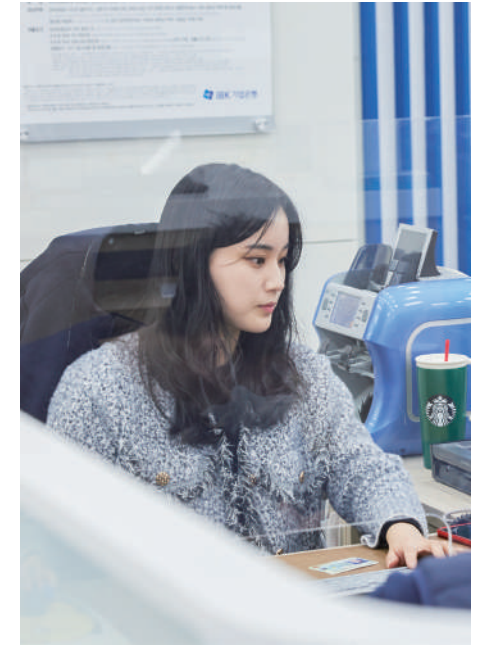
로 매주 수요일 진행하고 있는 팀별 스터디입니다. 최근 금융산업은 전통적인 대면업무에 추가하여 비대면업무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여신 및 수신상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고객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금융상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익산지점 직원들은 신상품, 주력상품, 여신업무 취급세척, 상품 취급세척 등을 자유롭게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며 숙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황시천 지점장은 “이러한 끊임없는 공부까지 지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자산관리, 퇴직연금, 외국환 등의 분야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시너지를 통해 최고의 성과를 이룬다

2023년 익산지점이 주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점포 통합폐합 및 이전에 따른 고객이탈 최소화 및 기존 고객 관리다. 그리고 신규 우량고객 유치를 통해 영업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전 이후 새롭게 고객을 맞이하고 있는 익산지점의 목표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점, 방문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리 상승 등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고객 니즈에 맞는 상담으로 편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책임자가 직원을



Consumer

Service





새로운 환경에서 이뤄낸 200% 성과

육성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점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지식을 후배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나서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황시천 지점장은 고객니즈에 맞는 상품을 안내하려면 직원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직원 간 소통과 배려를 바탕으로 최고의 성과를 이뤄가고 있는 익산지점의 내일을 응원한다.



Mini Interview



익산지점
황시천 지점장

내부통제는 내가 먼저

‘내부통제’란 은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말합니다.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퇴근 시 주변에 실명증표나 고객정보는 없는지 확인하고, 시재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들이죠. 지점장인 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내부통제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점

익산지점은 지난해 익산중앙지점과 통폐합하고, 현 위치로 점포를 이전하면서 기존 거래고객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쾌적한 환경과 분위기에서 고객분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활발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고객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익산지점 다섯글자로 말하는 나만의 ‘재미’

왕시천 지점장



산인문가자

김소윤 대리



늘요주가무

임수진 대리



일파스캐들

채수민 대리



육아왕포기

이은주 부지점장



직원들흥내

박수정 부지점장



주중엔싱글

이선주 차장



건고포견기

정승균 대리



신혼라이프

양승환 대리



출해는뽕쟁

도선미 대리



신나는댄스

홍영선 과장



데이터트루

진인경 과장



여행계획판

이슬 과장



요리왕슬롱

백승이 대리



애들연예인

김성진 경비원



셀프세차곳





기술력 하나만으로 첨단 산업의 신흥강자로 올라서다

제이엘컴(주)
정훈도 대표

흥덕지점 거래 기업

미래를 선도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하면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이 3가지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핵심 정밀화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제이엘컴을 만났다.

글 엄세권 사진 이대원



계란으로 바위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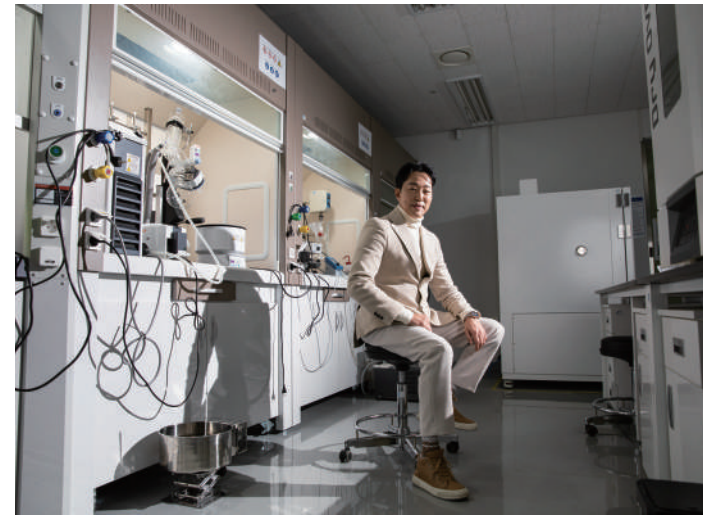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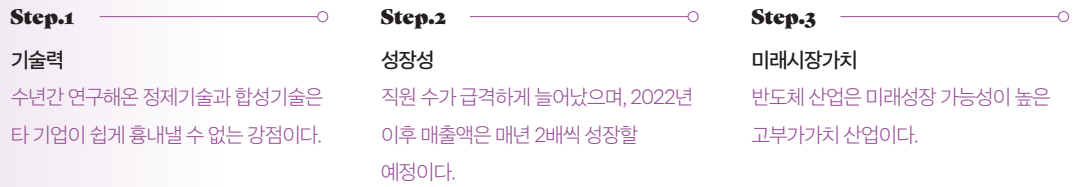
동탄역 인근에 위치한 IT타워에 위치한 제이엘켄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정밀화 소재를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다. 제이엘켄 정훈도 대표는 반도체는 트랜지스터가 10억 개 이상 들어가는 현대 문장의 필수 전자장비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메모리칩 세계 12위를 하고 있어요. 그 공정을 세분화하면 7만 스텝의 정밀화 공정으로 이뤄져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밀 화학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소재의 50% 이상을 일본에서 조달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오래

전부터 국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 다.”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 대학 시절부터 연구개발을 거듭하던 그가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설립한 회사가 바로 제이엘켄이다. 제이엘켄은 현재 반도체 공정 가운데 웨이퍼 기판 위에 나노 사이즈의 초미세 패턴을 그리는 ‘포토리지스트’ 공정에 필요한 핵심 소재들을 공급하고 있다. 그밖에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소재를 리사이클 소재로 개발하기도 했고, 배터리 부문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 첨가제 등의 정밀화학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

제이엘켄(주)의 특징점



남고 그러거든요. 저는 네트워크를 이용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희 기술력을 어필하고, 단가도 기존보다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이때 IBK기업은행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듯한 긴 시간이 지나고, 지난 2019년 일본 아베정권이 대한민국 소부장 수출규제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기회를 얻었다. 급하게 반도체 대기업들이 국산 대체재를 찾기 시작했을 때, 제이엘켄은 이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반도체 없이 살 수 없는 세상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정밀화학 소재들의 경우 납품 기준이 까다롭다. 예를 들어 엄격한 품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인적 인프라와 대학 산학협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이엘켄은 정밀화 제품 생산을 위한 품질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한다.

“정밀 소재의 경우 메탈 불순물 함량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는 지난 수년 동안의 연구개발을 통해 일본의 소재기업에 뒤지지 않는 정제기술과 합성기술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이 쉽게 흉내 낼 수 없는 저희만의 차별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IT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았을 터. 정훈도 대표는 직원 한 명을 데리고 벤처기업으로 창업을 했다고 말한다.

“처음엔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머릿속에 든 아이디어와 직원 한 명만을 데리고 무턱대고 창업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을 기업들이 평가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회사 제품을 사용해 리스크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저희 제품을 사용하게 될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정훈도 대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자금 확보를 꼽았다. 연구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하고, 설비 투자를 해야 하고, 인력도 늘려야 하는데 자금조달이 쉽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다고.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도 있지만 지원금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설립 후 3년이 지나면 열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살아



죽순이 긴 시간을 인쇄하다가 단 기간에 크게 성장하는 것처럼,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낸 제이엘켄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리튬 배터리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3개 개발하고,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상용 소재에 뒤지지 않는 리사이클 소재도 개발했다. 또 반도체 핵심 정밀화 소재의 경우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품질 승인도 모두 받아놓은 상태라고.

성과 면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매출이 220억 원이고, 2023년 목표는 500억 원, 2024년 목표는 1,000억 원에 달한다. 임직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불과 3년 전 20여 명에 불과했던 임직원이 현재 120명까지 늘어난 상황. 5월에 계획된 반도체 정밀화 소재 공장인 '세종 캠퍼스'가 완공되고 나면 200여 명까지 직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앞으로는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중국에서도 반도체 내재화를 위해 천문학적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자원이 나오지

않는 나라였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자원이 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자원 강국이 될 거예요. 앞으로 4차산업의 흐름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희도 생산 능력을 꾸준히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꿈을 품고 있는 제이엘켄 정훈도 대표는 우리나라가 알짜배기 벤처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수십년 GDP 성장이 멈춘 일본이 아직도 잘 살고 있는 이유는 알짜배기 중소기업들이 많고, 그 기업들이 국가 경제를 단단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도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밀화 소재를 다루는 알짜 중소기업들이 늘어나야 한다고. 그 가운데서 제대로 성장한 알찬 기업이라는 말을 듣는 것이 목표라는 정훈도 대표. 그의 당찬 포부를 들으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꽃길만 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거 대한민국은 자원이 나오지 않는 나라였지만, 앞으로 반도체가 자원이 되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은 자원 강국이 될 거예요. 앞으로 4차산업의 흐름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해나갈 것입니다.

Mini Interview ①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진심을 다해주는 IBK기업은행!



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직원들에게 항상 ‘산에 오르기를 두려워하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불상고산 불현평천(不上高山 不顯平川)’이라는 말처럼 높은 산에 올라야 평야와 하천을 내려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를 땐 힘이 들더라도 함께 최선을 다해 오르고 나면, 대한민국의 알짜배기 중소기업이 되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겠죠.

Q. 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제가 직원 한 명을 데리고 창업을 했을 때 회사가 강남에 있었어요. 근데 반도체 연구소나 공장들은 대부분 경기 이남권에 있어서, 2012년에 용인에 사무실을 얻은 뒤 벤처기업 등록을 하게 됐을 때 IBK기업은행을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고, 실무자들이 정말 열심히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들어 찾아갔습니다. 당시 매출도 얼마 나오지 않을 때였는데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이엘켄(주) 정훈도 대표

Mini Interview ②

기업금융의 허브로서 고객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Q. <with IBK> 독자들을 위해 흥덕지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흥덕지점은 관내 직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1등 지점입니다. 2009년 용인시 흥덕지구에 개점한 이후 용인과 수원을 아우르는 기업금융허브로 성장해 왔으며, 2016년 명품지점으로 선정된 이후 최근 3년간 경영평가에서도 안정적인 성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고객과 직원 모두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점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Q. 함께하는 파트너로서 제이엘켄의 비전을 어떻게 보시나요?

A. 제이엘켄은 흥덕지점과 함께 성장해 온 패밀리 기업입니다. 10년 이상의 안정적인 성과, 2차전지용 소재 관련 양호한 기술력, 당행 모험자본 투자실적, 대표이사의 건전한 경영철학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엄청난 발전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흥덕지점이 제이엘켄과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다.



흥덕지점 김준선 지점장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IBK창공 기업

IBK창공 마포

내일을 위한
고기의 새로운 기준



위미트

대체육에 대한 편견을 깨는 식물성 정육 솔루션을 개발했다. 프라이드, 꺾바로우, 간퐁&마살라 등 다양한 종류의 정육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eatwemeet.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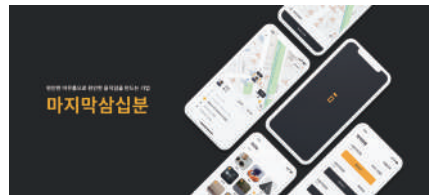
IBK창공 구로

편안한 이동을 위한
편안한 머무름



마지막삼십분

주차 대행을 기반으로 차량 관리 서비스 B2C 플랫폼 '잇차'를 운영한다. 주차 대행 현장을 운영 관리하는 드라이버 '링커'가 차량을 전달받아 주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itcha.co.kr

IBK창공 부산

운동하는
MZ세대를 위한 음료



퍼플고릴라

기존 단백질 음료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한 최고급 단백질 음료 '바디플레이'를 출시했다. 맑은 타입과 깔끔한 맛을 자랑하는 핫한 단백질 음료로 떠오르고 있다.



purplegorilla.co.kr

IBK창공 대전

지속 가능한
식물성 식품



휴닉

지속적으로 대체육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식물성 닭 가슴살 '와이즈미트'를 개발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수제 그래놀라, 식물성 단백질 세트도 함께 선보인다.



huenic.com

IBK창공 마포

채식, 비채식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

WEMEET

위미트는 시장의 기존 대체육이 가지는 낮은 소비자 인식, 인프라 부족, 부정적 경험 등의 문제점을 위미트만의 정육을 통해 해결한다. 대부분의 업체가 기존 육류 제품과 동일한 맛과 식감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첨가제를 사용하고 분쇄육 중심의 확장성을 보이는 데 반해 위미트는 버섯을 주재료로 고기의 식감을 살리는 정육 솔루션을 제시했다. 버섯 전처리 가공 및 배양 발효 기술을 통한 ‘고기다운’ 소재를 연구, 개발하여 고기의 뜯어지는 식감을 살리는 데 성공했다. 위미트의 정육 제품은 B2B 납품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 71곳과 다양한 업체로부터 발주 요청을 받으며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2023년 위미트는 대량 발주를 위한 생산 시스템을 갖추어 급식업체와의 납품 및 아시아, 중동 및 미주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IBK창공 구로

운전보다 어려운 고민이 된
주차장 찾기 해결법

마지막 삼십분

마지막삼십분은 B2C 플랫폼 ‘잇차’를 통해 특정 스팟의 발렛 서비스가 아니라 차주가 목적지를 입력하면 주차 대행 요원인 ‘링커’가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주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차주는 주차 자리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업무를 보고 거점 반경 내에 주차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차량을 호출할 수 있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다. 2019년 6월 서비스를 런칭한 ‘잇차’를 기반으로 기존에 존재하는 발렛 서비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21년 새롭게 출시한 주차 대행 솔루션 ‘링커’는 2022년 서비스 차량 40만 대를 돌파했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100여 곳의 플랫폼에서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감에 따라 2025년에는 경기, 2026년에는 전국에 플랫폼을 제공하고자 한다.



IBK창공 부산

독보적인 클린 타입
단백질 음료

PURPLE ORILLA

퍼플고릴라는 운동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증가로 단백질에 대한 잠재 구매자 역시 증가하는 것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단백질 음료 ‘바디플레이’를 출시했다. 원가 절감보다 고객의 수요를 정확하게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향을 우선으로 단백질 음료를 고안한 퍼플고릴라는 기존 단백질 음료가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독보적인 클린 타입 단백질 음료를 완성했다. 단백질 음료가 가지는 결핵함과 단일화된 맛, 속 불편 현상을 제거하여 깔끔하면서도 맑고 청량한 과일 맛이 나는 단백질 음료를 개발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한 양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BCAA 등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퍼플고릴라는 추후 단백질 섭취 소외계층인 고령자들을 위한 제품을 부산대학교 병원과 함께 개발하여 출시할 예정이다.




IBK창공 대전

자체 개발
습식 대체육 생산기술

HUENIC

휴닉은 기존 대체육이 가지는 단편적인 식감과 낮은 조리 활용성 등 한계점을 돌파하기 위해 고수분 결 형성 습식 대체육 생산기술을 개발했다. 부드러운 결을 형성해 고기와 유사한 식감을 만들고 수분량이 높은 고수분 제형의 대체육으로 멸균, 조리, 굽이기 등 다양한 조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을 이뤄냈다. 고온과 고압에도 형태를 유지하는 휴닉의 습식 대체육은 뛰어난 제품 확장성을 보여준다. 휴닉은 비건이 아닌 일반 건강 식단 소비자를 목표 고객으로 삼아 비건이 아니어도 좋아하는 식품을 만들어 소비자들로부터 우수한 평판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휴닉은 채널별 마케팅 전략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다양한 국내외 대체육 시장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A composite image featuring a starry night sky with the Milky Way galaxy in the upper half and a sunset over a field of corn in the lower half. The sun is a bright, glowing orb on the horizon, casting a warm orange glow. The foreground is filled with tall, green corn stalks. The background shows rolling hills and a dense forest under the twilight sky.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 일상 속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 챗(Chat)GPT의 등장은 사회·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몰고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인공지능의 혁명 챗(Chat)GPT

엔데믹과 미 연준의 사이언트 스텝에 따른 경기 불황의 여파로 명확한 시장 선도 기술이 부재하던 최근 시장 경제 상황에서 챗GPT 발 생성 AI 기술 유행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향후 챗GPT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의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역량 여부에 따라 경제적 성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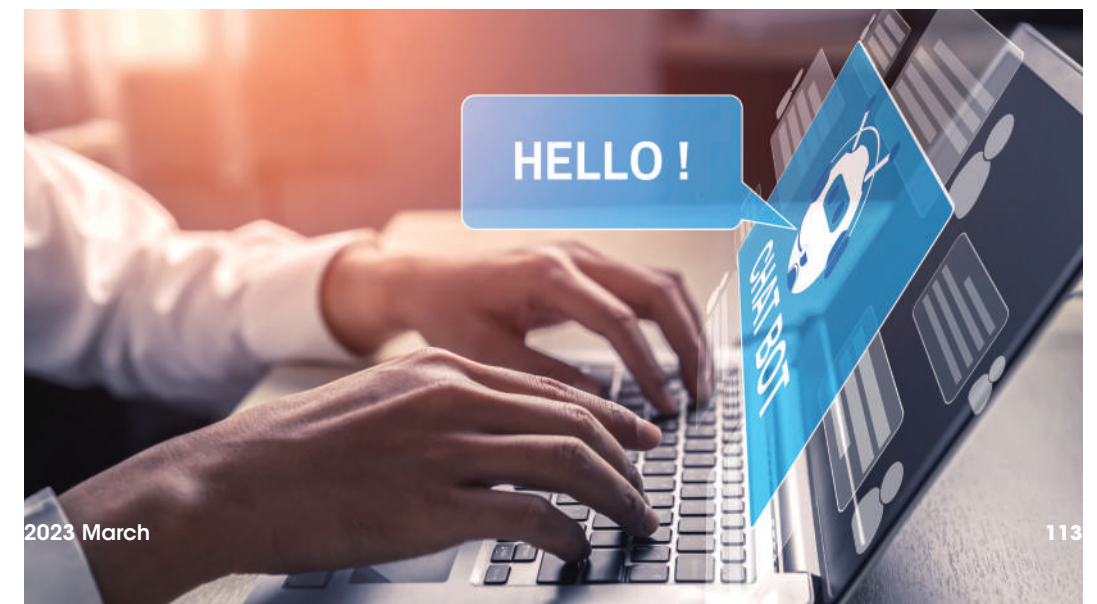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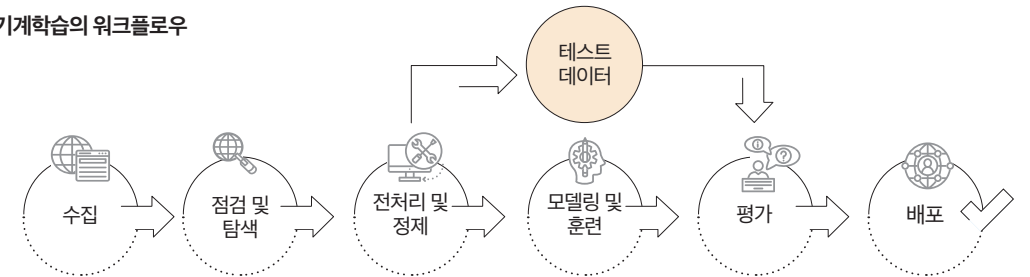
글 김계수 세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

과거 구글이 포털 시장 점유율 1위인 야후를 대체했던 것이나 2008년 애플이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휴대전화 시장의 강자였던 노키아, 모토라 등 휴대전화 시장의 강자들이 몰락한 사례를 볼 때 인공지능 시대로의 전환에 뒤처진 개인이나 조직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이처럼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대전환)에서 더 나아가 개인과 기업은 인공지능 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챗GPT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기반 대화형 인공지능'을 말한다. 챗GP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의 작동원리

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학습용 데이터(A, B)를 받아 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거쳐 패턴을 찾아낸다. 컴퓨터가 스스로 일정한 패턴과 규칙을 찾아내는 학습을 하려면 사람이 인지하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인지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인 벡터(데이터 덩어리)로 변환하는 작업을 특징추출(Feature Extraction)이라고 한다. 이 특징추출로는 분류와 예측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분석자는 분류와 예측모델에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면 예측결과를 얻을 수 있다.

기계학습의 워크플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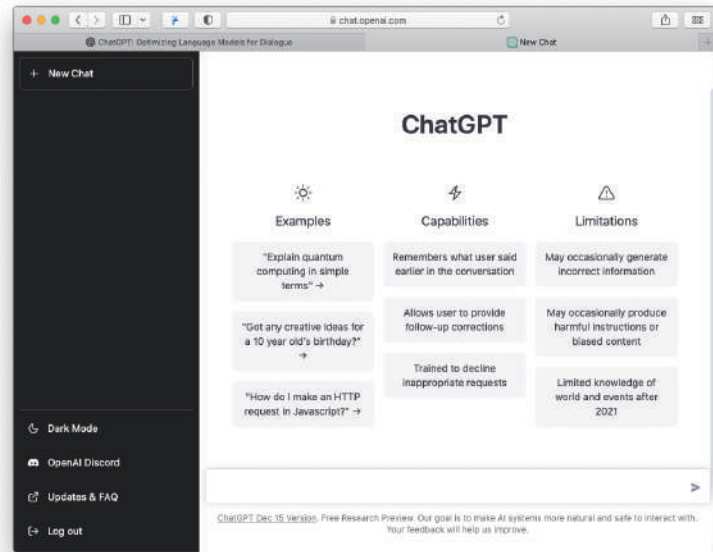


새로운 인공지능의 특징과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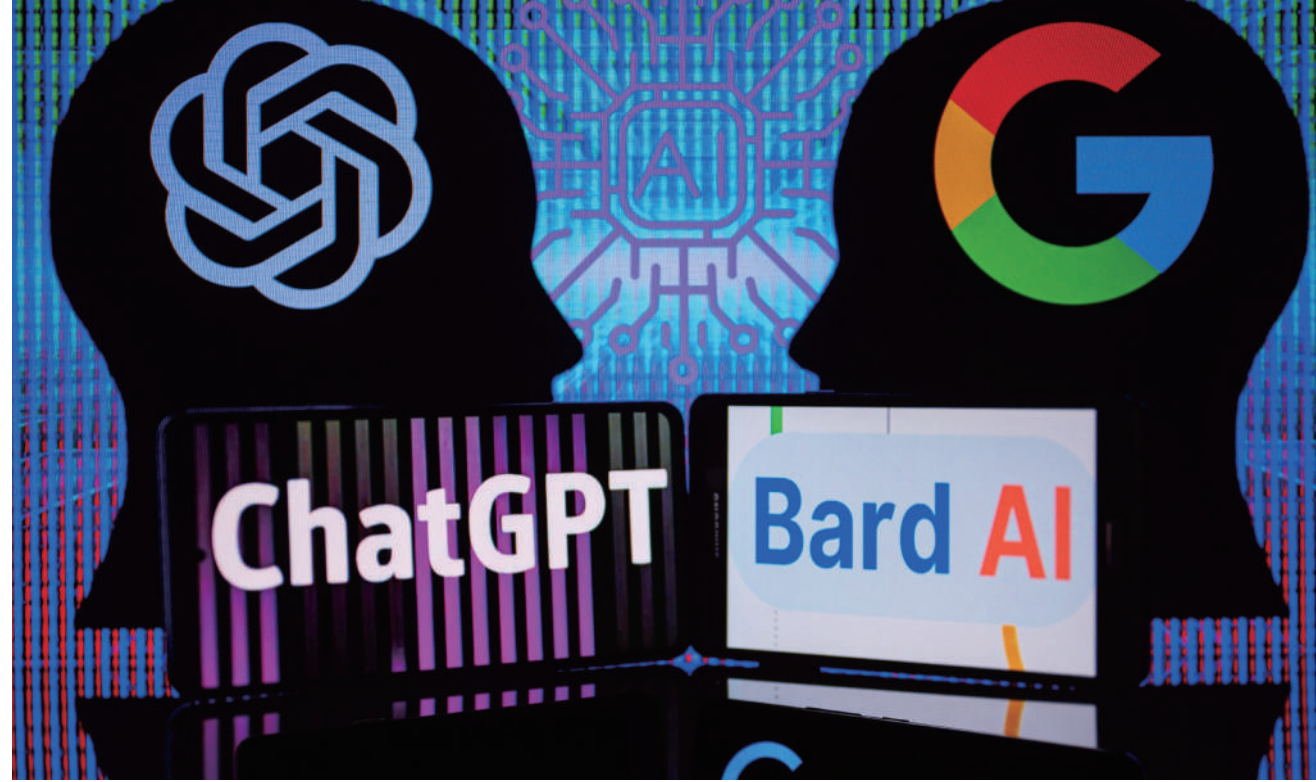
챗GPT는 사용법이 쉽다는 큰 이점을 지녔다. 사용자가 사이트(https://chat.openai.com/)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질문이나 요구사항을 텍스트로 입력하면 곧장 답변이 작성된다. 기능은 시중에 배포된 챗봇과 다를 바 없으나, 차이점은 결과물이다. 사용자는 챗GPT의 입력 창에 “스포츠 게임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2030년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질문이 가능한데 이에 제시되는 작문과 시 등 답변의 창의력, 통찰력과 깊이가 수준급이다. 미국에선 학생들이 과제에 챗GPT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 일부 대학은 집에서 해오는 과제를 금지하거나 챗GPT를 쓰지 못하게

교내 와이파이를 차단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그 뿐 아니라 챗GPT가 의사고시, 변호사 시험 등의 전문직 시험을 통과하여 의료계, 법조계와 코드 개발자 등 각계각층은 챗GPT의 성능에 놀라다는 반응이다. 이에 오픈시는 지난 1월 31일, 챗GPT가 작성한 글인지 진위를 판별하는 AI를 내놓았다. 챗GPT의 악용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이다. 다만 챗GPT에도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현재 챗GPT의 AI 모델은 2021년 이전 정보만 학습했기 때문에 이후 사건과 정보를 물으면 잘못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뿐더러, 답변에 대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ChatGPT 초기화면



챗GPT의 입력 창에 “스포츠 게임에서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 “2030년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 모든 주제를 망라하는 질문이 가능한데 이에 제시되는 작문과 시 등 답변의 창의력, 통찰력과 깊이가 수준급이다.



‘바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선 구글

챗GPT의 출시로 대화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선두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가 있다. MS는 오픈시에 2019년 10억 달러(약 1조2천억 원)를 투자해 경영성과를 거두었고, 최근 세 번째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약 100억 달러(약 12조 원)를 추가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오픈시의 독점적인 클라우드 공급자로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자사의 AI와 검색,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 및 고도화할 계획이다. MS의 공격적인 행보와 챗GPT의 대유행에 따라 구글은 ‘Code-Red’를 발령하며, 자사의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월 6일 구글은 챗GPT와 경쟁하기 위해서 ‘바드(Bard)’를 공개했다. ‘시인’을 뜻하는 바드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언어모델 람다(LaMDA)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가 “일부 테스터에게 새로운 AI 챗봇 바드를 먼저 공개한 후 수주 내로 대중에게 선보이겠다”라고 밝힘에 따라 있으며, 향후 바드가 구글 검색엔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MS는 이에 반격하고자 익일인 2월 7일, 오픈시의 새로운 대형 언어모델 ‘프로메테우스’를 적용한 ‘Bing’과 ‘Edge’를 공개했다. 현재 시범 버전에 대한 베타테스터를 모집 중인데, 챗GPT의 치명적인 단점을 의식한 듯 최대 1시간 이전의 정보를 종합하여 답변을 작성하고 답변의 출처를 명확히 표기한다는 점에서 비약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다시 익일인 2월 8일, 구글은 당초 계획된 AI 이벤트인 ‘Live from Paris’를 개최했는데 모두가 기대했던 바드와 검색엔진에 대한 신규 스펙 공개가 부재했으며, 이벤트 진행 도중 시연용

핸드폰을 잃어버려 시연을 생략하는 등 많은 실망을 자아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의 공식 트위터 계정 내 바드의 답변에 오류가 발견되어 구글의 주가가 이벤트 이후 약 7%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경제 방송사 CNBC에 따르면, 구글 사내에서도 성급한 바드 공개와 실망스러운 AI 이벤트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 표명이 있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화형 인공지능(AI) 개발이 치열해지면서 AI 산업의 가치 사슬인 반도체 분야에 미칠 효과는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신기술이 몰고 온 시장의 변화

AI 챗봇 시장을 두고 MS와 구글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바이두도 챗봇 전쟁에 뛰어들었다. 바이두는 대화형 챗봇 '어니봇(Ernie-Bot)'에 대한 내부 테스트를 3월 초에 마무리한 다음 출시할 계획이다. 국내 검색 서비스의 독보적 1위인 네이버 역시 올 상반기에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적용한 검색 서비스 '서치 GPT'를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경우는 올해 인공지능(AI) 비서 '에이닷(A.)'에 챗GPT와 같은 언어 생성 AI를 적용할 계획으로 이를 발판 삼아 올해를 'AI 컴퍼니' 전환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경영 목표를 발표했다. 최근 챗GPT, 로봇 등 신기술 테마가 증시를 달구는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까지 반등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 정보 기술(IT)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에 뭉치돈이 몰리고 있다. 챗GPT의 등장으로 구글, 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화형 인공지능(AI) 개발이 치열해지면서 AI 산업의 가치 사슬인 반도체 분야에 미칠 효과는 긍정적이라 판단된다. 고성능 AI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제조하는 엔비디아 주가가 2023년 접어들어 급등한 것은 이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현재 고전 중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큰 수혜를 볼 것으로 판단된다.

신기술의 명과 암

앞으로 국내외에선 인공지능이 산출하는 결과물을 사회·경제·법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확장될 전망이다. 현재 인공지능이 생성한 글이나 이미지에 대하여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은 항상 양날의 검처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챗GPT가 방대한 양의 자료에 대한 정리와 요약 리포트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한편, 이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무리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람도 등장할 것이다. 따라서 AI 기술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과 기업의 신뢰할 만한 AI 기술 사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대중의 AI 기술 윤리에 대한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관심, 즉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이 필수적인 소양으로 여겨진다.

최근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전망 새로운 주택 제도의 설계가 필요한 때

최근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과거와는 다른 경제·사회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특이성을 보여주고 있다. 통상적으로 주택시장은 추세적인 관점에서 경기변동과 함께 사이클을 따라 평활하게 움직인다. 그런데 최근 주택시장의 추세는 그 움직임의 속도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소장



급반전된 주택시장의 분위기

2년 전만 해도 집값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사회 전반에 가득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집값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전년도 대비 9.9%를 기록한 바 있다. 청년들은 갭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축 주택을 구매하였고 일반인은 신규 분양 청약으로 뜨거웠다. 그러나 최근 주택시장은 정반대로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2022년 집값은 2003년 이래 최대 하락 폭을 보이면서 -4.7%를 기록하였고 주택거래도 크게 위축되면서 2022년 월평균 거래량은 전국 약 4만 건(서울 5천 건)에 불과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아파트 미분양은 매월 약 5천 가구씩 증가하면서 전국 기준으로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올해 2023년 말엔 10만 가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몇 년 만에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과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것이다.

주택시장의 변화 요인 1.

기준금리의 변화

최근 주택시장의 급등과 급락이 빠른 시기에 나타난 데에는 먼저 거시경제 환경의 빠른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기준금리의 변화가 그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2022년 작년 한 해에만 한국은행은 8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그리고 연이어 2023년 1월 13일 바로 한 차례 더 금리인상을 단행해 현재 기준금리는 3.5%이다. 이러한 금리 인상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매매가격과 전셋값을 동반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금융위기 때의 집값 하락은 소득충격과 공급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비수도권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주택시장의 변화 요인 2.

주택을 활용한 청년들의 갭투자

사회구조의 변화에서도 과거와는 크게 다른 측면이 두드러진다. 가장 큰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이다. 1인 가구 수는 717만 가구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1년 33.4%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 출산율은 0.8명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러한 구조적 사회현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청년들의 구축아파트 구입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상 주택의 주요 매수층은 50대로 이때 자산과 부채가 정점을 이루고 이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30대 청년의 경우 실거주 목적의 주택구매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2018년 이후부터 주택의 주요 매수층 연령대가 30대 이하로 바뀌었다. 연령별 거래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주택매매 거래가 2019년 24.5%에서 2020년 26%로, 그리고 2021년에는 26.9%로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 경우 청년의 주택거래는 2021년에 30.6%에 달했다. 이들의 주택구입 목적은 투자 위주의 갭투자를 통한 자산취득에서 잘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갭투자란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 본인은 임차인으로 임차 거주로 머물고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자산을 일단 취득하여 투자수요를 충족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최근 30대 이하 청년들의 주택매수는 주로 갭투자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들의 서울지역 갭투자 비중의 확대가 뚜렷한 가운데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매수자 중 20대와 30대의 갭투자 비율은 각각 71%, 49%를 차지할 정도였다.



선분양제도와 전세제도

이처럼 주택시장의 추세적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청년의 갭투자를 통한 주택구매가 활발한 데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제도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선분양제도와 전세제도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먼저, 선분양제도 아래에서 청년은 수도권 신축아파트 구매가 사실상 힘들다. 주택청약 가점제도를 통한 당첨은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다자녀일수록 유리하게 되어 있다. 특히 청약가점이 높은 서울 내에서 가점제로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일반인들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선분양이란 주택청약을 통한 분양권을 얻은 소수의 당첨자를 위한 제도로 폼하되기도 한다.

한편 전세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임대차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계 주요 선진국의 임대시장은 주택매매시장보다 그 변동성 측면에서 매우 평활하다. 즉 10년이 지나도 임대가격의 변동성이 미미하다. 예를 들어, 2011~2019년 기간 동안 독일, 일본, 미국의 임대시장 변동성은 연간 각각 0.1%, 0.1% 그리고 0.4%에 불과했다. 반면 이들 국가의 매매가격의 변동성은 1.6%, 1.1%, 1.3%로 가격변동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의 흐름은 이러한 양상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나라 수도권 임대가격 변동성은 3.02%로 매매가격의 변동성이 2.48%보다 오히려 더 크다. 그리고 매매가격의 변동성 자체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큰 편이다. 이는 전세제도가 가지는 전세보증금 성격이 레버리지의 기능을 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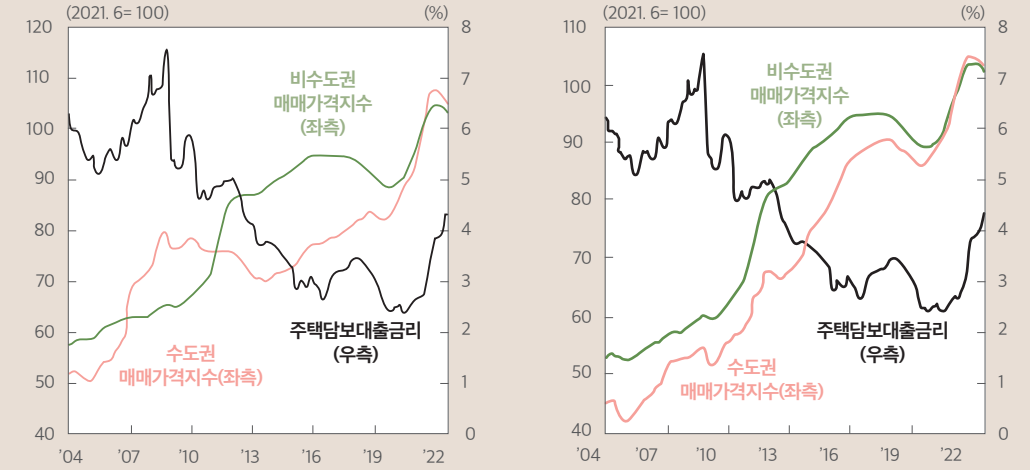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갭투자를 통해 신축아파트 청약보다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구축아

청년들의 서울지역 갭투자 비중의 확대가 뚜렷한 가운데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매수자 중 20대와 30대의 갭투자 비율은 각각 71%, 49%를 차지할 정도였다.

파트를 구매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첫째, 현재의 선분양제도로 청년이 분양에 당첨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둘째, 본인은 임차인으로 거주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활용해서 자산은 일단 취득해보겠으나, 갭투자를 통해 주택을 사들이는 것이 집값 상승기에 주로 발생한다고 하면 문제는 집값 하락기에는 갭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갭투자자는 집값 하락기에 기존 자산을 낮은 가격으로 되팔거나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또 다른 차입을 해야 한다. 이는 특정 연령대의 재무구조 취약으로 전이되면서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사회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제 전체의 부담이 될 수 있다.



(좌) 수도권·비수도권의 매매가격, (우) 수도권·비수도권의 전세가격



자료: 한국부동산원, 2022년 4분기 부동산시장동향(KD) 재인용



지금 주택시장 그리고 전망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최근 강통전세가 늘고, 월세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정부의 각종 대책이 발표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 미분양도 많이 증가하면서 건설업체의 부도 소식과 또는 건설사업중단의 소식도 들리기도 한다.

불과 2년도 채 안 되어 주택시장은 이렇게 급격히 바뀌었고 이에 따라 정부도 부동산규제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 2023년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작년과는 달리 상당히 늦춰지고 금리 인상 폭도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해 주택시장은 여전히 상승으로 전환되기는 힘들지만, 하반기 들어 현재의 위축된 시장 분위기가 차츰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산업 ‘그기’
돈이 됩니까?”

우주산업의 현주소와 비전 전망

정부가 상반기 누리호 3차 발사를 비롯하여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등 우주산업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주항공청 개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 중국 국가항천국(CNSA),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등과 같이 우주개발을 전담할 정부 부처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우주산업에 국가가 총대를 메고 뛰어들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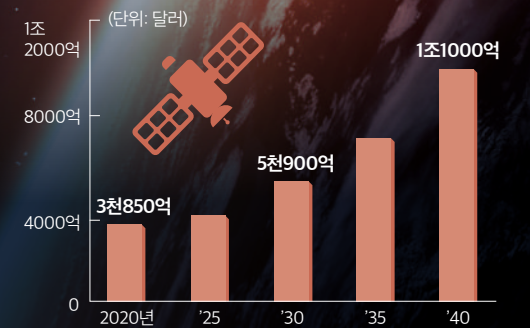
글 최원훈 공학박사



그렇다면 정말 우주산업은 돈이 될까?

세계에서 규모가 큰 투자은행 중의 하나인 모건스탠리는 전 세계 우주산업 시장을 2020년 3,850억 달러 규모에서 2040년에는 1조 1,000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반도체산업과 비교해보면 앞으로 5년 후면 현재의 반도체산업과 시장 규모가 비슷해지고, 2030년이 되면 우주산업이 반도체산업을 앞지르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추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세계 우주산업 시장 전망



자료: 전경련·모건스탠리



인터넷 접속 시장

우주산업에서 가장 돈이 되는 분야는 인터넷 접속 시장이다. 현재 지구인구는 대략 80억 명 정도다. 우리는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지구인구 중에서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인구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인터넷 인프라를 제공하기에는 도무지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정치적, 문화적 이유로 인터넷 접속을 못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인공위성을 통해서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지상의 통신인프라가 모두 파괴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수단은 위성 인터넷이었다.

지금도 50만 원 정도 하는 위성 인터넷 접속 장비를 사서 월 11만 원 정도의 통신료를 내면 지구 어디에서나 위성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위성 인터넷이 속도가 느릴 것 같지만,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속도보다 무려 16배 정도 빠르다. 현재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1400개 정도의 위성이 사용되고 있는데 10년 후에는 이 숫자를 4만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접속 속도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빨라지게 된다. 게다가 위성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면서 위성 인터넷 접속 장비나 통신료 등 비용도 대폭 저렴해져서 현재의 1/10 수준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추세라면 점점 위성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지금처럼 통신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될 것이다.

심우주 자원탐사

다음으로 돈이 되는 분야는 심우주 자원탐사다. 심우주 자원탐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물질을 가져다가 인류의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달에는 70억 인류가 1만 년 동안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헬륨-3'라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달에만 이러한 종류의 여러 물질이 1,500조 달러 정도 매장되어 있으리라 추정하고 있다. 심우주 자원탐사는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10개국 이상(중국은 제외)이 참여하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심우주 자원탐사에는 우주정거장 건설, 우주정거장 사이의 셔틀용 비행체, 행성 탐사 시설, 행성 착륙선 및 유인 우주복 개발 등 수많은 연관 산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자원탐사를 통한 부의 창출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발전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다.

그 밖에도 1만 개 이상의 기후 관측용 인공위성을 띄워 지구 곳곳의 기후변화를 감지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휴대전화로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의 기후정보뿐만 아니라 CO₂ 농도, 유해물질 농도, 햇빛의 세기 및 파장 등 더 세밀한 기후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정보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 농사 및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을 사거나 이사를 할 때도 해당 지역의 기후 조건을 참조할 수 있게 되어 부동산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관련된 여러 정부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우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로 소형인공위성의 개발, 로켓 개발, 심우주 자원탐사 등에 관심이 있다. 정부 및 민간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신생기업들도 속속 우주산업 곳곳에 뛰어들고 있으며, 몇몇 기업은 이미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직접 우주산업에 뛰어드는 기업들도 있지만, 투자를 통해 우주산업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 있다. 미래에셋벤처투자자는 일론머스크가 세운 우주산업 최선두 업체인 Space X의 주요 투자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계 제작, 중공업, 항공산업 등에서 이미 글로벌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우주산업을 먼저 시작한 우방국들과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다. 정부의 강한 리더십과 더불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때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계 제작, 중공업, 항공산업 등에서 이미 글로벌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

개인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근로자), 사업소득(사업자),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고 이자소득(금융기관 예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배당소득(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지급받는 배당금)이 있으며, 이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한다.

글 이진규 삼일인포마인 세무상담위원



Financial income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금융기관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지급액의 14%, 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지급액의 14%, 지방소득세 1.4% 별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금융기관 또는 법인(원천징수의무자)이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차감(원천징수)한 이자소득세 또는 배당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종결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다만, 이처럼 금융소득에 대하여 14%(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서 고액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세금(소득세 최고세율 45%+지방소득세 4.5%)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계산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이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건강보험료를 별도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편, 본인이 가족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나, 연간 금융소득이 1천만 원을 초과(1천만 원 이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소득에 합산함)하는 경우로서 다른 소득(사업, 근로, 연금소득 등)과 합하여 2천만 원을 넘게 되거나 본인이 소유한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경우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자 : 금융소득 전액+재산 5.4억 원 초과
- 금융소득 1천만 원 초과자 : 금융소득 전액,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산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

본인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어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전액을 합산하나, 연금소득 및 근로소득은 50%만 합산한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천만 원을 초과(재산 또는 다른 소득 등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하지 않도록 절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산을 배우자 및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므로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까지, 자녀의 경우 5천만 원(자녀가 미성년인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분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

다음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어 금융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

※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에 문의

- 비과세 종합저축(65세 이상자 등+저축 원금 5천만 원 이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3년 이상, 비과세 한도 400만 원 또는 200만 원)
-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예탁금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출자금
(1인당 1천만 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
- 10년 이상의 저축성보험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

예금을 기간별로 분산 예치

이자소득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이자 수령 시기를 연도별로 분산해 예치하면 특정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상반기는 부동산 시장 바닥을 다지는 시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공급뿐 아니라 세금과 금융까지 망라하여 올해 부동산과 세금, 금융 관련 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재테크 측면에서 달라지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글 김진수 한국경제신문 건설부동산부 차장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이야기가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다.

낮아진 아파트 재건축 문턱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졌다. 정부는 지난 1월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우선 안전진단 평가항목 배점 비중을 조정했다. 구조 안전성은 50%에서 30%로 줄이고 주거환경은 15%에서 30%로 늘린 게 핵심이다. 그동안 평가 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D)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의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도록 점수를 점수 범위를 개선한 것이다. 재건축 판단은 예비 안전진단, 1차 안전진단, 2차 안전진단(적정성 검토)으로 진행해 왔으나 사실상 2차 안전진단을 폐지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적정성 검토를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강남 3구와 용산 빼고 규제지역 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3일 업무보고에서 올해 부동산 관련 주요 업무를 공개했다. 거래 급감과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해 1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른바 강남 3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린 것이다. 비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세제, 청약, 거래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이 한결 자유롭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다주택



자 중과세가 사라지고,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가능해지는 등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청약 해당첨 기한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5~10년의 전매제한 규제가 2~3년의 실거주 의무 등에서 벗어나게 된다.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완화

정부는 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했다. 수도권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였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하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된다. 거주 이전이 제약되고, 수요가 많은 신축 아파트 임대 공급

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고려한 조치다. 공공택지의 경우 실거주 의무기간이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이었는데 이 의무가 없어진 것이다. 주택법 개정 사항이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4%대 특례보증자리론 출시

정부가 지난 1월 말 기준 보증자리론보다 주택가격, 소득 요건 등을 완화한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했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 원 이내·대출한도 3억6천만 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 원 이내·대출한도 5억 원)을 기존 보증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증자리론이다.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때 연 4%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례보증자리론의 최대한도인 5억 원을 일반형 40년 만기(연 4.5% 적용)로 빌리면 월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은 225만 원, 연간으로는 2,700만 원이다. 새로 주택 매입 예정이거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집주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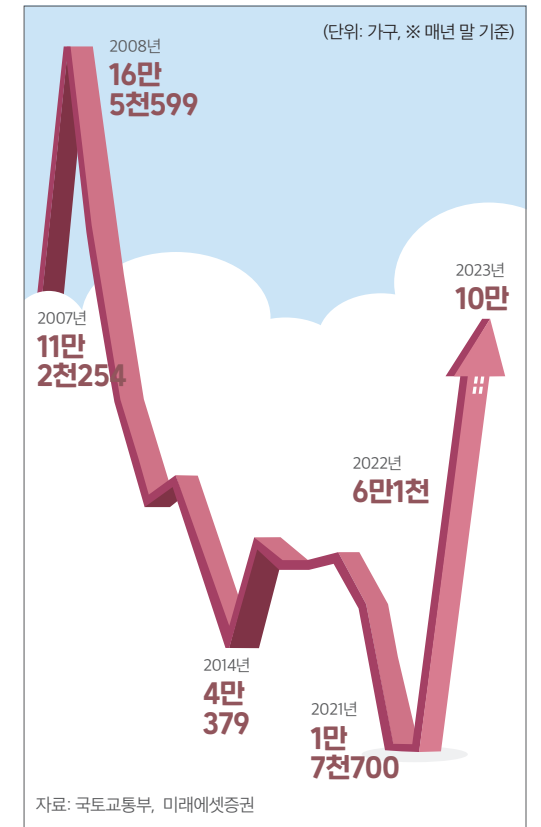
'빌라왕' 전세 사기 바로 잡는다

지난해 '빌라왕' 사태로 불거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100%에 근접한 전세 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활용한 무자본 갭투자(높은 전세가를 활용한 아파트 매입)를 막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전셋값이 집값의 90%를 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된다.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의 미끼 상품으로 변질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 임차인이 있는 집은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일 내놓은 '전세 사기 예방·피해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다. 감정평가사의 시세 부풀리기도 차단한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거나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짬짜미(부당한 공동행위)' 방지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상반기는 바닥 다지는 시기

상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등 대외적인 변수와 미분양 증가, 아파트값 하락, 거래 절벽 등 부동산 시장 내부 변수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시장 전문가들은 상반기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이야기가 있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방향성을 주시하고 있다. 투자 시

10만 가구 눈앞에 둔 전국 미분양 주택



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최저 가격으로 매입할 가능성은 적다. 본인만의 잣대를 가지고 시장을 전망하며 '적정 시점'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산이 깊으면 골도 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골짜기도 바닥은 있기 마련이다.

화사한 꽃은 그만큼 일찍 진다

고흐의 '아들의 꽃 피는 복숭아나무'



아들의 꽃피는 복숭아나무, 빈센트 반 고흐, 1888년,
캔버스에 유채, 73x59.5cm, 크뤼러 밀러 미술관, 오테를로

봄을 그린 그림들, 화사한 햇살과 따스한 대기를 표현한 그림들을 꼽자면 빈센트 반 고흐(Vincent van Gogh, 1853~1890)의 '아들의 꽃 피는 복숭아나무'를 빼놓을 수 없다. 고흐라는 화가가 주는 우울한 인상과는 달리 이 그림은 가벼운 분홍과 파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글 전원경 예술 전문 작가, 세종사이버대 교수

고흐를 매료시킨 아들의 자연환경

봄의 햇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대지에서 힘차게 뻗은 나뭇가지에는 분홍 복숭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꽃들은 나무를 활활 태우는 생명의 불길처럼 역동적이고 활기차다. 나무의 뒤편으로는 푸른 하늘이 있고, 그 하늘에는 부드러운 흰 구름이 소담스레 피어나 있다. 그림에 가득한 계절과 자연의 생명력이 보는 사람의 기분마저 가볍게 해주는 듯하다.

'아들의 꽃 피는 복숭아나무'를 그리던 1888년 3월 무렵에 고흐는 파격적인 환경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1888년 2월 말, 고흐는 2년간 생활하던 파리를 떠나 남프랑스 아를에 도착했다. 꼭 2년 전인 1886년 2월, 그는 화가로 성공하겠다는 꿈을 품고 파리로 왔다. 하지만 파리 생활은 쓰라린 기억만을 남기고 끝났다. 세잔, 에밀 베르나르, 툴루즈-로트렉 같은 동료 화가들은 작품에 대한 약간의 비판에도 결투를 신청할 만큼 극단적인 고흐의 성격에 언더리를 냈다. 그림은 전혀 팔리지 않아서 동생 테오의 도움 없이는 집세를 낼 길도 막연했다. 결국, 동료들의 몰이해와 가난에 지친 고흐는 파리 생 라자르 역에서 남쪽으로 가는 기차에 무작정 올라탔다. 열여섯 시간을 달린 기차는 다음 날 새벽, 아를이라는 작은 마을에 정차했다. 이렇게 해서 고흐는 난생처음으로 지중해를 면한 프로방스 지역에 발을 디뎠다.

고흐가 막 도착했던 1888년 2월 말까지도 아를은 흰 눈에 덮여 있었다. 일주일쯤 지나자 지중해에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삼시간에 아를 전역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동안 런던, 암스테르담, 파리 등 북쪽의 대도시나 가난한 탄광촌에서만 살았던 고흐는 프로방스의 온화한 날씨와 풍요로운 자연환경에 금방 매료되었다. 그 중에서도 고흐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하루가 다르게 사방에서 피어나는 봄꽃들이었다. 흰색과 분홍색의 향연 속에서 고흐는 절망을 딛고 다시 살아가야겠다는 희망을 보았고, 이후 한 달 동안 열네 점의 꽃나무와 과수원 그림을 그렸다. 고흐의 내면에서 화가의 영혼이 드디어 기지개를 켜며 일어서고 있었다.

첫 스승에게 보내는 헌화

이해 4월 21일에 고희는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 '분홍색 복숭아꽃과 연한 노란색이 도는 흰색 배꽃이 특히 마음에 들어...구도 같은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붓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캔버스를 터치하고 있어. 땅과 초록색 이파리 같은 다른 톤들은 일부러 아주 심플하게 처리하려고 해. 그래야 꽃과 하늘의 색감이 더 돋보일 테니까.'

꽃나무를 그리는 데 한참 빠져 있던 고희는 네덜란드에 있던 여동생에게서 사촌 매부인 안톤 모베가 죽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화가였던 모베는 고희에게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을 가르쳐 준 스승이기도 했다. 고희는 방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과수원 그림들을 뒤적여 그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복숭아나무 그림에 '모베를 추억하며 (Souvenir de Mauve)'라고 프랑스로 서명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모베의 유족에게 전해 달라고 테오에게 부탁했다. 고희가 여러 장의 꽃나무 그림 중에 왜 이 복숭아나무를 골랐는지는 어렵듯이 이해될 듯하다. 이 그림은 여러 과수원 그림 중에서 가장 밝고 환하며 봄의 분홍빛과 밝은 푸른빛이 캔버스 가득 넘치고 있는 그림이다. 심지어 나무가 심어진 땅마저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다. 한때 함께 그림을 그리던 스승이자 동료가 세상을 등졌다는 소식을 듣고 고희는 슬픔 속에서도 자신이 건강하게 살아 있다는 사실에 새삼 환희를 느꼈을 것이다.

짧고도 찬란한 인생의 '봄'

2년 후, 귀를 자르는 자해를 하고 우울증이 깊어진 고희에게 테오가 갓 태어난 아들(이 아이의 이름도 빈센트였다)의 방을 장식할 그림을 부탁했다. 이때 고희가 그린 그림이 유명한 '꽃피는 아몬드 나뭇가지'다. 사랑하는 조카를 위한 그림을 그리며 고희는 아들의 과수원과 꽃나무들, 빛나는 봄의 햇살을 떠올렸던 게 분명하다. 아들에게 맞은 1888년의 봄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테오에게 이 그림을 보낸 지 반년도 채 안 되어 고희는 피스톨로 가슴을 쏘아 세상을 떠났다.

화사한 꽃이 더욱 빨리 지는 자연의 법칙처럼, '꽃피는 복숭아나무'가 완성된 지 불과 2년 후에 이 그림 속에 가득히 피어오르던 생명의 불꽃은 덧없이 꺼져버렸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처럼 봄의 꽃들이 곧 떨어진다는 것은 다들 알지만, 우리의 생명의 불꽃이 언제 꺼지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생은 더욱 아름답고, 동시에 더욱 엄숙한 것이다.



꽃피는 아몬드 나뭇가지, 빈센트 반 고희, 1888년,
캔버스에 유채, 73.5x92cm, 반 고희 미술관, 암스테르담



66

58세가 되었다.
앞으로 크면 무엇이 될까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자식들이 ‘또’하고
苦笑(고소, 쓴웃음)한다. 농담 아니다.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1968. 10 Psychology Today 인터뷰 중에서

99

경영학의 창시자인 피터 드러커 교수는 95세로 사망할 때까지 현역으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그가 93세 때 기자로부터 “당신은 평생 7개가 넘는 직업을 가졌고, 교수로만 40년을 일했는데 언제가 인생의 전성기였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드러커 교수는 곰곰이 생각하다 “나의 전성기는 열심히 저술 활동을 하던 60대 후반이었다.”라고 대답했다.

100세 시대에 30~40년간량 남아 있는 인생의 후반전은 새로운 삶을 살기에 충분한 기간이다. 다양한 것을 해보면서 ‘이모작’, ‘삼모작’ 인생을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접어 뒀던 꿈을 다시 펼쳐보는 시기, 잊었던 나를 찾는 시기, 제2의 인생을 알차게 채우며 나를 다시 마주하게 된다.

2023년 <아름다운 은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테마를 선정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봄호의 테마는 부캐, N잡러로 살아가는 중장년의 모습을 통해 인생 2막을 펼쳐가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부캐, 이른바 또 다른 인생의 시작

‘나’라는 퍼스널브랜드는 재창조될 수 있다.



‘부캐’란 본디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말이다. 원래 사용하던 계정이나 캐릭터를 ‘본캐(본래 캐릭터)’라고 한다면, 본캐 외에 새롭게 만든 부가적인 캐릭터를 줄여 ‘부캐’라 한다. 부캐를 만드는 이유는 본캐를 잘못 키웠거나, 새로운 캐릭터로 플레이하고 싶거나, 혹은 본캐로 플레이하기엔 남의 눈이 거슬려서다.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현대인들은 게이머와 같은 이유로 본캐와 부캐를 가지고 있다.

글 정호훈 퍼스널브랜드 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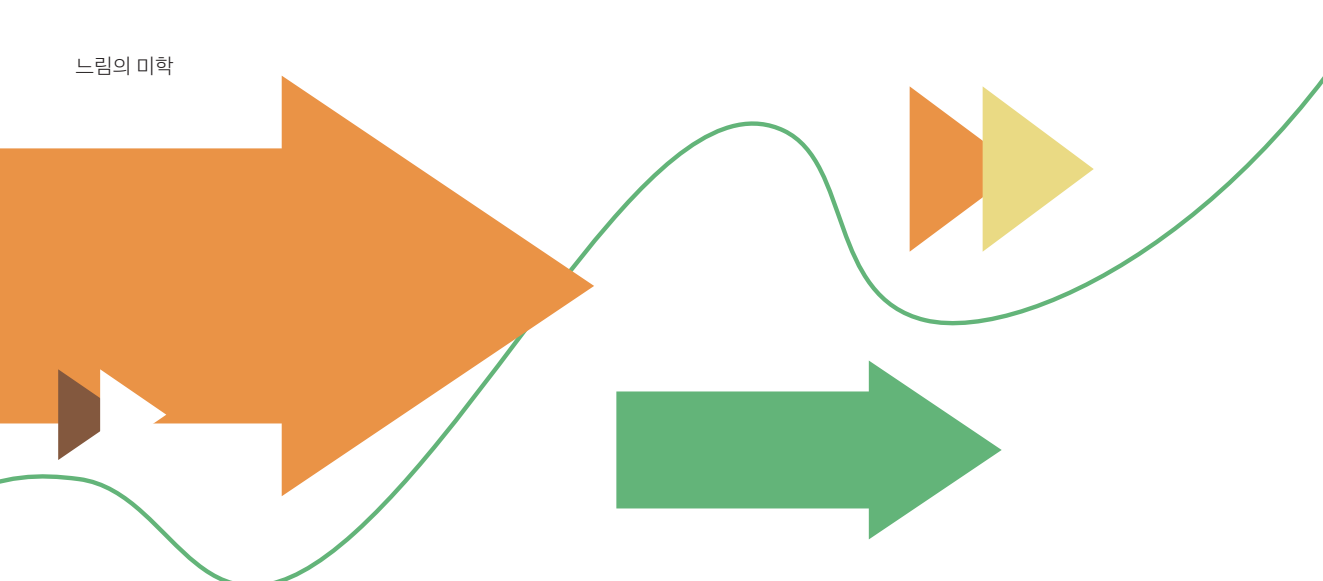
하나도 힘든데, 여러 인생을 살아가는 현대인

멋진 드림 실력을 뽐내는 ‘유고스타’, 트로트 신인가수 ‘유산슬’, 라면 끓이는 요리사 ‘라섹’, 하프 신동 ‘유르페우스’, 라디오 DJ ‘유DJ뽕디스파워’, 치킨을 튀기는 ‘닭터유’, 그리고 여름 댄스 혼성 그룹 ‘썩3’의 멤버 ‘유두래곤’까지. 바로 국민 MC 유재석의 다양한 모습이다. ‘국민MC’가 본캐라면, 그 외의 다양한 모습들은 ‘부캐’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상황에 맞춰 ‘가면(라틴어로 페르소나 persona)’을 바꿔 쓰듯,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한다.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연예인이나 셀럽은 ‘하나만 잘하면 되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자신의 부캐 혹은 멀티 페르소나를 이용해 시청자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 소통은 시청률로 연결되고, 시청률은 곧 ‘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일반인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의 수많은 대화방과 SNS에서, 각각의 대화 상대에 맞는 소통을 위해 자신의 본모습과 다른 멀티 페르소나를 이용하고 있다.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해 자신의 모습을 다양화하며 조현병(정신분열증)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SNS 등장 초기의 경고에도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다양화한다.

부캐나 멀티 페르소나를 통해 역동적이고 정열적으로 살아가며 돈도 버는 모습이 멋지고 부럽게 느껴져 따라 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다양화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틀에 박힌 일상을 벗어나 일탈을 느끼고 싶은 마음과 불확실한 시대의 불안함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돈벌이까지 된다면 금상첨화다. 이러한 여러 이유를 종합해보면,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은 욕망이 부캐를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제품에 쇠퇴기가 있다면, 인생에는 은퇴기가 있다.

제품에는 일정한 수명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의 단계를 거친다. 이러한 제품의 일생을 ‘제품수명주기(PLC: Product Life Cycle)’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외부환경에 대응하여 변화하는 제품의 모습인 제품수명주기는 제품이 출시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판매량(sales) 혹은 시장점유율(market share)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제품수명주기는 시장에서 제품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이정표(guidepost)와 같은 것이다. 도입기에는 많은 투자를 통해 인지도를 형성하고 시장에 침투한다. 성장기에는 도입기의 투자로 인해 형성된 차별화와 인지도가 빛을 발하며 시장점유율이 높아진다. 성숙기에는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하게 된다. 쇠퇴기에는 제품을 계속 끌어갈지, 시장에서 퇴출시킬지를 결정한다. 노화되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제품에 수명이 있듯이, 인간의 수명에도 삶의 영향력에 따른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단편적으로 도식화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흐름의 유사성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는 도입기와 성장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온라인 시대에는 쇠퇴기 또한 도입기 못지않게 중요하다. 롱테일 법칙(the Long Tail, 주목받지 못하는 다수가 핵심적인 소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현상)이 통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중장년층은 성숙기를 넘어 쇠퇴기로 가는 모습과 유사하며, 중요성이 커지는 것도 유사하다. 그리하여, 온라인 시대의 롱테일과 같이 소위 100세 인생에서 중장년 은퇴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Brand Revitalization

황금기를 보낼 수도 있다. 이는 제품의 쇠퇴기에 브랜드 활력을 불어넣어 재강화하는 ‘재활성화(revitalization) 전략’이나 소비자의 인식 상에 다르게 자리매김하는 ‘리포지셔닝(repositioning) 전략’을 통해 제품을 다시 살리는 것과 같다.

브랜드 ‘다시 살리기’처럼, 인생도 다시!

지금 유행하는 부캐와 멀티 페르소나는 사실 브랜드 재활성화 혹은 리포지셔닝 전략과 다름없다. “나는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미 충분히 노후 준비가 되어 있어”라며 이러한 변화를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재도약이나 또 다른 시작과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부캐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다.

과거에는 브랜드 정체성(identity)을 소비자의 머리와 마음속에 고착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대체로 예측할 수 있는 변화들 속에서 소비자의 요구도 복잡하지 않으니, 브랜드를 각인시키면 자연스럽게 매출로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많이 변한다. 소비자의 요구도 극도로 다양하고 복잡해졌다. 그래서 지금은 브랜드는 유연성(flexibility)이 중요해졌다. 그러다 보니, 퍼스널브랜드도 하나의 고착된 이미지보다 다양한 부캐를 통해 풍부한 이미지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 것이다.

부캐에 대하여 고민할 때, 하버드대 성인발달연구소에서 임상실험을 통해 중년의 삶을 연구해 온 성인발달 연구의 대가인 윌리엄 새들러(William Sadler)의 연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는 남녀 50여 명을 12년간 꾸준히 추적 연구하여 인생을 네 시기로 나누고, 장수 혁명으로 새롭게 생겨나 생애





중간에 가장 긴 기간을 차지하는 40대에서 70대 중후반의 시기를 서드 에이지(third age)로 조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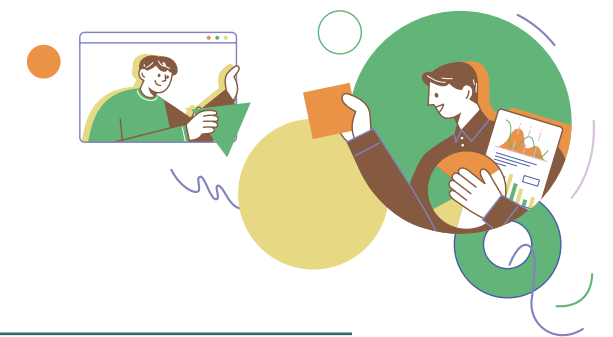
새들러는 마흔 이후 30년인 서드 에이지가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1차 성장과는 달리, 2차 성장을 통한 자아실현 추구 시기이며, 중년의 정체성 확립,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 자신만의 자유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조화롭게 함으로써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장년 은퇴기를 시장에서의 퇴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재정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콘텐츠와 디지털 장비(주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등)로 일이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가 되길 추천한다. 이는 다양한 관계와 소통 속에서 자존감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다. 또한, “비교를 멈출 때 개성이 시작된다(Personality begins where comparison ends).”라고 말한 전설적인 디자이너 카를 라거펠트(Karl Lagerfeld)처럼 남의 시선 상관 말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면 은퇴가 두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TO BE OR NOT TO BE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퍼스널브랜딩 강의나 코칭을 하다 보면 공통적인 질문이 있다. “브랜드는 유명한 제품이나 필요한 거 아닌가?”, “평범한 사람에게 브랜딩이 필요한가?”라는 것이다. 그러면 필자는 으레, “퍼스널브랜딩이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만의 가치를 전달하고 그러한 소통 과정에서 행복과 자존감을 느끼고 싶다면 퍼스널브랜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서드 에이지를 더욱 풍요롭게 살기 위해 퍼스널브랜딩을 시작한다면, 그 첫걸음으로 부캐를 만들어 보는 것은 좋은 도전이다. 다양한 부캐를 만들어 보는 시도는 인생의 정체성과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며, 단순한 취미생활이 돈벌이가 되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며, 가족과 친구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에 만날 수 없던 사람들과도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은퇴기 전·후의 고민은, 햄릿 시대의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To be or not to be).”라는 고민이 아니라, 지금! 100세 시대에는 “살긴 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고민이 더 절실하다. 결국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나의 (사회적)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 MC라 불리는 유재석이 끊임없이 부캐를 만들어내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호훈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했다. 여론 분석 및 마케팅컨설팅 사업을 하며, 경영학과 겸임교수로, 소비자 문화심리학 칼럼니스트로 및 채용 전문 면접관으로 활동 중이다. 시니어 퍼스널 브랜딩 강의와 코칭을 전문으로 하는 ‘프로N잡러’다.

제2의 전성기, 인기 크리에이터로

인생 2막을 열다

유튜브는 이제 젊은 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 12월 27일 발표한 '2022 방송매체 이용형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대 89.2%, 50대는 65.8%, 60대는 46.6%, 70대는 14.4%로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글 편집실





세대를 넘나드는 공감 콘텐츠 증가

중장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OTT는 유튜브가 1위로 66.1%, 2위 넷플릭스 31.5%, 티빙 7.8%, 웨이브 6.1%, 쿠팡플레이 5.2% 순으로 모두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의 콘텐츠 중심 성장 전략이 중장년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 데이터 플랫폼 기관인 오픈서베이 관계자는 “타인과의 소통 채널로 쓰이는 다른 소셜미디어와 달리 유튜브는 콘텐츠 중심이라 SNS 사용에 익숙한 노년층까지 즐겨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튜브 관계자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진 점이 이들을 유튜브로 이끈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중장년과 노년층의 OTT 콘텐츠 이용 증가와 더불어 자신의 관심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해 직접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은 중장년층도 늘고 있다. 부캐 전성시대의 중심에는 MZ세대가 있지만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열정도 만만치 않다. 자신의 본업과 연계해 유튜버로 소통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부캐, N잡러로서 다양한 삶을 살고 있다. 60대 중반에 시니어 모델로 데뷔한 모델 김칠두 씨와 유튜버로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박막례 할머니’, ‘밀라노나’ 등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맹활약하는 것은 이미 꽤 오래된 현상이다. 그들은 진정성 있는 삶의 태도, 연륜에서 오는 경험과 조언, 재치 있는 입담 등을 선보이며, 중장년층만이 아니라, MZ세대와의 거리도 좁혀 나가고 있다.



수십 년 내공의 할머니들 손맛 콘텐츠

오랫동안 실전에서 차곡차곡 쌓은 찐 실력, 계량 따윈 필요 없는 할머니들의 손맛 콘텐츠가 MZ세대들을 사로잡았다. 할머니 요리 유튜버들의 레시피에는 확실한 주관과 취향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설명이 필요 없는 130만 구독자의 실버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 박 할머니는 과거 식당 운영의 경험을 살려 요리를 선보였다. 요리법에 구애받지 않고 “주랑대로 넣어”, “재료는 다 없어도 돼” 등 스웨그 넘치는 모습으로 MZ세대의 마음을 저격했다.

또 구독자 19.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손맛 할머니’를 운영 중인 78세 이용숙 할머니의 전원생활 ‘쿡방’도 인기다. ‘손맛 할머니’의 영상은 경기도 양평의 자연과 함께하는 슬로우 라이프를 보여주며 텃밭에서 시작되는 것들이 많다. 텃밭에서 오이, 호박, 가지 등을 툯툯 따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집밥 한 상을 금세 완성한다. 할머니의 쿡방은 요리 완성에서 끝나지 않고, 아들과 남편까지 함께 출연해 가족들의 먹방(먹는 방송)으로 이어진다.

60대 유튜버 ‘순자엄마’는 먹방, 몰래카메라 등 콘텐츠를 다루고 있다. 직접 기른 채소를 활용한 호박잎쌈밥, 고추부각, 시래기국 등 시골식 ‘먹방’과 함께 가족들의 반응을 살피는 ‘몰카’ 등 시트콤 같은 상황들을 많이 연출하며, 즐거운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직장인에서 유튜버로 프로들의 콘텐츠

또 직업과 연계해 채널을 운영하면서 인기를 얻은 중장년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유튜브 운영 중단을 밝혔지만 93.2만 구독자의 ‘밀라논나’ 장명숙 할머니다. 그는 70년대 후반 밀라노에서 유학 당시 유명 백화점 패션 담당 바이어, 무대 의상 디자이너, 교수로 활약하며 ‘페라가모’, ‘막스마라’ 등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한국에 안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영상들은 아직도 인기가 많다.

37년간 방송국에서 컴퓨터 그래픽(CG) 디자이너로 생활하다 작년 2월 정년을 마치고, ‘펼치지영’ 채널을 운영하는 조현주 할머니도 있다. 그는 여성 맞춤옷 리뷰, 체형 커버 룩 같은 일상 코디 등 패션 콘텐츠와 ‘3만원 이하 가성비 선물 추천’ ‘전국 식료품 찐템’ 등 MZ들의 관심 있는 아이템들을 다루기도 한다.

또 교과서에서 나오는 ‘황소개구리와 우리말’을 쓴 최재천 교수. 최 교수는 은퇴 후 유튜브 ‘최재천의 아마존’을 운영한 지 2년여 만에 48.8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은 이상한 겁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인기를 얻으면서다. 해당 영상은 현재 조회수 258만 회를 돌파했다. 대법관을 지낸 70대 박일환 변호사도 2018년 12월부터 ‘차산선생법률상식’을 운영 중이다. 30년 이상 판사로 일하며 얻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어려운 법률 상식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현재 구독자는 14.6만 명을 넘어섰다.



있는 모습 그대로 라이프 스토리 콘텐츠

할머니 먹방 콘텐츠나 라이프 생활을 다룬 채널들도 인기가 많다. 80대 김영원 할머니의 ‘영원씨01seeTV’는 구독자 35.6만 명의 인기 먹방 채널이다. 자그마한 체구의 김 할머니는 자극적인 음식이나 빨리 먹는 먹방보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아무지게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치킨, 소고기, 과일 등 익숙한 음식과 젤리, 딸기탕후루, 철판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먹방을 선보인다. 그중 지구젤리 먹방 영상은 조회수 1,227만 회를 기록한 바 있다.

또 전남 귀농 산어촌 서울센터에서 개설한 유튜브 ‘귀농TIME’에서 [농부의 정석] 시리즈를 맡은 50대 김양수 씨는 인기 스타다. 특히 ‘진딧물의 정복자, 숨겨둔 비법 대공개’ 영상은 2월 말, 조회수 99만을 돌파하며 ‘귀농TIME’ 콘텐츠 중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다양한 농부들이 출연해 함께 콘텐츠를 만들며, ‘세상 쉬운 천연 살충제 만들기’, ‘뚝심으로 70대에 토종 다래 명인이 되다’ 등이 인기 영상이다. ‘귀농TIME’은 귀농·귀촌인들은 물론, 도시 농부들의 마음도 사로잡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여유가 없어 학원 한번 못 보낸 아이를 인터넷과 책만으로 우리나라 최고 의대에 합격시킨 아빠 박영호 씨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잘키우자TV’, 싱크대 청소, 냉장고 정리, 간편한 옷 정리 등 일상생활 노하우를 다루는 ‘친절한 경애씨’, 어덜트 등 덕후 마니아층이 많은 피규어 리뷰 유튜브 ‘하비킴’ 등도 인기가 많다. 이렇게 자신만의 색깔을 살린 콘텐츠를 기반으로 중장년, 시니어 유튜버들은 꾸준히 활약하며 또 다른 인생 2막을 이어가고 있다.



건강하게 잘 걷기 위한 무릎 관리

몸과 마음까지 보살피는 무릎의사
TK정형외과 김태균 원장

인류는 걷기 시작하면서 두 손의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무릎은 평생 체중의 부담을 지게 되었다. 김태균 원장은 다년간 환자들의 무릎 건강을 보살피며 '노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 것인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무릎관절 분야 제일선에서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무릎의사 김태균 대표원장을 만났다.

글 추유경 사진 이대원

Q. 무릎의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답게 뼈, 관절의 건강을 살피는 일이 전문 분야입니다. 그중에서도 무릎에 발생한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주로 보살피기 때문에 무릎의사라는 호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Q. 비교적 고령이거나 중장년층 환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폐경기 여성들이 유독 무릎, 손목 등의 관절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A. 폐경이 꼭 관절염과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 50세 근처에 폐경이 올 무렵, 관절에도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폐경

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얼굴 홍조, 정서불안 등의 통증의 민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폐경기 여성에게 관절 통증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Q. 무릎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은 그만큼 관절이 빨리 안 좋아지나요?

A. 무릎관절은 많이 사용한다고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릎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릎에 무리가 오는 활동 및 자세를 반복하면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젊어서 일을 많이 했다고 나중에 관절염이 오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하게 · 오래오래 · 행복하게



Q. 건강할 때 특별히 할 수 있는 관절 관리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A. 관절염 예방을 위한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체중 또는 비만을 피하는 것입니다. 비만을 일으킬 정도로 과식과 편식을 일삼는다면 무릎관절에도 무리가 옵니다. 두 번째는 무릎에 해로운 활동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관절에 안 좋은 습관은 바닥에 쪼그려 앉기 양반다리 앉기 등 좌식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문제가 없으나 무릎 연골 및 연골판에 탄력이 줄어들고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50세가 넘으면 생활 습관을 서양식 입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무릎에 좋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지의 근육이 중요한데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육 운동을 평소에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

고 너무 무릎을 혹사하는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략 하루에 전체적으로 한 시간 가량, 걸음 수로는 7천 보에서 1만 보 정도가 충분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이유로든지 무릎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서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음으로써 관절염의 진행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Q. 이미 관절염이 발생해 무릎 통증을 느낄 때 호전될 수 있는 관리 방법과 치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관절염의 치료는 증상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치료합니다. 증상도 거의 없는 관절염 초기에는 체중조절, 생활 습관 개선, 건강한 운동요법으로 충분합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불편함이 나타날 때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염진통제를 일시적으

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먹는 약으로 통증 조절이 되지 않으면 관절 내 주사를 맞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절염이 악화하면 질병의 정도에 따라 관절경수술, 환타리고정술, 인공관절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절에 좋은 음식도 추천해주세요.

A. 특별히 관절에 좋은 음식은 없으며, 체중이 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우슬, 보스웰리아, 푸른잎홍합 등은 학문적 근거는 분명하지 않으며, 심리적 요인에 의한 증상개선 효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만, 골다공증은 장기적으로 골절이나 관절염을 일으킬 수 있어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칼슘, 비타민D와 그 외 필요한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무릎인공관절 의학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인공관절 수명은 20년에서 길어야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 후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하게 오래갈까요?

A. 최근에 나온 인공관절을 이용해서 정확한 수술이 이루어지면 관절이 마모되어서 수명이 다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로 대략 10mm 두께의 인공관절 베어링을 넣는다고 가정할 때, 1년에 약 0.1mm가 마모됩니다. 이는 우리가 1년에 무릎을 움직이는 평균 횟수인 100만 번을 움직일 때 마모되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관절이 마모되는 것은 10mm를 넣으면 100년이 걸려야 마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면역력

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감염합병증, 골다공증, 낙상 등에 의한 골절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관절 수술을 해드린 환자분께 관리만 잘하면 30년 이상 사용한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체중이 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근력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적당한 운동을 해 주고,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는 좌식 생활을

저는 환자들이 육신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한 것이니까요.



피하는 것입니다. 그 외 감염 예방에 중요한 면역력 유지, 골절 예방을 위한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가 중요합니다.

Q. 분당서울대병원을 나와 TK정형외과을 개원 하시면서 노년기 라이프 케어 등 의료인생 2막을 펼치고 계십니다. 전과 달라진 점과 병원 운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A. 대학에서는 진료와 함께 교육, 연구 활동이 중요합니다. 티케이정형외과에서는 진료를 최우선으로 두고 집중할 수 있어서 좋은 점이 있어요. 병원 운영 비전은 “삶을 보살피는 세상에 꼭 필요한 병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병원의 4가지 가치인 최상의 의술, 편리한 시설, 친절한 보살핌, 합리적인 진료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관절의 건강을 보살피는 관절병원, 노년의 건강을 보살피는 노인종합클리닉, 늙어감과 죽음의 과정도 보살피는 호스피스와 상조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질병에서 오는



신체적 고통, 죽음의 공포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이 겪게 되는 사회 경제적 어려움과 슬픔도 동반됩니다. 이에 저는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적절한 대처와 최적화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마지막 여정을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이끄는 선장이 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환자들이 육신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한 것이니까요.



김태균 의사

- 현. 티케이(TK)정형외과 대표원장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 미국 루이빌 인공관절센터 임상전임의
- 미국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임상전임의(스포츠의학)·연구전임의(조직공학)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절센터 교수
- 미국슬관절학회 정회원
- 인공관절회사 Smith & Nephew, B.Braun, Zimmer 자문의사
- 2020 대한민국 100대 명의 선정 - 인공관절부문(주간시사매거진)
- 2020/2021 2년 연속 탑어워드 대상 - 정형외과부문(Weekly People)
- 2022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 무릎인공관절부문(조선일보)
- 2022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 고객중심경영부문(TV 조선)



무릎 건강 체크리스트 3단계

1 무릎 상태가 눈에 띄게 변화되었는가?
(Ex. 부종, 통증, 열 등)

○ ✖

2 생활 패턴에 변화가 있는가?
(Ex. 김장담그기, 오랜만에 운동하기 등)

○ ✖

3 2~3일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는가?

○ ✖

진단기준

0개 - 계속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해 간단한 스트레칭을 실천해주세요.

1개~2개 - 무릎 관절에 무리가 온 것으로 예상되니 며칠 간의 휴식을 취해주세요.

3개 - 관절염 증세가 의심되니 병원에 방문하여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1. 진단은 진료하고 판단하는 게 좋지만, 예를 들어 췌시고 아프다가 아닌, ‘관절 부위가 붓는다, 누르면 아프다, 열이 발생된다. 관절이 움직이는데 장애가 나타난다.’와 같이 객관적인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서 원인과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되는 것을 항상성(homeostasis)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몸에 변화가 생기면 원래 적응되어 있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통증과 같은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활패턴의 특별한 변화 없었는데도 통증이 생겼다면 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주말에 손주가 다녀갔는데 많이 업어줬더니 무릎, 허리가 아프다! ‘동문회에서 등산 후 무릎이 아프다’처럼 관절 통증이 나타난 것에 대해 설명할만한 생활의 변화가 있다면 질환 때문이라기보다 우리 몸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이 일상적으로 지내는 방식에 적응되어 유

3. 우리 몸에 새로운 활동으로 인한 보상반응으로 통증이 유발되었다면 평소의 생활패턴으로 돌아가서 2~3일 정도 기다리면 대부분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만약 2~3일이 지나도 점차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관절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일 수 있으므로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 증가가 지금의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외여행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글로벌 경제와의 상관관계



MZ세대는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지금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해외여행이 이토록 자연스러워진 것은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니다. 1982년까지도 해외여행은 일부 고위직이나 부유층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다녀올 수 있었다. 그나마도 여행 가기 전 엄격한 신원조사를 통과했음에도 남자는 반공연맹(現 자유총연맹), 여자는 예지원에서 국제 에티켓과 공산권 주민을 만났을 때 행동요령 등의 소양교육을 받아야 했다. 당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철저히 대립했던 냉전체제였고, 그에 따라 서로 간 어떠한 인적, 물적 교류도 허락되지 않았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공산주의자로부터 소위 ‘빨간 물’이 들어와 국내를 오염시킬까 하는 우려가 매우 컸다. 경제적인 성장도 해외여행 확대에 한몫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GDP는 35,000달러에 육박하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하지만 1982년 당시의 우리 GDP 규모는 1977달러밖에 안 되었다. 따라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달러를 철저히 막아야만 했다. 이 두 가지는 일반인에게 해외여행을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게 만들었다. 당시에 혹여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신기하고 또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글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해빙기를 시작으로 다시 해외여행자 급증

1988년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해외 여행은 드디어 자유화된다. 동시에 그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88년을 기점으로 국내 경기가 연일 활황을 이루기도 한 경제적 상황이기도 했다. 해외여행이 불법인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괄목할 성장을 이루었고, 급기야 2019년에는 2,871만 명이라는 역대급 출국자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계속하여 신기록을 갱신할 것으로 보였던 해외여행객 수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된 '코로나 19' 팬데믹 현상이 그것이다. 전 세계 많은 나라는 앞다투어 봉쇄조치를 취하며 외국인 입국을 금지했고, 설령 허용하더라도 14일의 자가 격리를 의무로 했기 때문에 통상 5일 정도의 관광여행객들에게는 입국 금지와 다름없었다. 그 결과 2019년 대비 2020년은 85.1%, 2021년은 95.7%의 어마어마한 여행객 감소세를 보였다. 여행(관련)산업의 빙하기가 도래했다. 질병이라는 것이 국경을 넘나드는 여행의 본질에 어떤 절대적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다.

2022년 말부터는 해외여행에 있어 해빙기가 시작된다. 문을 잠가 놔던 과거 여러 나라가 서서히 여는 모습이 여럿 포착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각국에서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다.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오랫동안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내부의 거센 반발로 봉쇄의 문을 개방하고 리오픈(경제활동 재개)정책으로 전환하며 최근 단체 여행을 3년 만에 허용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그 시장 규모가 2,000억 달러(약 25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올해 여행업계가 정한 키워드는 '트래블질리언스(Travel+Resilience-여행 회복)'다. 억눌려 왔던 여행 소비가 그동안의 금욕(禁慾)을 보상이라 하듯이 폭발적으로 보복여행을 할 것이라 보는 것이다. 다시 코로나19 이전 이상으로 해외여행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관련 기관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급증하는 해외여행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변화상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나름 통찰력을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여행이 끼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국가경제의 활성화



여행산업은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K-Culture를 앞세워 제조업과는 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군이다. 다시 말해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 하드파워라 할 수 있는 군사력 등에 비해 그 파급력은 소프트파워인 K-Culture와 같은 문화산업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실제 BTS는 '아미'라는 전 세계 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 빌보드 1위에 선정된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1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BTS의 나라, 한국을 보기 위해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인 여행수지가 포함된 금액이다. 거기에 더해 한국의 강점으로 꼽히는 IT 기술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언택트 솔루션을 여행 산업에 접목시키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뉴노멀 시대에 진입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여행자는 필수적으로 그 지역에서 음식, 숙박 및 각종 활동에 돈을 지출하게 된다. 지역 경제를 활기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 또한 여행은 사회적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효과성이 뛰어난 산업이다. 여행 산업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이동하면서 현지에서 다양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부의 재분배 효과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광협회를 만들고 지역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널리 알려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쏟고 있다.

환대(歡待, hospitality)산업의 발달



환대산업은 호텔, 리조트, 요식업, 클럽, 카페, 관광시설, 테마파크, 카지노, 유람선 등 여가에 자신의 돈으로 환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업을 말하며, 세계 최대의 산업이다. 제조업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것으로 생산성을 따지지만 환대산업에서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따진다. 이미 시설과 공간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관건은 사용률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한정적인 국내 여행객 수요에서 해외여행자까지 가세하게 되면 환대산업군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운송업의 발달



해외여행의 증가는 필수적으로 국내외 특히 국제 운송업의 호황을 수반한다. 과거 관광 여권 발급이 개시되며 해외여행의 수요가 폭발했던 1980년대 후반, 이런 해외여행 호황을 타고 태동한 민간 항공사가 아시아나항공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봉쇄되며 대한항공과의 합병 절차를 시작하고 있기도 하다. 해외여행이 운송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통신시장의 수익구조 개선



현대인에게 스마트 폰은 신체의 일부처럼 되지 오래다. 해외로 출국할 때 반드시 동반해야 하는 것도 스마트폰이다. 통신사들은 엔데믹 이후 붓물이 터진 해외여행 고객을 대상으로 통화는 물론 문자, SNS 등 로밍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며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면세산업 활성화



과거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표현했을 만큼 일단 사업권을 따내면 엄청난 수익을 약속했던 산업군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의 영광을 잃은 듯하다. 늘어난 면세점 수와 중국과의 THAAD(사드) 갈등, 미-중 무역전쟁 급기야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여행객이 급격히 사라짐과 동시에 황금알 거위는 사라져버렸다. 급기

야 어렵게 따낸 면세점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업자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면세사업은 관광, 수출, 외화획득, 고용 등 측면에서 국가경제 기여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부는 면세사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리오프닝에 따른 트래블질리언스가 화두가 되면서 정부는 국제적인 면세산업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하여 발 빠르게 정책 개선에 나섰다. 간단히 살펴보면 시내면세점만 가능했던 온라인 구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허용하여 미리 온라인 주문, 결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해졌다. 또한 여행기간 내내 면세품 휴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면세점 구매 물품을 입국장에서 찾을 수 있는 입국장 인도장 정책이 만들어졌다. 지금은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나 향후 타공항만까지 확대 예정이다. 이밖에도 여행객의 편의와 면세점 수익구조를 개선시키기 위한 각종의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있는 추세다.

정부 수입 증가



여행으로 인한 관광산업이 발달하면 자연스럽게 관련 기업과 개인의 소득이 늘게 된다. 그에 따라 세수도 올라가 국가 재정이 튼실해진다.

일자리 창출



해외여행의 증가로 현대산업과 운송업 등의 여행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일자리에서의 인력 수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생겨 필요한 인력의 수요가 확장된다.



<부정적 영향>

여행비용의 상승



팬데믹이 끝나고 해외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항공료, 호텔 비용 및 비자 수수료 상승과 같은 개인과 정부 모두의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환경



관광지가 과밀화되어 지역 사회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즉 여행 산업은 '낭비 산업'이라는 오명이 있다. 일회용품의 과다 사용과 필요 이상의 물품 제공 등을 통한 자원의 낭비가 그 원인이다. 이와 함께 항공(해상)여행으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해외여행의 지속적인 증가가 기후변화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이런 비판 속에 호텔업계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 쓰레기 배출량 감축), 플로깅(Plogging,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 다회용품 사용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항공업계도 지속 가능 연료 비율을 늘리고 차세대 친환경 항공기를 적극 도입하는 등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하는 지속가능한 여행산업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다.

인기 지역 과밀현상



유명 관광지에서는 몰리는 여행객으로 과밀화되고 물과 전력 공급과 같은 지역 자원과 기반 시설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의 비용 증가와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경상수지 악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8%로 관련 통계가 있는 51개 국가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는 듯이 2022년 11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외로 떠난 우리 여행객은 6배 이상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여행수지는 7억7,53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여행 산업 구조에 혁신이 없다면 우리 경제의 경제기초여건 지표인 경상수지에 상당한 부담으로 올 것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해외여행 증가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세계 경제 상태, 정부 정책, 여행 및 관광에 대한 문화적 태도를 비롯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일부 부문과 목적지에서는 경제 성장에 기여했지만, 다른 부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관광 진흥과 지역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관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지속 가능한 여행산업으로서 경제와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다.

TIP. 변경된 해외여행 관세면제 물품 및 한도

여행자 휴대품	기존	변경
기본 면세	미화 600달러 이하	미화 800달러 이하
주류	1병(합산 1ℓ, 총 400달러 이하)	2병(합산 2ℓ, 총 400달러 이하)
담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련형: 200개비(10갑) • 시가: 50개비 액상: 20ml(니코틴 함량 1% 이상은 반입 제한) 그 밖의 담배: 250g ※ 한 종류만 선택 가능 	
향수	합산 60ml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	검역에 합격한 것으로 총 40kg, 총금액 10만 원 이하(물품별로 수량·중량 제한)	

50대와 60대를 위한 투자 방법

원화 자산에만 매달리면 희망이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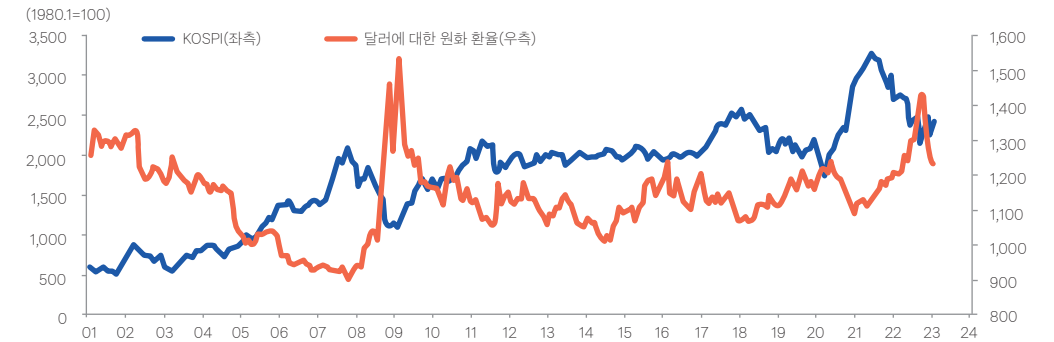


높아지던 금리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재테크에 대한 고민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기대수명이 끝없이 연장되는 것 역시 투자 고민을 높이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출생 시 기대수명은 남성 80.5세, 여성 86.5세로 OECD 평균(남성 77.9세, 여성 83.2세)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1970년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이 각각 58.4세와 66.3세였음을 감안할 때, 50년 만에 무려 22.1세와 20.2세 늘어난 셈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글 홍춘욱 박사·이코노미스트

답은 바로 달러 자산 투자에 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하면 한국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글로벌 리츠 같은 상품에 투자하기 용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을 보면, 2020년이나 2022년처럼 주가가 급락할 때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달러 자산에 투자한다면, 환율이 급등함으로써 환차익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평가된 원화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큰 이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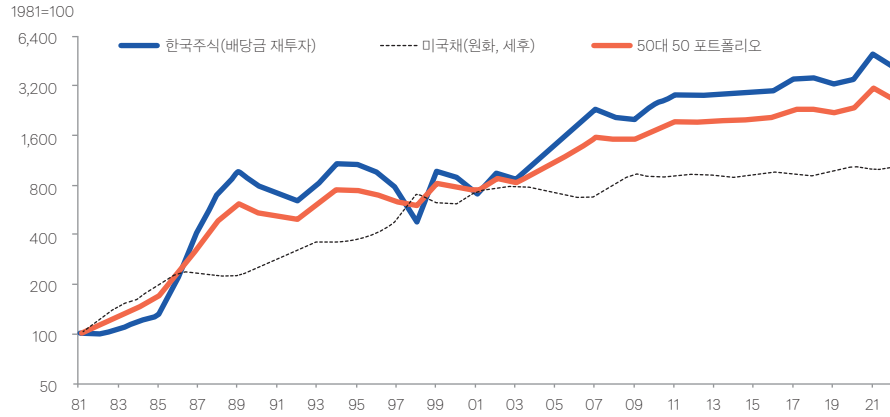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 vs. KOSPI



출처 한국은행, 프리즘 투자저문 작성

그러면 어떤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 물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미국 국채가 가장 우선적인 투자 대상이라 생각한다.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불황에 강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지고 일부 국가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 투자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지키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런 연유로 불황이 출현할 때마다 달러,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 아래 <그림>인데,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반반 투자한 포트폴리오(붉은 선)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큰 손실을 보지 않고 자산을 키울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손실이 완전 제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1989년이나 2022년처럼 10년에 한 번꼴로 주식 채권 모두 손실을 기록하는 시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981년 이후 한국 주식(배당재투자)과 미국채(세후), 그리고 50대 50 포트폴리오 성과



출처 bloomberg, 프리즘 투자자문 작성

이럴 때는 두 가지 대안이 있는데, 첫 번째는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이란, 5대 5라는 계획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매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자산을 5천만 원씩 나눠 각각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2022년 한국 주식이 4천만 원으로 줄어들고 미국 국채는 6천만 원이 된다면, 5대 5의 비율이 4대 6으로 변한다. 이때 미국 국채 1천만 원 처분해서 한국 주식을 1천만 원 매입하는 게 리밸런싱이다. 즉, 많이 빠진 자산을 매입하고 가격이 상승한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리밸런싱을 실행하면 ‘매수 후 보유’ 전략에 비해 압도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다. 여기서 ‘매수 후 보유’ 전략이란, 처음에는 5대 5로 투자했지만 이후 비중의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을 뜻한다.

매수 후 보유전략과 리밸런싱 전략의 성과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1981년부터 매년 100만 원을 한국주식과 미국국채에 5대 5로 투자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A와 B는 매년 50만 원씩 한국주식과 미국국채에 투자하고 있지만, B 투자자만 리밸런싱을 실행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2022년 말 A의 자산은 1억 2,322만 원으로 불어나는 반면 B의 자산은 2억 6,321만 원이 된다. 동일하게 42년 동안 적립 투자했지만 성과는 2배 이상 차이가 난 셈이다. 리밸런싱 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을 다변화하는 것도 투자 성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투자의 위험은 낮아진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의 변화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80년대에는 한국 주식

이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좋은 곳이었지만, 90년대에는 미국이 인터넷 붐을 타고 강력한 상승을 기록한 것이 예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미국 국채에 비해 미국 주식의 장기 성과가 더 낫다는 것도 수익률이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1981년부터 매년 100만 원을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주식에 3:3:3으로 투자했을 경우(이하 ‘투자 3분법’) 2022년 자산이 4억 6,152만 원으로 불어난다. 만일 1,000만 원씩 ‘투자 3분법’으로 적립 투자했다면, 40억대의 자산가가 되어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의 자산운용을 고민하는 5060세대들은 이 전략을 전수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순서로 5060을 위한 투자전략을 살펴보자. 5060세대는 수입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노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시기이니 ‘투자 3분법’처럼 주식 비중이 높은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탈무드’ 투자법과 ‘투자 4분법’이 적합하다.

탈무드 투자법이란, 유대인들의 경전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에서 출발하는 전략이다. 탈무드에 등장하는 랍비는 “돈의 1/3은 현금, 그 다음 1/3은 사업, 마지막 1/3은 부동산에 투자하라.”고 조언한다. 이 조건을 받아들여,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그리고 미국 리츠에 1/3씩 투자하는 것이 탈무드 투자법이다. 이 전략의 좋은 점은 자산의 2/3가 높은 배당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리츠는 매년 3~4%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미국 국채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금 수입이 부족한 5060세대는 탈무드 투자법으로 고수익과 현금 흐름을 다 잡을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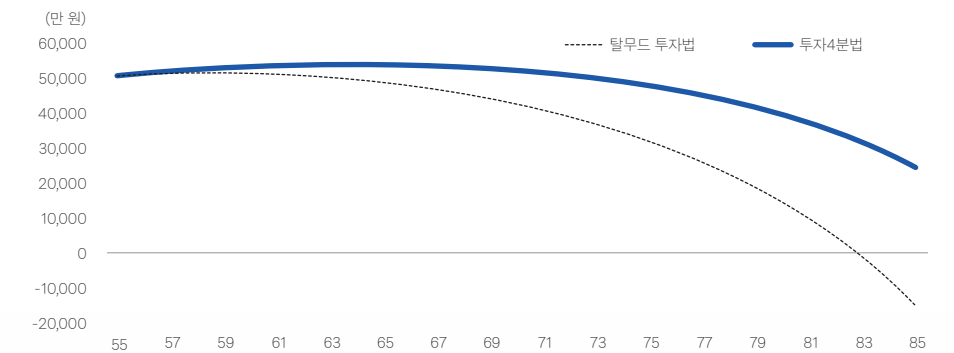
그러나 탈무드 투자법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가 발생할 때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2022년처럼,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면 주식과 부동산이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 4분법’이 안성맞춤이다. 투자 4분법이란, 탈무드 투자법에 금을 추가하는 것이다. 즉 한국 주식과 미국 국채 미국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동일한 데, 여기에 금 투자를 가미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22년처럼 인플레이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에도 안정적인 성과를 누릴 수 있다.

아래 <그림>은 5억 원의 자산을 가진 가계가 55세에 은퇴하면서 매년 3,850만 원을 인출할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보여준다. 55세 은퇴를 가정한 이유는 이때부터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65세에 국민연급의 수급이 시작되며, 평균 수령액(57.2만 원)이 연 평균 3%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연평균 3%씩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승하는 이유는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발맞춰 연금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으로 보면, 83세까지 자금의 고갈 없이 지속적인 자금 인출이 가능해진다.

그런데 이는 매우 경직적인 전망이다. 일단 70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전체 지출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에 투입되는 반면, 여행이나 외식 등의 비용은 줄어들 것이다. 연 3,850만 원에 이르는 지출은 너무 과하니 연 3,200만 원으로 줄이는 한편, 자녀가 결혼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상당한 규모의 지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해보자. 마지막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탈무드 투자법이나 투자 4분법 모두 83세까지 고갈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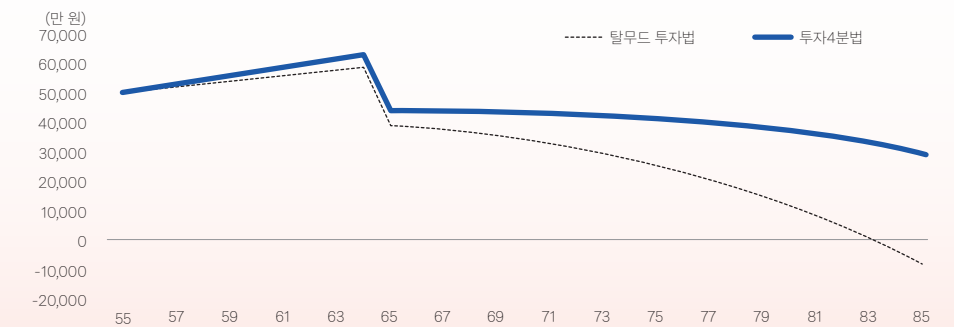
따라서 적절한 자산 배분, 그리고 리밸런싱을 연 1회 정도만 반복한다면 아주 큰 돈이 없어도 노후를 챙길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운용 자산이 더 커진다면 지출이 더 늘려도 되고 또 자녀들에게 상속할 자금도 늘어나니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할 때는 항상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5060세대는 한번 큰 손실을 본 후 만회할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위험을 잘 살피며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55세 은퇴하며 연 3,850만 원 인출 시 전략별 자산 변화(명목)



출처 프리즘 투자자문 작성

55세 은퇴하며 연 3,200만 원 인출하고 65세에 2억원 증여할 때의 전략별 자산 변화(명목)



출처 프리즘 투자자문 작성

은퇴 설계, 주택 구매보다 연금 3층 탑 활용

⋮

은퇴 이후 노후 자산의 기본은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연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은퇴 이후에 수령하게 되는 '공적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탑부터 세워야 한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를 예상하고 국민연금 예상 수령 금액을 제외한 목표 은퇴자금을 계산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글 허지윤 조선비즈 금융부 기자



주택을 보유하면서 유동화하는 전략 세우

퇴직을 앞둔 50대 A씨 부부의 사례다. 남편 A씨(59)는 퇴직 후 9개월간 월 180만 원가량을 실업급여로 수령할 예정이다. 아내 B씨(55)는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가량을 벌고 있다. 자녀 1명은 취업을 했지만 독립하지 않고 함께 거주 중이다. A씨 보유 자산은 경기도 수원 소재 아파트 한 채와 부부 합산 예적금 5억 원, 연금저축 6,000만 원(남편), 저축보험 1,400만 원(아내) 등으로 구성돼 있다.

A씨 부부는 행여 인생 2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연로하신 양가 부모님의 의료·간병비나 저희 부부의 의료비 등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찌지하는 걱정도 있다. 자녀를 위해 결혼자금을 지원하고 아내와 노후를 편히 보내고 싶다는 목표도 있다.

경기침체 우려 속 은퇴를 앞둔 50~60대의 고민거리는 한둘이 아니다. 특히 최근 집값 하락 시기에 진입해 주택 등 부동산 자산 활용·정리 전략이 더 중요해졌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자산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만약 1~2년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해 노후 자

금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운 경우라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래 침체와 가격 하락은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기자가 만난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퇴직을 앞두고 현금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택을 선부르게 처분하기 보다는, 차라리 주택을 보유하면서 유동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노후에 중요한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규모 축소, 주택연금 활용, 임대 소득, 가격 상승기 처분 등을 노리는 장기적인 인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50~60대는 은퇴기 생활자금을 국민연금을 받기 전과 이후로 나눠 전략을 세우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중신보험의 연금 전환을 활용해 국민연금 개시 전 연금 가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퇴 이후에는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유념해 은퇴를 앞두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과하게 늘리거나 수익형 부동산 등 현금이 묶이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용도별 주머니 나누고

현금 흐름 확보해야

은퇴를 앞둔 50~60대에는 보유 자산 규모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현금 흐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시기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과 이후로 나눠 지출에 대비한 목돈과 생활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유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노후 생활비, 자녀 결혼자금, 의료비, 여행비 등 지출 항목 세분화 통해 필요 금액을 예측하고 자금 용도별로 각각의 주머니에 담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특히 노후 생활비는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연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앞서 사례로 든 A씨 부부에게 우선 부부 명의의 정기예금 5억 원을 ▲추가연금 자원 1억 8,000만 원, 의료비 7,000만 원, ▲자녀결혼자금

1억 원 이내, ▲유동자금 1억 5,000만 원으로 재분류해 관리하고, 현금흐름을 추가로 확보할 것을 권했다. '2022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적정 생활비는 314만 원으로 조사됐다. 이를 기준으로 A씨 부부 자산 현황을 따져보면 현금 흐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개인퇴직연금(IRP),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은 은퇴자금 준비에 가장 최적화돼 있는 금융상품이다.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이자나 배당에 대한 과세 이연과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과세 이연이란 세금 납부 시점을 잠시 미뤄주는 것을 뜻하는데, 퇴직소득세 부담을 연금 수령 시점으로 이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자산 개시 전략 세워라...

수령 시기 늦추면 더 받아

퇴직 이후 현금 흐름은 연금자산에서 나온다. 전문가들이 공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3층 탑을 강조하는 이유다.

사례 A씨 부부의 연금 수령 시기를 따져보면 ▲59세부터 62세까지 부부개인연금 개인연금(IRP포함) 매월 180만 원(15년 수령)이 발생한다. 여기에 남편 A씨 실업급여와 아내 B씨의 아르바이트비 월 80만 원, 정기예금 이자소득도 있다. ▲63세부터 73세까지는 국민연금 180만 원과 개인연금(IRP포함) 180만 원이 발생한다. ▲ 73세부터 90세까지 국민연금 180만 원 발생한다. 이를 감안하면 73세 이후 노후 부족자금을 준비해야 한다.

정기예금 1억8,000만 원을 활용해, 추가 IRP개설을 통해 최대 1,800만 원을 5년간 납입하고, ISA계좌를 개설해 매년 2,000만 원 5년간 불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후 ISA 만기 자금을 IRP에 추가 입금을 통해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73세부터 15년간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는 자녀의 피보험자 등재를 통해 고정지출을 줄일 수 있다. 63세에 국민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긴다. 이를 고려하면 금융소득 등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퇴직을 앞두고 현금화하기 위해 보유 중인 주택을 선부르게 처분하기보다는, 차라리 주택을 보유하면서 유동화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아내 B씨의 경우 연금보험과 저축보험 합산 5,000만 원 외에는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예·적금을 아내 명의의 즉시 연금으로 가입하는 방법, 아내가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를 5년 이상 지속할 수 있다면, IRP 계좌를 개설하고 매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을 채워 납입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 예금 2억 원에서 매년 1,80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9,000만 원이 된다. IRP 불입 시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3.3~5.5% 수준의 저율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연금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면 매월 이자 수령이 가능한 월 쿠폰 지급형 가연계신탁(ELT) 또는 즉시연금보험 상품, 원금과 이자가 매월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는 이자 지급식 연금 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은퇴 전까지 소득 감소와 물가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에 자산을 배분해 운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수령 이후에는 연금저축, IRP 등 세제 적격 상품의 연금 개시를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 55세 이후 연금 개시 시 5.5%, 70세부터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 부과로 연금을 늦게 개시할수록 저율 과세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연금을 운용·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최대 노후 자원 '집'... 비중 축소 전략 잘 세우고, 주택연금·종신보험 등 활용

주택은 노후 주요 자원이다. 단, 고물가·고금리 시기인 만큼 은퇴를 앞두고 주택을 매도 처분하는 것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은퇴기에는 부동산 자산 점유 비율을 점차 축소 조정하고 안전자산 위주로 금융자산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만약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시기에 보유한 금융자산으로 물가상승률 이상의 투자 수익을 내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면, 오히려 서둘러 부동산을 처분해 확보한 현금성 자산에 리스크가 클 수 있다.

주택을 통한 주거 안정성과 주택연금으로의 기능, 자산 상승 여력을 감안해 장기적인 인출 전략에 따라 우선 집을 보유하고 다양하게 유동화하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 현금 흐름이 빠듯하다면 현재 보유 주택을 반월세로 주고 상대적으로 전셋값이 낮은 지역으로 입주해 월수입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새 직업이나 부업 등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층 빈곤의 1순위 원인이 소득 절벽이 아닌 치료비 부담이라고 한다. 은퇴 이후에는 '건강한 삶'에 목표를 두고 자산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시 하락하고 있는 시장 국면에서 은퇴 후 중요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주택연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단,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월 연금액이 다르다. 가입 기준은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주택연금 월 수령액은 주택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이뤄진다. 가령, 만 70세 1가구 1주택자가 공시가격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월 일정액,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4만 원을 받게 된다.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주택은 월 92만6,000원을 받는다.

주택 가격이 높으면서 이자율이 낮고 기대수명이 짧을수록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집값이 조금이라도 높을 때 가입해야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지난해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기도 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만4,580건으로 전년(1만805건)보다 34.9% 증가했다.

주택연금 수령 방식은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는 정액형, 가입 초기에 많이 받는 초기 증액형, 3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정기 증가형으로 나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민연금 수령 전 시기에 현금 흐름을 추가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입된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다. 종신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사망해야 보험금이 100% 나오는 상품인데, 만약 '연금전환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면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사망 보장을 받다가 납입 기간이 끝난 후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노후 연금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연금전환특약 종신보험도 보험료 납입 기간 경과, 대출 상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 전환할 수 있고, 일반 연금상품보다는 환급률이 낮기 때문에 개인별 보험 불입금액과 자금 상황 등에 따라 연금 전환에 따른 이점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은퇴 시점에 자녀 지원 자금, 주거 비용 등에 과도하게 지출할 경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늘고 있다. 은퇴 이후에도 새 직업이나 부업 등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다. 고령층 빈곤의 1순위 원인이 소득 절벽이 아닌 치료비 부담이라고 한다. 은퇴 이후에는 '건강한 삶'에 목표를 두고 자산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고금리 시대 생존법 파킹통장 200% 활용하기

젊은 세대 사이에서 '파킹통장'이 예·적금을 능가하는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잠시 주차(parking)하듯 짧은 기간 동안만 돈을 넣어둬도 이자를 지급해준다는 뜻의 파킹통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투자처를 달리하는 '투자 노마드' 성향의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모처럼 다시 찾아온 고금리 시기, 파킹통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파헤쳐 본다.

글 송영찬 한국경제신문 기자



정기예금과 입출금통장의 그 사이

사실 '파킹통장'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같은 금융상품의 정식 종류는 아니다. 정해진 예치 기간 없이 원할 때 돈을 넣고 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입출금통장(요구불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모든 입출금통장이 파킹통장이라 불리는 건 아니다. 특정 조건들을 만족해야 비로소 '파킹통장'이라는 별명을 얻는다. 입출금통장과 파킹통장을 구분 짓는 가장 큰 요소는 금리다. 돈을 하루만 넣어놓았더라도 쓸쓸한 이자를 줘야 비로소 파킹통장의 타이틀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 입출금통장의 금리는 연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전통적으로 은행들은 고객들이 자금을 입출금통장에서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으로 옮기길 유도해왔다. 은행은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 입출금통장보다는 일정 기간 돈이 묶이는 예·적금을 선호한다. 돈이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묶여있어야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집행하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파킹통장은 이런 은행의 공식을 파괴한다. 언제든지 돈을 뺄 수 있는데도 매일 이자를 주고, 정기예금에 버금가는 높은 금리를 보장해준다. 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 대표 파킹통장 상품으로 5달 만에 235만 명이 넘는 고객을 유치했다. 현명한 금융소비자들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1.5~1.75%에 머물던 시기 1억 원까지 연 2% 이자를 주는 이 파킹통장에 열광했다.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데 금리는 웬만한 정기예금보다 높으니 큰 인기를 끌 수밖에 없었다. 특히 정기예금의 경우 중도에 해지할 경우 약정 이율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이러다 보니 파킹통장은 정기예금의 지위도 흔들기 시작했다. 특히 중장년층에 비해 자산 규모는 적은 대신 그때그때 주식·가상화폐·부동산 등 각종 자산에 공격적



인 투자를 해온 젊은 세대들의 투자 성향도 파킹통장 열풍에 한몫했다. 언제 어떤 투자의 기회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돈일지라도 1년 이상 정기예금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이들에게 '비합리적인' 선택이 된 것이다.

지위가 흔들린 건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도 마찬가지다. CMA는 기존에 일반 입출금통장보다 금리가 높아서 투자자금 보관 용도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최근엔 CMA 수익률보다 웬만한 파킹통장 상품의 금리가 더 높은 게 예삿일이 됐다. 특히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던 CMA와 달리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파킹통장은 모두 원리금을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보호해주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던가.

가입 기간, 금액은 어떻게?

파킹통장은 말 그대로 잠시 주차해두는 통장이다. 하지만 은행권의 정기예금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 주차'도 고민해볼 만하다. 현재 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는 연 3~4%에 머물고 있는데, 2금융권의 파킹통장 상품들도 비슷한 금리를 보이고 있다.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높고 1년 이상 자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는 목돈이라면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파킹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단 파킹통장 금리가 높더라도 예금자보호 대상인 5,000만 원 이내만 넣어두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고금리 파킹통장 상품들은 대부분 2금융권에서 출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 예치가 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된다. 안전하게 금리가 높은 곳들에 예금자보호 범위 이내로 분할해 넣어두는 것이 좋다.



파킹통장을 고를 땐 금리 말고도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반드시 잘 살펴 봐야 한다. 현재 인기 있는 많은 파킹통장 상품들은 금액 구간별로 다른 금리를 적용해주는 경우가 많다. 높은 금리만 보고 목돈을 예치해뒀다가 일반 입출금통장 수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상품별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만 이체해서 최대한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좋다.

쉬운 이체도 파킹통장을 고르는 중요한 조건이다. 투자 기회가 생기거나 좋은 금리의 정기예금이 생기면 재빨리 옮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파킹통장 상품 중엔 해당 금융사의 입출금통장과 연결된 '통장 속 통장' 형태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파킹통장에서 증권 계좌나 타행 정기예금으로 이체하기 위해선 입출금통장으로 옮긴 뒤 다시 옮겨야 해서 번거로울 수 있다. 이 경우 잠시 주차하듯 넣어둘 수 있는 파킹통장의 장점이 희석된다. 주차장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멀리 있다면 차를 가지러 오고 가는데 시간을 다 써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일부러 상품들 위주로 살펴보는 것도 좋다. 목돈일수록 이자가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지급된다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고객들이 자사 앱에서 직접 '지금 이자받기'를 누르면 오늘까지 예치된 금액에 대해 바로 이자를 지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복리 효과도 극대화하면서 매일 이자를 받는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이다.

속편, 재연 이상의 가치를 만든 영화들

전편만 한 속편은 없다고 할 만큼 속편이나 재연을 통해 흥행을 이룬 작품은 많지 않다. 그런데 요즘 들어 속편, 재연 작품들이 성과를 내며 영화계를 휩쓸고 있다. 13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2')과 90년대 농구 전성기, 청소년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만화 '슬램덩크'의 극장판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흥행을 기록했다. 20년이 훌쩍 넘는 <타이타닉>도 재개봉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 작품들이 흥행을 거둔 이유가 뭘까.

글 편집실 자료 네이버 영화

어떤 작품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것은 당시를 살아 낸 수많은 이들의 기억을 끌어안는 일이다. 그런 추억이란 감성을 건드렸기 때문인지, 그리움 때문인지 영화를 보는 내내 알 수 없는 뜨거움이 스멀스멀 올라와 벅찬 감동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레트로 감성을 건드린 영화의 흥행은 <탑건: 매버릭>부터 시작됐다.





과거의 로망과 더 성장한 <탑건: 매버릭>

1980년대 당시 할리우드는 <인디애나 존스>, <다이 하트>, <터미네이터>, <람보> 같은 영화들이 인기를 끌면서 액션-어드벤처 장르가 대세를 형성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1986년 개봉한 <탑건> 역시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지만, 30년이 훌쩍 넘은 2019년에 와서야 속편이 제작되었다. 36년 만에 돌아온 후속작 <탑건: 매버릭>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도 흥행에 성공했고, 한국에서는 8백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다.

<탑건: 매버릭> 영화의 첫 장면은 <탑건> 1편의 OST인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며, 아련함을 전해준다. 이어 톰 크루즈가 항공점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바이크를 타며 사막을 질주하는 1편의 전설적인 장면이 오마주된다. 1986년 <탑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오토바이를 타고 활주로를 달리는 그는 여전히 매력적이다. 작품 초반부터 여전히 멋진 톰 크루즈의 바이크 질주 씬은 못 아저씨들의 오토바이 구매와 예비에이터 선글라스, 흰색의 크루넥(둥근 모양의 목둘레) 티셔츠와 청바지, 항공 점퍼까지 구매를 촉진했다.

극 중 매버릭은 '마하 10' 이상으로 비행기를 조종하

는 전설적인 전투 비행사다. 그런 그가 상위 1% 해군 파일럿을 위한 훈련 학교 '탑건 스쿨'의 교관으로 복귀한다. 이곳에서 관객은 전편과 연관 있는 반가운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훈련생 중 전편에서 매버릭의 절친한 동료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구스의 아들 루스터를 만나고, 매버릭의 경쟁자이면서도 동료애를 보여준 아이스맨 역의 발 킬머도 등장한다. 훈련생들은 매버릭의 능력을 의심하지만, 압도적 비행 능력으로 제대로 증명한다. 스크린 전체를 활용해 펼쳐지는 화려한 비행 장면과 요즘 극장에서 누리는 웅장한 사운드느 관객의 심장을 뛰게 했다.

톰 크루즈는 <탑건: 매버릭>을 홍보하며 "매버릭은 중년을 위한 영화다. 마음껏 우셔도 좋다."라는 말을 전했다. 전작에서 톰 크루즈가 잘생겨서, 혹은 F-14 톰캣 전투기에 반해서 매버릭에게 열광했다면, 이제는 매버릭이라는 한 인간에게서 멋을 느낀다. 60세가 되어서도 바이크로 활주로를 질주하고, 화려하게 제트기를 모는 장면이 수많은 중년은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탑건 1편에 열광했던 청년들은 어 느덧 인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며 중년이 되었고, 매버릭의 모습 속에서 느낀 동질감이 흥행의 요소로 작용했다.

더 깊어진 바닷속 '판도라' <아바타: 물의 길>

'아바타' 속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1편을 개봉한 지 13년 만이다. 2009년 당시 '아바타'의 등장은 영화계는 물론 영화에 관심 없던 관객들마저 사로잡았다. 이야기도 매력적이었지만 이모션 퍼포먼스 캡처 기술(카메라가 얼굴 전체를 실시간으로 캡처해 모공의 움직임까지도 CG화하는 기술)과 3D 입체 기술 등을 활용해 탄생시킨 '아바타'의 영상미는 당시 영화에서 맛볼 수 없는 신세계로 이끌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바타'는 점점 관객들에게 영화 이상의 공감대를 형성해 갔으며 나비족의 세계는 단순히 허구의 공간이 아닌, 공감의 장소로 뇌리에 강하게 남게 되었다. 그 이후로 많은 3D 영화가 나왔지만 그 인기는 금세 사그라들었다. 지난 13년 사이 <아바타>와 같은 영화적 체험을 선사한 영화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관객들은 또 한 번의 압도적 체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몰입을 제임스 카메론 감독에게 기대하고 있었을지도.

그렇게 속편으로 돌아온 <아바타: 물의 길>은 가족 이야기로 영화를 끌고 간다. 판도라 행성에서 '제이크 설리'와 '네이티리'가 이룬 가족이 겪게 되는 무자비한 위협과 살아남기 위해 떠나야 하는 긴 여정과 전투, 그리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렸다. 한 인터

뷰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감정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 새 영화에서는 캐릭터, 이야기, 관계가 더 강조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 구조에 있어서 <아바타: 물의 길>은 복합적이고 더 깊어졌다.

더욱 발전한 영상 기술은 <아바타: 물의 길>의 영상미를 더욱 섬세하고 풍부하게 만들었다. 영화관에 불이 꺼지고 시작된 스크린 속 판도라 행성의 바다가 화면 밖을 뚫고 나와 넘실거렸다. 아름답고 환상적인 행성 판도라에서 우주와 교감하던 나비족은 이번에 물로 길을 열었다. 아름다운 산호초와 물고기로 가득 찬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 대형 수중생물을 타는 장면 등이 펼쳐졌다. 현실과 가상현실이 이질감 없이 녹아든 신세계는 다시 한번 관객들에게 새로운 영화적 체험을 제공했다.

또 영화는 관객이 인간이 아닌 나비족을 자연스럽게 응원하도록 이끌었다. 위협에 맞서 제 터전과 가족을 지키려는 나비족과 그들의 짓밟힘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던 인간, 제이크 설리를 통해 관객들은 공감하게 된다. '아바타'의 기억을 공통으로 가진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인간적인 공감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을 건너 찾아왔음에도 관객은 다시 한번 천만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X세대 '대중문화'의 추억 <더 퍼스트 슬램덩크>

1990년부터 1996년까지 『주간 소년 점프』에서 연재된 만화 <슬램덩크>는 농구를 해본 적 없는 강백호와 북산고고 농구부 학생들이 함께 성장하는 스토리를 그린 작품이다. 당시 원작 만화는 우리나라에서만 1,450만 부 이상 판매되었으며, 1992~2000년대 초반까지 만화책을 비롯해 TV 애니메이션과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되어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거대한 인기를 누렸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30여 년 X세대(197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들)의 추억을 감성적으로 건드렸다. 그 시절 농구는 경기를 즐겨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하던 스포츠이자 놀이였다.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과 미국 프로농구(NBA) 인기의 시대였고, 드라마 '마지막 승부'가 안방을 강타했었다. 그 가운데 <슬램덩크> 만화가 있었다. 비디오판 OST '너를 좋아한다고 외치고 싶어'와 가수 박상민이 부른 OST '너에게로 가는 길 (Crazy for you)' 한 소설에, '덩크슛'을 던지는 장면에서,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소환된다. 이렇게 <슬램덩크>와 함께 청소년기를 보낸 이들이 각기 다른 모양새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같은 그리움을 가지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관람하게 되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마지막 경기, '산왕공고'와

의 대결을 두 시간에 걸쳐 보여준다. 영화는 주인공이었던 강백호 대신 포인트 가드 송태섭을 주축으로, 원작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와 송태섭의 어린 시절 이야기등을 함께 다룬다. 특히 북산고 농구부 멤버 5명이 등장하는 초반 오프닝 장면부터 가슴이 웅장해진다. 30년 만에 영화로 돌아온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40·50세대에겐 마치 학창 시절 앨범을 펼쳐본 듯 옛날의 설렘과 열정적인 감정을 다시 마주하게 했다. 또한 20·30세대에겐 새로운 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며 소장 욕구에 불을 붙이고 있다. <더 퍼스트 슬램덩크> 팝업스토어를 열고, 관객들은 한정판 피규어와 유니폼 등 굿즈를 사기 위해 연일 줄을 서서 기다리며, 다시금 만화책을 구매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롯데칠성음료와 손잡고 '슬램덩크 와인'을 선보이기도 했다.

지난날 우리는 때론 서투르지만 열정적이고 마음을 다했던 강백호가 되었고, 때론 오합지졸을 이끌어가던 덩직한 주장 채치수가 되기도 했다. <탑건: 매버릭>과 <아바타: 물의 길>, <더 퍼스트 슬램덩크>는 이러한 그리움이 그 시대의 공감대로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추억을 품고 살던 이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다시금 그 추억을 소환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끌어당긴 것이 흥행의 비결은 아닐까.



Tip.

관객들이 뽐은 최고의 명대사

<탑건: 매버릭>



- 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 (매버릭)
- ②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안전벨트 매시고 좌석 앞 선반은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착륙 준비하세요. (행맨)
- ③ 아버지라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루스터)
- ④ 이젠 잊을때가 됐어(아이스맨)
- ⑤ 비행기가 중요하게 아니라 조종사가 중요한거야. (매버릭)

- 출처: 네이버 영화 명대사 추천순

<아바타: 물의 길>



- ① 금방 풀었는데, 또 묶었어! (투크티리)
- ② 아들엔 아들이야. (네이티리)
- ③ 아버지는 지킨다, 그것이 존재 이유다. (제이크 설리)
- ④ 당신 면상을 봅니다. (그레이스 어거스틴)
- ⑤ 물의 길에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로아크)

- 출처: 네이버 영화 명대사 추천순

<더 퍼스트 슬램덩크>



- ① 왼손은 거들분. (강백호)
- ② 농구가 하고 싶어요. (정대만)
- ③ 그래 난 정대만,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정대만)
- ④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죠? 난 지금입니다. (강백호)
- ⑤ 아직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뿐인가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입니다. (안감득)

- 출처: 알라딘(2023.1)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계약 체크리스트

주택시장이 침체를 맞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 덕분에 투기성 계약은 줄어들고 있지만,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갈아타거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기회로 삼고 매매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달에는 부동산 계약 꿀팁을 전한다.

글 편집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하는 것이 힘



2023년,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



새해를 맞아 부동산 계약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다. 2023년에는 부동산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됐다. 그동안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유상 취득이나 건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023년,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 가능



2023년에는 무주택자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원래 해당 지역 거주자에 한해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던 상황에서 개편되면서 청약 대기자들의 당첨 기회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4월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일반분양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가 적용되어 청약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늘어난다.

임대차 계약,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자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등기부등본에는 내가 살 집에 대한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과 압류, 채무, 기타 재산권 등의 내용이 있다. 계약할 집 주소만 알면 누구든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자!

매매계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세 가지를 살펴보자



부동산 계약을 하러 매도인을 만나러 갔는데 매도인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계약을 직접 진행하기 어려워 대리인에게 계약을 맡길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이 더 필요하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새 학기 맞이 Z세대가 SNS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SNS는 요즘 Z세대들에게 빠질 수 없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자신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편하게 올리기도 하고 새 학기를 맞아 친구들과 소통할 때도 SNS를 사용한다. 이렇게 Z세대를 대표하는 문화의 상징이 된 SNS에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알아보며 새 학기에는 머쓱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보자.

글 편집실 **출처** 국립국어원



웬일이야 ↓ 웬일이야	‘네가 먼저 연락하다니 웬일이야?’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나 오랜만에 알게 된 사실을 말할 때 쓰는 표현 ‘웬일이야’는 Z세대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중 하나입니다. ‘어찌 된’을 의미하는 표현은 ‘웬일이야’로 쓰는 것이 올바릅니다. ‘웬’은 ‘왜인지’가 줄어든 ‘웬지’에만 쓰입니다.
귀뜸 ↓ 귀땀	‘시험에 나온다고 했던 문제 귀뜸 좀 해줘’ 친구의 비밀이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듣고 싶을 때 우리는 ‘귀뜸’해달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편이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그머니 일깨워 줌’을 나타내는 말을 표기할 때는 ‘귀땀’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칠흙 ↓ 칠흑	‘내 대학 생활은 칠흙같이 어두워’ 어둡고 컴컴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 ‘칠흑’도 Z세대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입니다. 주로 ‘칠흙같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곤 하는데 검은색을 뜻하는 ‘흑’을 사용하여 ‘칠흑’으로 쓰는 것이 올바릅니다.
애둘러 ↓ 에둘러	‘애둘러 말하지 말고 얘기 좀 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할 때 주로 사용하는 ‘애둘러’도 ‘에둘러’로 표기하는 게 알맞습니다. 또한 ‘주변을 애둘렀다’처럼 ‘에워서 둘러막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똑같이 표기해야 합니다.
우겨넣다 ↓ 욱여넣다	‘가방에 우겨넣으면 들어갈걸?’ 가방에 너무 많은 물건을 집어넣을 때 ‘우겨넣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잘못된 맞춤법입니다. ‘주위에서 중심으로 함부로 밀어넣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해당 표현은 ‘욱여넣다’로 표기하는 게 알맞은 표현입니다.
어줍잖게 ↓ 어줍장게	‘어줍잖게 할 거면 하지 마’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다르게 쓰고 있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어줍장게’입니다. 분수에 맞지 않게 덤비거나 서투른 행동 등을 보며 표현할 때 ‘어줍장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겠지만, ‘어줍장게’가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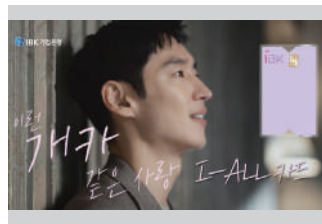
2022년 경영실적 발표, 시장 점유율 23% 달성

IBK기업은행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 '22년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전년말 대비 168조원(8.2%) 증가한 220.7조원을 시현했고 중소기업금융 시장점유율은 23.0%를 기록했다. 2022년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5.3% 증가한 2조 7,965억원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2조 4,705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책은행 중 유일한 상장사로서, 이윤을 창출해 공공성과 주주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카드브랜드를 적용한 신상품 'I-ALL' 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이 신카드브랜드를 적용한 개인카드인 'I-ALL' 카드를 출시했다. 'I-ALL' 카드는 지난 9월에 출시된 'B카드'(기업카드)에 이어 새롭게 선보이는 '카드'(개인카드)로 고객의 이용빈도가 높은 업종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I-ALL' 카드는 전월실적 조건, 한도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5%를 할인해 준다. 또 고객의 카드 이용빈도가 높은 LIVING(리빙) 영역과 MEMBERSHIP(멤버십) 영역에 1%부터 최대 7%까지의 할인혜택을 담았다.



중소 복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기업대출 출시

IBK기업은행은 최근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현상 및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을 출시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을 우대하는 상품이다. 대출대상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기업 ▲원자재가격 상승기업 ▲고환율 영향 수출입기업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성장기업 등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대출대상 확인을 위한 증빙은 최소화해 서류 부담을 낮추고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폴란드 사무소 설립 통한 동유럽 진출 본격화

IBK기업은행이 폴란드 사무소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서를 현지 금융 감독 당국에 제출했다. 기업은행은 유럽의 새로운 전략 거점으로 전기차 배터리 생산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폴란드 진출을 이 전부터 검토해왔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지연됐던 폴란드 사무소 설립은 김성태 은행장의 글로벌 사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신속하게 추진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폴란드 진출은 김성태 행장 취임 후 첫 해외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 개소 예정”이라며, “영업조직 전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도약하는 IBK '전국 영업점장 회의' 개최

IBK기업은행은 2023년 주요 전략방향과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행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영업점장을 격려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성장에도 힘쓴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성태 행장은 올해 경영슬로건을 '새롭게 도약하는 IBK'로 정하며 고객과 함께 위기극복, 내실성장, 미래 선도를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우수 영업점에 대한 시상식과 영업장 우수사례도 공유했다.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성금 3억원 지원

IBK기업은행은 갑작스런 지진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 이재민의 구호와 복구 지원을 위해 성금 3억원을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을 통해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기업은행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 1억 5천만 원과 은행 기부금 1억 5천만 원을 재원으로 마련됐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재해 및 재난 복구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히신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3월의 단어]

‘덜 지루하게 더 재미있게’

위에 주어진 10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N행시 예시

*위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덜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더 더운 한낮에도
지 지금만 같아라	재 재벌집 막내아들이 아니어도
루 루이비통, 샤넬 같은 명품 없어도	미 미치도록 사랑스러운 너
하 하얀 이 드러내며 웃는 우리	있(잇)을 수 없는 추억을 함께하며
게 게슴츠레 눈 뜬 아침에도	게 게으름 피우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3월 1일 ~ 3월 31일 (엽서는 31일까지 도착)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4월 15일 이내



N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담담하게
담력있게
하하하 웃으며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등 점포(은행)를 위해
상도 노려 보고
력(역)량을 꽃피워보자

- 정ㅇ경 -

담백하거나
담대하게
하루를 시작한다
게슴츠레 한눈으로
일찍출근해
상큼하게 내
력(역)활을 다 하리라. 아재 아재 힘내자

- 강ㅇ철 -

담 넘어 아득히 보인 곳이 서쪽 우주발사 기지인데
담소 나누면서 언젠가 하늘로 나는 걸 볼까 했는데
하늘에는 벌써 우리 기술이 우주로 날아가고
게으름 피우는 농사꾼은 할 말을 잃어
일백 번 칭찬해도 아깝지 않은 과학자들이여
상생하고 사는 모든 인류들은 미래 한국을 보고
력(역)동적이고 끈기있는 대한 과학자들 부럽네요

- 김ㅇ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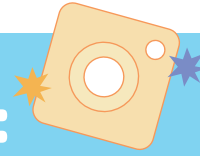
담에 하자
담에 하자
하지말고
게임 즐기듯
일상의 즐거움을
상상하며 할
력 있게 실행하자

- 장ㅇ이 -

담백한 사고
담대한 용기
하고자 하는 의지
게으르지 않으려는 습관
일상에서 늘 이를 실천한다면
상상 이상의 밝은 미래
력(역)동적인 앞날이 펼쳐지리라

- 이ㅇ -

이달의 인증샷



<with IBK> 3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3월호에 소개된 곳]

40p
IBK맛집노트
부산&울산 맛집

46p
발길 닿는 길
영도 흰여울길

58p
IBK산
주왕산

74p
IBK핸드메이드
나만의 향수 만들기

인증샷 이벤트 참여하기

인증샷을 찍었다면
아래 QR코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 3월 1일 ~ 3월 31일
참여 방법 : 아래 QR코드로 사진 전송
당첨자 발표 : 4월 15일 이내



with IBK # IBK맛집노트
발길 닿는 길 # IBK산 # IBK핸드메이드





나지금 청소해서 되게 신나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봄맞이하는 법



웃차림이 가벼워지고, 날은 제법 따뜻해졌다. 봄이 왔다는 증거다.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건 뭐다? 바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당신을 위해 봄맞이 대청소 법칙을 공개한다.

욕실 청소 은근 어렵다면?



거울 얼룩 지우기

습기가 쉽게 생기는 욕실 거울은 얼룩이 지기 쉽다. 이럴 때는 린스를 이용할 것. 마른 걸레로 거울을 가볍게 닦아준 후 분무기에 린스와 물을 넣고 희석해서 분사한다. 린스가 없으면 사용하고 남은 오래된 샴푸도 좋다.

바닥 물때 청소

방심하면 생기는 욕실 물때와 곰팡이. 당연히 보기 좋지 않다. 보통은 세제를 묻혀 솔로 박박 닦아주고 하는데, 힘들게 그러지 말자. 휴지에 락스를 적셔 곰팡이가 난 부분에 붙여둔다. 1~2시간이 지난 후에 떼어내면 말끔하게 사라질 테니.

깨끗한 변기 만들기

변기용 세제나 락스를 이용해 청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다. 변기 물 나오는 부분을 특히 집중적으로 청소하는 게 좋다. 락스나 기본 세제가 없다면, 치약을 이용해 보자. 치약을 솔에 묻혀서 닦아주면 깨끗해지고 악취까지 잡는 효과가 있다.

두꺼운 옷과 이불 어떻게 정리하지?



두꺼운 겨울 이불 빨래

목화솜 이불은 물세탁을 하면 솜의 성질이 변하므로 물세탁보다는 햇볕에 말려주는 게 좋다. 텐셀과 모달 성분은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이 가능하고, 거위나 오리털 이불은 털의 기름 성분에 손상이 가지 않게 해야한다.

겨울 이불 보관이 어렵다면

겨울 이불은 세탁만큼이나 보관법도 중요하다. 이불장 안과 이불 사이에 신문지를 깔아 두거나 솜을 종이로 싸서 장롱 안에 넣어두자. 공기 정화와 습도 조절 효과가 있어 이불의 상태를 처음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

겨울 옷! 보관까지 각별하게

부피가 두꺼운 겨울옷은 잘 보관해야 오래 입을 수 있다. 패딩은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 안감을 걸어서 뒤집어 돌돌 말아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울코트는 비닐 대신 부직포 소재의 옷 커버를 씌워 보관하고 플라스틱 보다는 나무 옷걸이에 거는 게 좋다.

집세! 청소는 언제 할까?



쾌적한 거실 만들기 걱정은 넣어둬



방충망 먼지 박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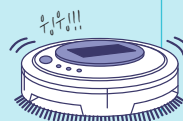
주기적으로 청소하기 어려운 방충망. 그래서인지 한 번 청소를 할 때면 먼지가 엄청 많이 붙어있는 걸 깨닫게 된다. 겁먹지 말자. 다 방법이 있으니. 먼저 분무기를 이용해 방충망을 충분히 물로 적셔준다. 그다음! 신문지를 붙이고 약 20분 뒤에 떼어낼 것. 적시고 붙이고 떼기만 했을 뿐인데 깔끔한 방충망을 맞이할 수 있다.

틈새까지 깨끗하게, 창틀

창틀 청소에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자. 스타킹, 드라이버, 물티슈, 고무줄! 구멍이 나거나 보풀이 일어난 스타킹을 손바닥 크기로 잘라서 끼고 큰 먼지를 훑어준다. 그다음엔 드라이버에 물티슈를 끼우고 고무줄로 고정시켜 좁은 틈새와 구멍을 닦아준다. 그리고 깨끗한 물티슈로 마무리하면 끝!

두꺼운 커튼 세탁법

손상이 가지 않게 찬물 손세탁이 가장 좋다. 부득이하게 세탁기를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세탁망에 동봉한 후 울코스에 중성세제를 이용해 세탁할 것. 건조기는 원단이 손상되므로 피해야 한다.



생활가전도 청소가 필요해!



가습기는 물로 3번 이상!

가습기는 물이 항상 담겨있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쉽다.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은 반드시 부드러운 천이나 솔로 청소를 해주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비누, 락스, 알칼리성 및 산성 세제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세제의 찌꺼기가 남으면 수증기로 배출되어 사람이 흡입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굵은 소금이나 식초를 넣고 3번 이상 헹궈줄 것.

전기난로 청소로 난방비 절약!

전기난로에 먼지가 쌓이면 화재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를 자주해야 한다. 목은 때는 마른 수건에 중성 세제를 묻혀 닦는다. 선풍기형 난로는 뒷부분 환기구 덮개를 열어 모터 주변까지 청소해주는 게 좋다. 먼지가 쌓이지 않게 관리하면 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물기가 완전히 마른 후에 사용할 것!

온풍기 필터는 수시로 청소!

온풍기는 수시로 먼지가 쌓이기 때문에 필터 덮개를 열어 분해한 다음 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솔이나 마른 천을 이용해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동안 쓰지 않는 온풍기를 보관할 때는 마른 클리너로 닦아주고 덮개를 씌워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한다.



뒷면에
볼맛이 청소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하다고 합니다.

역지로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 재미있어서 웃을 때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웃는 표정을 지으면
실제로 웃음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작은 재미를 찾아
과장되게 웃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루한 일상에서도 재미를 찾아 웃다보면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해질 것입니다.

덜 지루하게, 더 재미있게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가슴이픈 실패에 울고,

보란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



